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홍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덩샤오핑 시기 이후 중국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관계 분석

-제3세계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손 지 현

덩샤오핑 시기 이후 중국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관계 분석

-제3세계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

김 홍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손 지 현

인 준 서

손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 즉 중국 지도부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체제 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중국의 대외인식이 현실에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정책이 중국의 대외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양자 간에 괴리는 존재하지 않는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구성주의 이론은 여타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하여 국제체제의 속성과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국제체제 구성원들의 인식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구성주의적 분석법을 차용하였다.

인식 중심적 분석법을 통해 중국의 덩샤오핑 시기(1980년대), 장쩌민 시기(1990년대), 후진타오 시기(2000년대)를 분석한 결과, 본 분석법은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당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당대회 정치보고 문건을 통해 중국의 대외인식을 분석한 후, 이를 해당 시기의 실제 외교정책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대외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장쩌민 시기의 제3세계 정책과 같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자 간에 괴리가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장쩌민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이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성주의적 분석틀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분석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의 대중정책을 향방을 결정함에 있어 중국 내부의 인식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록 본 논문은 연구 시기와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제한성이 있지만, 향후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 2. 기존 연구 검토 | 2 |
| 3. 분석틀 설정 | 5 |
| 1) 구성주의 | 5 |
| (1) 등장배경 | 5 |
| (2) 구성주의의 이론적 토대 | 7 |
| (3)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 | 10 |
| 가.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ctor) | 11 |
| 나. 규범(Norms)과 규칙(Rules) | 12 |
| 다. 정체성(Identity)과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 14 |
| 2) 분석틀 | 15 |
| 4. 연구범위 및 논문구성 | 17 |
| | |
| II.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 21 |
| 1. 덩샤오핑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21 |
| 1)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21 |
| 2)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26 |
| 2. 덩샤오핑 시기 외교정책 | 28 |
| 1)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 | 28 |
| (1) 평화공존 5원칙 | 29 |

| | |
|------------------------|----|
| (2) 반패권주의 | 31 |
| (3) 독립자주 외교노선 | 34 |
| 2) 덩샤오핑 시기 외교정책 | 37 |
| (1) 전방위 독립자주 외교 | 37 |
| (2) 제3세계 정책의 변화 | 42 |
| (3) 개혁개방의 대외경제정책 | 45 |

Ⅲ. 장쩌민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48

| | |
|-------------------------------------|----|
| 1. 장쩌민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48 |
| 1)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48 |
| 2)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53 |
| 2. 장쩌민 시기 외교정책 | 58 |
| 1) 도광양회, 유소작위 | 59 |
| 2) 신안보관 | 61 |
| 3) 강대국 외교 | 65 |
| 4) 주변국 외교 | 74 |
| 5) 제3세계 외교 | 82 |
| 6) 다자 외교 | 85 |

Ⅳ.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92

| | |
|--------------------------------------|-----|
| 1. 후진타오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92 |
| 1)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92 |
| 2) 제1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 97 |
| 2. 후진타오 시기 외교정책 | 102 |
| 1) 화평굴기, 화평발전, 조화세계 | 103 |

| | |
|---------------------------------------|---------|
| 2) 강대국 외교 | 107 |
| 3) 주변국 외교 | 112 |
| 4) 제3세계 외교 | 119 |
| 5) 다자 외교 | 123 |
| 6) 소프트 파워 외교 | 128 |
| V. 각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비교분석 | 136 |
| VI. 결론 | 147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 | |
|---------------------------------------|-----|
| <표-1> 덩샤오핑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28 |
| <표-2> 장쩌민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58 |
| <표-3> 군사동맹과 신안보관 | 64 |
| <표-4> 후진타오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102 |
| <표-5> 중국의 대외관계 유형 | 116 |
| <표-6> 중국의 다자외교에 대한 정책 | 125 |
| <표-7>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자원 | 129 |

그림 목 차

| | |
|------------------|----|
| <그림-1> 분석틀 | 16 |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일국의 외교정책의 목적과 함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를 넘어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체제의 변화는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각국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각국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놓여있는 국제적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정세 인식을 토대로 향후 국가전략과 외교전략이 규정되고 근본적인 대내·외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세계관 등을 통해 객관적 환경 조건이 인식되고 해석되면서 객관적·구조적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 즉 정책방향이 형성되므로 외부적 환경에 대한 중국의 대외인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국제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파악해야 현재와 미래의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아울러 일국의 대외정책은 정책의 속성 상 수립에서 추진까지 요청되는 물리적 시간이 길어 급작스러운 지도부의 대외인식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혹은 지도부가 설정한 국가 목표를 당장 현실에서 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의 대외관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국가의 장기적인 외교전략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00.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외교적 향방과 국가전략 노선을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대외인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등 여러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인식, 행위자들 간의 간주관적 이해와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제체제 속성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의 핵심은 상호구성적 속성을 지니는 구조와 행위자이다. 즉 국제체제는 행위자들 간의 간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 의해 행위자들을 제약하고, 이러한 국제체제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며, 결국 이러한 변화가 다시금 최초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국제체제 성격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은 어떠한가, 즉 중국 지도부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체제 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둘째, 중국의 대외인식이 현실에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정책이 중국의 대외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양자 간에 괴리는 존재하지 않는가이다. 구성주의 이론은 여타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하여 국제체제의 속성과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국제체제 구성원들의 인식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구성주의적 분석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다. 이들 중에는 전국대표대회 연설문, 보고 등 공식 문건을 번역하여 제공

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김재철의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 관계자료”²⁾와 이희옥의 “중국공산당 장정-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³⁾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역 자료들은 아직까지 그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공식 문건들의 완역 자료들이 요구된다.

한편 중국의 전국대표대회 문건을 토대로 그 함의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건국 이전의 전국대표대회 연구로는 박명희의 “건국이전의 당대표대회연구”⁴⁾가 대표적이고, 그 이후 시기로는 양갑용의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⁵⁾, 박광득의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분석”⁶⁾, 김소중의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전망”⁷⁾, 김옥준, 김관옥의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대외정책적 함의”⁸⁾ 등이 있다.

상술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단일 대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양갑용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 개최된 대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본 논문에서 중국의 대외인식 분석을 위해 다수 인용하고 있는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와 같이 제1차 전국대표대회부터 최근 개최된 대회까지를 아우르는 저서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각 대회 마다 대회의 개최 배경, 대회 내용, 대회 평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의 인식을 포착하는데 요구되는 포괄적인

2) 김재철,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 관계자료”, 『중소연구』 제11권 제4호(1987)

3) 이희옥, “중국공산당 장정-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 『중소연구』 제16권 제4호(1992)

4) 박명희, “건국이전의 당대표대회연구”, 『중국』 제19호(1993)

5) 양갑용,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연구』 제30권(2002)

6) 박광득,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 제3호(2003)

7) 김소중,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2002)

8) 김옥준, 김관옥,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대외정책적 함의”, 『평화학연구』 제9권 제1호(2008)

시각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회를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과 시기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중국의 대외인식을 포착하는 거시적 시각을 견지한 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있다. 미국의 국제관계이론인 정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1990년대에 들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1990년대 주류는 자유주의 이론이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현실주의 이론 연구가 거의 양립하는 형세를 취하였다. 21세기에 들어 구성주의 이론 연구가 활발해져, 기존의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연구 분야와 그 수량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등해져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이론 연구가 삼립하는 구조가 되었다. 류용타오(流永濤)가 1990년대 말 저술한 『서구 현실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비판』은 중국 구성주의 연구의 기념비적인 시작을 알리는 글이었다.⁹⁾

이와 같이 21세기 초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구성주의 연구의 비약적 발전이라 할 수 있지만 구성주의 연구는 다른 일반 국제관계 이론 연구 분야에 비해 정책 분야에 적용하거나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이론적인 연구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중국 구성주의 연구는 아직도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론에 대한 소개나 비판,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⁰⁾

중국의 학계에서 구성주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40세 미만의 젊은 학자들이며 전체 수로는 약 40여 명이 존재하는데, 웬정칭, 귀수용, 친야칭, 방장핑, 류용타오, 판취화, 양광이 주요 연구자들이다. 이들 연구의 80% 이상이 이론분야에 집중하고 있다.¹¹⁾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중국 외교정책을 고찰하고 있는 서방측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아론 프라이드버그(Aron Friedberg)의 “The Future of US-China

9) 김홍규,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수용과 발전 연구 소고”,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2010), pp.11-14.

10) 김홍규, 상계서, p.15.

11) 김홍규, 상계서, pp.15-16.

Relations¹²⁾를 들 수 있다. 아론은 향후 20-30년간 미중 관계가 협력 또는 경쟁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각각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의 구성주의적 분석에 따르면 미중 관계가 반드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양국 간에는 고착화된 심리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수십 년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의 정체성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기존에 확립된 사회 시스템은 안정된 역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중국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특히 중국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는 중국 측 공식 문건을 토대로 한 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분석틀 설정

1) 구성주의

(1) 등장배경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간에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불어닥친 탈실증주의의 바람은 국제정치이론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합리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에 대한 반발로 성찰주의적이고 탈실증적인 다양한 접근이 등장

12) Aron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2(2005), pp.7-45.

하기 시작하였다.¹³⁾ 다양한 탈실증주의 이론들의 등장과 더불어 국제정치학계는 마치 이론들의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는데¹⁴⁾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정치학의 기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존의 이론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구성주의이다.

이로써 국제정치학에서의 논쟁은 1920-1930년대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이론적 논쟁과 1950-1960년대의 역사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간의 방법론 논쟁을 거쳐 1980년 이후의 세 번째 논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제3의 논쟁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을 넘어서는 다양한 갈래의 비판이론의 입장으로 표현되고,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탈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의로 대표된다.¹⁵⁾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같은 합리주의 이론은 ‘실증주의¹⁶⁾적 견해’를 택함으로써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경험에 의한 확인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경험주의라고도 불린다. 합리주의 이론은 물질적인 것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국력, 경제력 등과 같이 비교 가능한 수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⁷⁾

13)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과주: 법문사, 2008), p.564.

14)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2000), p.6.

15)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1998), pp.147-148.

16)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서의 실증주의는 다음의 4가지 가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의 일체성이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는 동일한 방법론과 인식론이 적용된다. 둘째,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 가능하며, 사실은 이론적으로 중립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식이 가능하다. 셋째,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규칙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역-법칙적, 귀납-통계적 형태의 설명이 가능하다. 넷째, 경험적 증명이나 반증이 실질적인 연구의 중심적인 과제이다. : Steve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ge University Press, 1996), p.16.

17) Lyle Flint, "Meta-Theoretical Issues to Consider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2003) <http://www.bsu.edu/classes/flint/comm360/metatheo.html>.

이와 같은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을 비판하는 구성주의의 인식의 지평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기왕의 이론적 논의에서 배제된 상호주관적 구성의 측면을 자신들의 존재론에 핵심으로 삼게 됨으로써 국가 행위와 국제정치구조가 상호작용한다는 이른바 변형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방법론에 관련된다. 신현실주의가 국가를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파악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국가행위의 원천을 절대적 이익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대조되는데,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의 구분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선호체계이며 국가행위를 개체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구성주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행위란 원인과 결과를 고려한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일정한 규범과 관습체계의 적응과정이다.¹⁸⁾

(2) 구성주의의 이론적 토대

구성주의는 기존 국제정치 이론들이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 국제정치 이론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철학적 기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¹⁹⁾ 구성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하버마스와 기든스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의 합리성’²⁰⁾ 개념이다. 하버마스는 의식철학이 갖는 이론적 한계와 현대사

18) 홍성민, “정체성과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2002), p.10.

1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86.

20) 하버마스는 ‘합리성’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계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Jurgен Habermas,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역, (서울: 관악사, 1995), p.23. ; 하버마스에 따르면 효율성을 합리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적합리성만을 합리성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찾는다. 상호주관적인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의식철학의 관념에서 주체는 세계를 실존하는 대상들 또는 사태들의 총체성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의식철학 패러다임에서 간과한 다른 차원으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개인과 상호적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성을 지적하였다. 즉, 세계에 대한 관념에는 다른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유하는 규범적 차원 및 다른 주체에 대해 고유한 주관적 차원의 경험의 차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동기지워진 공통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와 자신들의 삶의 연관이 갖는 간주관성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고 보았다.²²⁾

기든스의 사회이론은 하버마스의 입장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구성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기든스의 견해는 행위자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잘 나타난다.²³⁾

사회과학에서 좁혀지지 않는 방법론적 간극은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과학 이론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단절을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통합

태도이다. 이는 과학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하버마스는 도덕과 예술에도 나름의 고유 논리가 있으며 합리적 구조가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과학, 도덕, 예술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합리적 구조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세 측면이다.:박은미,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43.

21)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Boston: Beacon Press, 1987), pp.62-73.

22) 김재현,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서울: 나남출판, 1996), p.47.

23)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 (1998), pp.149-150.

된 사회이론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이론의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 고전적 사회학자의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적 논리의 전개는 미시적 기초와 거시적 현상의 탐색이라는 명제와 더불어 이론의 통합 연계의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²⁴⁾

기든스는 구조와 행위자의 이중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작업을 시도했다. 그는 이러한 이중성이 현대성에 관한 사회이론이 실패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노력은 ‘구조화 이론’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⁵⁾

구조화 이론은 ‘구조는 행위의 매개이자 결과’라는 명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틀을 이루는 체계의 조직화를 담당한다.²⁶⁾ 기든스는 행위자로서 인간과 사회적 구조는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개인적 행위자의 행동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사회에는 전통, 제도, 도덕적 코드, 어떤 일을 하는 기존의 방법과 같은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화 이론은 ‘구조’를 사회적 재생산에서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자원으로 본다. 그러나 구조화 이론은 또한 인간이 사회구조를 무시하고 대체하여 다르게 재생산하려고 시도한다면 사회구조는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²⁷⁾ 즉 구조화 이론은 구조와 행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한 사회체계의 생산과 재생산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²⁸⁾

상술한 바와 같이 기든스가 구조의 속성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자원과 규칙이다. 사람들은 사회구조 속에 유형화 되어 있는 규칙을 따른다. 기든스는

24) 장원호, 최미옥, “지방정부혁신역량 구조화 모델: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연구』 제9집 2호(2005), p.91.

25) 김윤태,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6), p.135.

26) 박형준, “안토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근대성”, 『한국사회학』 제26집(1992), p.174.

27) 김윤태, 전게서, pp.135-136.

28) 장원호, 최미옥, 전게서, p.92.

규칙의 두 가지 차원을 ‘의미의 구성’과 관련된 것과 ‘사회적 행동의 제약’에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규칙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벌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체계 속에 구조화 되어 있는 지배양식에 의존한다. 자원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조직능력을 말한다. 규칙과 자원들은 상이한 방법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매개물을 제공한다.²⁹⁾

즉 기든스에 따르면 구조란 행위자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자원으로 개념화 되며, 행위자는 규칙을 이해하고 제도적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구조를 재생산하지만 동시에 상호작용에 내재화되어 있는 권력관계를 매개로 하여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³⁰⁾ 따라서 구조화 이론은 구조와 행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한 사회체계의 생산과 재생산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³¹⁾

(3)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

구성주의 이론은 물리적 힘에 기반한 국가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나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특히 규범과 정체성에 기반한 상호관계, 이념과 문화를 매개로 한 행위자 간 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³²⁾ 러기(John Gerard Ruggie)에 따르면 구성주의 이론은 행위자의 이익과 정체성을 다시 문제시

29) 케니스 H. 터커,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김용규, 박형신 역, (서울: 일신사, 1999), pp.136-138.; 신옥희 (1998), p150에서 재인용.

30) Alexander Giddens, *The Consistutions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31) 장원호, 최미옥, “지방정부혁신역량 구조화 모델: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연구』 제9집 2호 (2005), p.92.

32)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0집 2호(2010), pp.36-37.

하고, 사회적 행위와 사회질서의 간주관적 기초를 깊숙이 포용하며, 사회적 행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창조, 재창조되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변화되는 구조의 이중성을 확립하고자 한다.³³⁾

가.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ctor)

구성주의에 있어서 구조란 자원과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물질적인 제약만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있다. 즉 현실주의와 크게 다른 점이란 규범적인 구조를 국가 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며 따라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학습(Learning)을 구조와 행동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본다.³⁴⁾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적 생활의 특성은 국가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들은 물질적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 주로 구성된다”³⁵⁾고 분석하였다.

구성주의는 국제정치 이론에 있어서 기본 분석 단위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³⁶⁾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통해 그들이 존재하는 체제를 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주체이며 국제체제는 이러한 단위 차원의 상호작용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에 의한 구조 구성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와 의도가 외면화되고 객관화되는 과정이라면, 구조에 의한 행위자의 구성은 객관화된 간주관적 의미들이 행위자의 성찰적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

33) John G.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1998), p.862.

34)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과주: 법문사, 2008), p.576.

35)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20.

36)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8, No.2 (1994), p.384.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즉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동시에 구성한다는 것이다.³⁸⁾ 웬트는 이와 관련하여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체제를 형성하는 주체와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구성적인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고 역설하였고, 오너프 역시도 주체와 구조가 서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⁴⁰⁾

따라서 주류 이론이 단순하게 전제하고 있는 자구체제로서의 국제정치는 사실상 행위자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며, 그 자체가 무정부성의 의미와 국가 행위를 위한 권력의 분포 형태를 결정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⁴¹⁾ 즉 과정과 관련이 없는 신현실주의자들의 ‘무정부상태의 논리’⁴²⁾라는 것은 없으며 국가들이 어떠한 욕망과 이익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⁴³⁾

나. 규범(Norms)과 규칙(Rules)

국제정치에서 규범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37) 김학노, “합리주의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국가전략』 제6권 2호(2000), p.63.

38)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과주: 법문사, 2008), p.579.

39) Alexander Wendt, “The Agent 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41, No.3, pp.37-338.

40)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1998), p.151.

41) 신옥희, 상거서, p.153.

42) 웬트는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형성한 결과물이며, 안보딜레마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James Der Derian (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New York University, pp.129-177. ; 오너프는 무정부상태를 어떤 한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이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규칙의 한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Nicholas G. Onuf,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Armonk, New York: M.E. Sherpe, 1998), p.62.

43)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1999), pp.308-309.

정책결정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규범적 근거에서 특정 정책을 선호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이익 집단들이 특정 규범을 제시하고 옹호하여 정부로 하여금 특정 정책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셋째, 전문가 그룹이나 정책 자문 그룹은 규범을 기준으로 일종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확산되는 규범들은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되고 국내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진다.⁴⁴⁾

구성주의 국제정치관은 일국이 타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간주관적 인지과정이 자연스럽게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규범을 내재화시킴으로써 국제적 협조체제가 공고화된다고 보고 있다.⁴⁵⁾ 오너프는 규칙이 주체와 구조가 서로를 구성하는 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로써 작용한다고 주장한다.⁴⁶⁾

크라스너(Stephen Krasner)는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들이 수렴하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들, 규범들, 규칙들, 의사결정절차들’이라고 정의한다.⁴⁷⁾ 그러나 레짐이론가들은 이러한 레짐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실증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한 결과 레짐의 형성과 존재 그 자체가 국가들 사이의 공유된 의식,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⁴⁸⁾

크라토크빌(Friedrich Kratochwil) 역시 국제레짐을 ‘암묵적인 규칙(Tacit Rules)’으로 정의하고 간주관적 의미로서의 규범이 국가의 행태에 미치는

44) Gregory A. Raymond,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Norm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41(1997), p.216.

45) 홍성민, “정체성과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2002), p.11.

46) Nicholas G. Onuf,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9).

47) Krasner, S.,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2.

48)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2000), p.27.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국제레짐 안에서 규범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의 수동적인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해석, 명분이나 정당화 또는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주어지는 의사소통적 동학 (Communicative Dynamics)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다. 정체성(Identity)과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구성주의자들은 국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의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 단위체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주권의 개념이 그 예인데 주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본다.⁵⁰⁾ 즉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구성주의자들은 주권이란 기본적으로 근대 국제관계의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정의한다.⁵²⁾ 오너프는 우리가 주권에 부여하는 대외적인 독립성, 대내적 지배, 그리고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의 절대적인 속성은 사실상 하나의 허구이거나 이상에 해당하며 국제정치에서의 사회적 협의란 주권국가의 공식적 측면이나 중앙집권적인 강제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⁵³⁾

49)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1998), p.154.

50) 신옥희, 상계서, p.155.

51) Michael Bukovansky, "Identity and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Reca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Paradigms*, (서울: KAIS, 1996), pp.248-250.

52)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93.

53) Nicholas G. Onuf, "Sovereignty: Outline of a Conceptual History", *Alternatives*, Vol.16, No.4(1991), pp.167-168.

웬트는 간주관성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설명한다. 웬트는 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는 곧 다른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타 국가의 행위유형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거울이론(mirror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 간의 간주관적 이해와 기대의 연쇄과정이 각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국제정치 무대에 하나의 관습과 제도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⁴⁾

즉 상술한 웬트의 개념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타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부과하는 의미 체계라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성의 획득 과정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웬트는 또한 개별 정체성의 차원을 넘어 집합적 정체성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다수의 집합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획득한 정체성을 일컫는 개념으로 집단 상호간의 협력적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갈등적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⁵⁵⁾

결론적으로 웬트는 공유된 지식이라는 집단적 의미(Collective Meaning)가 우리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구조(Structure)를 정의하며 행위자들은 이러한 집단적 의미에 참여함으로써 이익과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본다. 즉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⁵⁶⁾

2) 분석틀 설정

본 논문은 주지하였듯이 중국의 각 시기별 대외인식, 인식과 외교정책의

54) 홍성민, “정체성과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2002), p.11.

55)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8, No.2 (1994), pp.384-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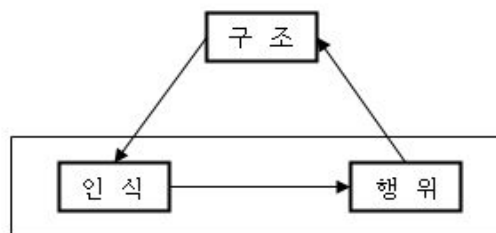
56)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과주: 법문사, 2008), p.578.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구성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과 요소들 중 특히 ‘인식’에 기초한 구성주의적 분석법을 차용할 것임을 밝힌다.

인식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시각은 국제체제 수준에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체제의 속성에 의해 단위의 행위가 규정된다고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적 분석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강대국 간의 상대적인 힘에 따라 구성되는 극성에 중점을 둔다. 물론 국제체제의 변화가 중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신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자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강력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종합국력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분석을 지향하는 신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작금의 국제체제는 이미 ‘G2’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나 중국은 한동안 이를 부정하며 자국은 여전히 제3세계이며 발전도상국이라고 천명해왔다. 이러한 괴리는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향후 행위자의 행동 변화나 의도 등을 정확히 예측해 낼 수 있다.

<그림-1> 분석틀



본 논문은 <그림-1>과 같이 표현되는 구성주의 이론의 내용 중 하층부, 그 중에서도 특히 ‘인식’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중국의 대외인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고, 나아가 그 인식과 실제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정책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4. 연구범위 및 논문구성

국제체제 자체가 변화하는 대변동의 시기에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 국제체제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국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보다 중국이 세계질서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직접적으로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적 시각에서 본 국제질서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⁷⁾

개혁개방 정책으로 외교정책 결정에서 개인적 요인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에서 집단지도원칙이 강조되면서 권력은 한 명의 핵심 지도자로부터 소수의 지도자로 구성된 지도부로 이동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의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교정책에 개입하게 되었다. 외교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제도화와 분권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최고지도자는 일부 의제에서 강력한 권위를 행사한다.⁵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지도부는 정책 결정자로서 외교정책을

57)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서울:한울아카데미,2007), p.193.

58) 구체적으로 최고지도부는 안보나 영토문제 등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최고지도자와 핵심지도부에 집중된다.;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Boulder : Westview Press, 1977), pp.8-16.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처한 대외적 환경을 평가하고 또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도 담당한다.⁵⁹⁾ 실제로 중국 외교정책의 역사는 중국 지도자들이 국제구조를 다시 정의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조가 지도부에 의해 왜곡되어 해석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제체제는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⁶⁰⁾ 이와 같은 근거로 중국의 대외인식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바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지도부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임을 밝힌다.

‘인식’이라 함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을 의미한다.⁶¹⁾ 다시 말해 인식이란 정신적인 사고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정책결정자의 사고과정을 추적하여 그들의 인식을 해석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유로 정책결정자의 대외인식 분석에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보고서나 선언 등의 공식적인 문건을 바탕으로 한 추론과정이 요구된다.

외교언어에 관한 니콜라스 오너프(Nicholas Onuf)의 주장은 흔히 언어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⁶²⁾ 오너프에 따르면 언어행위(speech acts)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도화된 규칙(rules)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규칙은 다시 사회적 의미에 대한 맥락(context)을 생성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립된 맥락 안에서 외교적 단어(word)는 세계(world)를 분석하는 데 강력한 단서가 된다. 다시 말

59)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Huet al (e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p.82,

60) 김채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데이아, 2007), p.26.

6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943300> (검색일 :2011. 9. 20)

6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ja Zehfuss,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51-195. 을 참조.

해 언어행위와 규칙은 단어(word)와 세계(world)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외교문건에서 나타나는 외교적 수사들의 함의와 의미변화, 교체 등을 면밀히 연구한다면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외교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들이 변화할 조짐이 포착된다면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외교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며, 국가관계에서 군사력, 혹은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방식이 아닌 언어행위를 통해서도 강제가 가능하다는 오너프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논문은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다양한 공식문건 중 매 5년마다 1회씩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⁶³⁾의 『정치보고』 내용에서 대외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당대회는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이래 지금까지 총 17차례 개최된 바 있다. 당대회는 당의 최고 지도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조기 소집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에 한번 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⁶⁴⁾ 그 휴회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 당대회의 폐회기간 중 당대회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⁶⁵⁾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중국의 대·내외적 국가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을 유추하는 수단으로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3)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매 5년마다 가을에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통상적으로 당대회 준비기간은 2년이며, 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인사변동 및 정책 방향 제시는 이듬해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인사 및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데 주요한 지표가 된다. :김홍규, “중국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평가 및 대외정책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통상부, 2007), p.1.

64) 1969년 제9차 당대회 당장에 명문화되었다.

65) 박명희, “건국이전 당대표대회 연구”, 『중국』, 제19호(1993), pp.39-40.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분석 시기를 중국 역사상 일대의 전환기라고 일컬어지는 제11차 3중전회 이후의 시기, 즉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제12차 당대회(1982년)부터 후진타오 시기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17차 당대회(2007년)까지로 설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제2장은 덩샤오핑 시기로서 1980년대 개최되었던 제12차,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대외인식을 분석한다. 외교정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화공존 5원칙, 반패권주의, 그리고 독립 자주 외교노선에 관해 고찰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덩샤오핑 시기의 외교정책 분석을 위하여 전방위 독립자주외교, 제3세계 정책의 변화, 그리고 개혁개방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해 정리한다.

제3장은 장쩌민 시기로 덩샤오핑 시기에 적용한 분석법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개최된 제14차,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분석하고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외교정책의 경우는 도광양회와 유소작위 전략, 신안보관, 강대국과 주변국,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외교, 마지막으로 다자 외교에 관해 연구한다.

제4장은 후진타오 시기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최된 제16차, 제17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대외인식을 분석하고, 외교정책을 정리한다. 후진타오 시기 외교정책은 크게 화평굴기, 화평발전, 조화세계 전략, 강대국과 주변국, 제3세계에 대한 외교, 다자 외교, 그리고 소프트 외교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장은 앞서 각 시기별로 살펴본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각 시기별 특성에 입각하여 인식의 지속성과 변화,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고찰한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중국의 대외인식과 정책을 고찰하는 데 있어 구성주의적 분석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평가한다.

Ⅱ.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1. 덩샤오핑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1)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제12차 당대회는 1982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고, 후야오방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의 정치보고를 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보고 중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제5장 독립자주의 대외정책 견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고는 “현재의 국면을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상호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⁶⁶⁾

후야오방은 당시 중국공산당의 주요 임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산업과 농업의 발전, 국방 강화, 과학기술의 현대화(4개 현대화)를 실현하여 문명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둘째, 대만과 홍콩 문제를 포함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를 견지하고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투쟁한다.⁶⁷⁾ 이와 같은 여러 과제 중의 중국이 설정하는 최우선 과제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4개 현대화이다.⁶⁸⁾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부수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66)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56.

67)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59.

68)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59.

광범위하게 대외경제기술을 교류하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국내 상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강력하게 확장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기술 개조에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 등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⁶⁹⁾

후야오방은 보고를 통해 과격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운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상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가령 보고에서는 “대외교류 중 자본주의 사상의 침식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어떠한 외세 숭배 사상과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⁷⁰⁾, “경제영역과 정치문화영역 중 사회주의에 유해한 심각한 범죄활동을 저지한다”⁷¹⁾는 등의 언급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성장, 국력증강을 위해 서방세계의 시장경제 논리를 차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제12차 보고를 통해 당대 중국 대외정책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으로 본 대회를 통해 처음 정식으로 등장한 원칙이다. 후야오방은 독립자주 외교정책에 관해 “중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가 기본 출발점이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외교정책을 견지한다. (...) 중국은 절대로 어떠한 대국이나 집단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⁷²⁾라고 언급하고 있다.

독립자주 외교노선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은 세계 각국의 평화공존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한다.⁷³⁾ 후야오방에 따르면 전세

69)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64.

70)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64.

71)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0.

72)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0.

73)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계 패권을 추구하는 초강대국은 어떠한 국가보다도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추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을 전개하며 전 세계의 불안과 분쟁을 조장하는 주요 근원이다.⁷⁴⁾ 따라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초강대국의 군비경쟁과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⁷⁵⁾

보고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두 번째 원칙은 평화공존 5원칙이다. 당대회 보고는 중국이 평화공존 5원칙을 견지하게 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⁷⁶⁾ 첫째, 중국은 과거 서양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 둘째,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지하며 최후에는 전 세계에 걸쳐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지만, 혁명은 수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혁명은 단지 각국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고』는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중국이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를 나열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제고하고 많은 동맹을 얻었으며, 국제관계에서 존엄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⁷⁷⁾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일본, 미국, 소련,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해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10년 전 국교 정상화에 성공한 이후의 양국관계를 “평화우호관계의 발전, 평등호혜, 장기간의 안정적 관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후야오방은 일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본 당국의 제재·관리를 요구하

74)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72.

75)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76)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1.

77)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0.

고 있다.⁷⁸⁾

미국과의 관계 역시 1979년 우호관계가 성립된 이래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 왔지만, 양국 간에는 여전히 대만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 특히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대만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대우한 것은 명백한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⁷⁹⁾

또한 후야오방은 앞으로의 중·소 관계는 전적으로 소련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소련은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변방에서 도발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만일 소련 당국이 이러한 행보를 멈추고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은 양국의 오랜 우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⁸⁰⁾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일본, 미국, 소련과 각각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각국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언급을 마무리하며 모두와 세계평화 수호라는 공동의 염원을 가지고 경제문화협력 방면의 공통된 이익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⁸¹⁾

중국이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제3세계 국가이다. 중국은 먼저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전력을 다하여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운명을 지원한다”⁸²⁾고 언급하며 “이것을 자국의 신성한 국제적 의무”⁸³⁾라고 표현한다. 후야오방은 제3

78)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71.

79)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1.

80)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81)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1.

82)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3.

세계 국가들과의 공동의 의무는 “민족의 독립과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제적 독립을 기초로 이미 획득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화 시키는 것”⁸⁴⁾이라 천명한다.

또한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시장, 특색 있는 기술, 개별적인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같은 연유로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성과는 결코 선진국과의 협력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현재의 불평등한 국제경제 관계를 타개하고 국제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⁸⁵⁾

후야오방은 보고의 말미에 중국의 향후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은 인구 10억의 대국이므로 세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행한 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 것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발전을 강화하여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⁸⁶⁾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력을 쌓고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중국은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83)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72.

84)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3.

85)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3.

86)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3.

2)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제13차 당대회는 1987년 10월 25일부터 총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치 보고를 맡은 자오쯔양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는 제목의 정치보고를 하였다.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 중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정치보고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 ‘제1장 역사적 성과와 이 대회의 임무’, ‘제2장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제3장 경제발전 전략에 관하여’, ‘제7장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등에 포함된 내용이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13차 보고에서는 당면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내적 조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제적 환경이 유리하다고 보아, 이 시기는 도전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기 때문에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보고 있다.⁸⁷⁾ 자오쯔양은 당시 국제정세가 “새로운 기술혁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국제정치의 조류가 급변”⁸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⁸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비경쟁의 완전한 종식은 여전히 요원하고 지역분쟁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화의 유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비경쟁과 침략의 확산을 제지하고 있으며, 진정한 군축과 분쟁지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자오쯔양은 미국과 소련이 맺은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적인 합의는 비록 구축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지만 동·서 관계가 완화될 분위기가 포착된 것으로 파악하고

87)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346.

88)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2122.

89)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2144.

있는 것이다.⁹⁰⁾

제13차 당대회 보고는 제11차 3중전회 이후의 발전방향을 계승하여 국제 정세와 중국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따라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외교방식과 당의 대외관계를 조정하여 독립자주, 반패권주의, 세계평화 유지의 대외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⁹¹⁾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정책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보고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르면 쇄국정책으로는 낙후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은 앞으로 특히 대외 경제기술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문명의 성과를 흡수하는데 노력하여 선진국가와의 차이를 좁혀나가고자 한다.⁹²⁾ 이를 위해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국내의 과학기술 연구와 밀접히 결합시켜 도입기술의 소화, 흡수 및 개량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인재교류도 진취적으로 전개⁹³⁾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자오쯔양은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대외개방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 4개 기본원칙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견지라는 총 방침은 두 가지 기본점이 상호결합된 것으로 어느 하나를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주요 주제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⁹⁴⁾

90)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44.

91)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1.

92)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4.

93)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6.

94)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42.

<표-1> 덩샤오핑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국제정세인식 | 외교노선 |
|--|---|---|
| 제12차 (1982.9.1~11) 후야오방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권을 추구하는 초강대국으로 인해 세계 대전의 위험성 증가 • 전쟁불가피론 • 중국은 발전도상국이자 제3세계 국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 • 세계평화와 인류발전 • 반패권주의, 반제국주의 • 평화공존 5원칙 •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 |
| 제13차 (1987.10.25~11.1) 자오쯔양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 • 평화와 발전이 추세 • 국제정세의 긴장요소 여전히 존재 • 전쟁가피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 • 세계평화와 인류발전 • 반패권주의 • 평화공존 5원칙 |

출처: 田曉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 (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p.1956-2144를 토대로 정리.

2. 덩샤오핑 시기 외교정책

1)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이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 목표는 국가의 열망이나 숙원 등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⁹⁵⁾ 외교원칙이라는

95) 강석찬,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p.78.

것은 규정된 외교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이전의 단계에서 외교행위의 전반적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실천적인 전략·전술을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⁶⁾

중국의 외교정책은 독립자주, 평화공존, 반(反)패권주의, 하나의 중국 및 경제건설을 지향한다. 이것은 현대중국의 외교정책 원칙이면서 동시에 목표이기도 하다.⁹⁷⁾ 마오쩌둥이 기초하여 1949년 9월 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결론은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번영의 신중국 건설”이었다.⁹⁸⁾ 이들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의 범위와 해석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본질적인 개념은 신중국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1) 평화공존 5원칙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간섭 봉쇄를 극복하고 여러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대외관계에서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원칙은 ‘평화공존 5원칙(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이다.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9년 4월 중국이 영국 군함의 양자강 진입 반대 성명에서였다. 마오쩌둥이 기초한 이 성명은 “중국인민혁명위원회와 인민정부는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라는 바, 이런 관계는 반드시 호혜평등 및 상호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공동강령에서 중국은 “호혜평등 및 상호 간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외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외교관

96) 소치형, “외교정책의 목표와 원칙”, 『중국외교정책론』 (서울:골드, 2004), pp.16-17.

97)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0), p.31.

98) Mao Tseting, "Long Live the Great Unity of the Chinese People!". *Selected Works of Mao Tseting*, Vol. v, (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1977), p.21.

계를 맺는다고 하였다.⁹⁹⁾

이후 평화공존 5원칙은 1953년 12월 31일, 북경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중국 티베트 지역과 인도 간의 문제에 대해 인도측 대표단과 가진 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저우언라이는 영토 주권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 평화공존 5원칙을 제시하며, “양국관계에서는,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이 서로 인접해있는 대국 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만 이미 성숙되어 있는 미해결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¹⁰⁰⁾이라 언급하였고,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중국과 인도, 양국 간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이후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중국 티베트 지역 및 인도 간 통상 및 교통에 대한 협정》에 국제조약 상 처음으로 활자화되었고¹⁰¹⁾, 협정 전문에는 평화공존 5원칙을 양국 관계를 처리하는 준칙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

덩샤오핑은 제12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하여 평화공존 5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중국은 과거 서양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최후에는 전 세계에 걸쳐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지만 ‘혁명’은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은 단지 각국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¹⁰²⁾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1954년 6월 28일 뉴델리에서 발표된 평화공존 5

99) Harold Hinton(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A Documentary Survey*, Vol.1 (1980), pp.51-55.

100) 中央文獻出版社編, 『周恩來年譜』(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 p. 342.

101)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北京大學出版社, 2010), p. 115.

102) 圓睜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1.

원칙에 대한 네루 수상과 저우언라이 총리와의 공동성명과 같은 해 6월 30일 랑군에서 공포된 평화공존 5원칙에 관한 저우언라이 총리와 미안마 우누 수상의 공동성명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보완되었다. 더 나아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¹⁰³⁾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평화공존 5원칙’을 확대·발전시켜 ‘평화 10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주권 및 영토보전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범, 상호내정불간섭, 평등 상호이익, 평화공존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¹⁰⁴⁾ ‘세계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 이른바 ‘반둥 10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둘째,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셋째,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넷째, 내정불간섭, 다섯째, 단독 혹은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여섯째,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일곱째,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 사용 금지, 여덟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아홉째, 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와 국제 의무의 존중이 그것이다.

평화공존 5원칙은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통해 점차 양국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평화공존 5원칙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공동체 방식, 동맹체 방식, 동서이념대결 방식은 모두 모순을 가져와 국제적 대세를 격화시킬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대한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평화공존 5원칙이다”¹⁰⁵⁾라고 강조한 바 있다.

(2) 반패권주의

103) 金官楷, "平和共存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教 大學院 論文集』 제12집 (1980), p. 3.

104) 『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史』(北京大学出版社, 2010), p. 116.

105) 『邓小平文件』 제3권, p129.

중국의 반패권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은 원래 미국과 소련이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었고, 19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그 대상이었고, 1970년대에는 중·소간의 충돌로 소련에 그 중점을 두었고, 1980년대에는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중심이 안보중심에서 경제실리 위주로 바뀌면서 미국과 소련에 대한 반패권주의 원칙도 유연해졌다.¹⁰⁶⁾

중국은 초강대국의 패권추구를 반대하고 그들의 강권정치에 대항하고자 하는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화궈펑은 정부활동보고에서 “평등하게 인간을 취급하는가 혹은 패권을 휘두르는가는 어느 국가가 평화공존원칙에 따르고 있는가, 또 진정한 사회주의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중국은 세계 각국 인민의 편에 서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 것”¹⁰⁷⁾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 시기 미국보다 소련의 패권 추구를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974년 일본 방중단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덩샤오핑은 “두 초강대국 가운데 소련이 미국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다.(...) 미국은 일정 기간까지 소련보다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위적 세력이지만 소련은 미국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공세적이다”¹⁰⁸⁾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반패권주의를 추구함에 있어 연미반소(聯美反蘇)의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상해공동성명’에서 “어느 일방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각방은 모두 어떠한 국가라도 이러한 패권을 추구하는데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이나¹⁰⁹⁾ 1974년 개최된 제6차 유엔

106)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2000), p.41.

107) 김병일, “중공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10집(1980), p.260.

108) 『朝日新聞』(1974년 8월 21일자); 이방숙, “중공 반패권주의의 이론과 실제”, 『건대학술지』 제26집(1982), p.220에서 재인용.

109) 김옥준, “덩샤오핑의 반패권주의 외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2002), P.7.

특별회의에서 “양 초강대국은 현대의 최대 국제적 약탈자이며, 새로운 세계 대전의 근원지이다. 이 두 나라는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타국의 독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양국은 타국에 대하여 다 같이 끊임없는 지배, 간섭 및 침략을 감행하여 타국의 재부와 자원 등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¹¹⁰⁾는 덩샤오핑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덩샤오핑은 “미국은 중·소 분쟁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우리는 왜 미·소 간의 모순과 갈등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겠는가”¹¹¹⁾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며 미국과의 연대가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970년대 들어 중국은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소련 사회제국주의라 인식하였고, 힘의 열세 상태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다른 힘과의 규합을 통한 힘의 평형상태를 이루어 내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국제환경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국의 반패권주의 전략은 소련의 팽창전략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아시아에서의 국제정세를, 미국을 이용한 세력균형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²⁾

한편 덩샤오핑이 1989년 G7(서방 7개국) 정상회의도 반패권주의와 강권주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¹¹³⁾한 바 있지만,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반패권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은 미국이라 할 수 있다.¹¹⁴⁾

110) 『人民日报』(1974년 4월 11일자).

111) 『人民日报』(1977년 7월 21일자).

112) 김옥준, “덩샤오핑의 반패권주의 외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2002), p.10.

113)邓小平, “坚持社会主义, 防止和平演变”, 『邓小平文选第三卷』, (北京:人民出版社, 1993), pp.344-346.

(3) 독립 자주 외교노선

독립자주 외교노선의 본질은 바로 중국이 강조하는 어떤 강대국 혹은 국가집단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떤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그들과 전략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 비동맹이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⁵⁾

첫째, 중국은 어떠한 초강대국과도 야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중국은 각각의 국제적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중국의 입장을 결정한다.

둘째,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에 관계없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

셋째,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중국은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은 소련의 정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물론 반패권주의가 대화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든 국가의 문화를 개방함은 중국 외교정책의 주요 부분이며 이러한 기본정책은 불변의 것이다. 중국의 현대화 계획의 점진적 발전과 더불어 타국과 경제·과학·기술·문화교류 또한 발전될 것이다.

중국의 독립자주 외교원칙은 국제사회 변혁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자주 독립적인 판단과 정책수립으로 평화와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과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다극화 발전을 촉진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¹¹⁶⁾

1981년 6월 제11차 6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건국 이후의 역사 문제

114)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2000), p.42.

115) 『Beijing Review』 (Jan. 30, 1984), pp.4-5.

116) 이영주,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서울 : 나남출판, 1998), p.153.

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를 통해 당시 추진 중인 독립자주정책을 찬양하며, 이후 국제교류에서 이 원칙이 견지될 것임을 표명했다.¹¹⁷⁾ “항전시기에 우리 당은 통일전선에서 독립자주의 정책을 견지했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근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이 독립자주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획득한 것이다.”¹¹⁸⁾라고 결의문은 주장하며,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마오쩌둥 사상의 3가지 핵심은 바로 실사구시와 균중노선 및 독립자주이다.”¹¹⁹⁾

경제건설을 국가목표의 최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등장한 독립자주 외교노선은 이후 1982년 개최된 제12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덩샤오핑은 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한다. 중국은 절대로 어떠한 대국이나 집단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¹²⁰⁾고 언급하였다.

제12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수정헌법 서언에서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며,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타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킨다.”¹²¹⁾라고 밝힘으로써 최초로 대외정책을 헌법에 편입시켰다.

1986년 3월 자오쯔양은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제7차 5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국제형세의 객관적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에 대한 조정과 보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중국 독립자주 외교

1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關於建國以來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註釋本』(北京:人民出版社, 1991年), pp.577-578.; 차성만, “80年代 中國의 獨立自主 外交政策의 運用에 관한 考察”, 『서경대학교 논문집』 제23권 제1호 (서경대학교, 1995), p.236 에서 재인용.

118) 『1981年匪情年報』(台北: 中國研究出版社, 民國70年, 9月), pp.38-39.; 차성만, 상계서 p.236에서 재인용.

119) 郝夢算, 段浩然主編, 『中國共產黨60年』(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年), pp.7-9.; 차성만, 상계서 p.236에서 재인용.

120)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0.

121) 『中華人民共和國憲法』(北京:人民出版社, 1993), p.10.

정책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을 10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외교정책 10항 기본원칙을 대외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첫째, 중국 대외활동의 근본목표는 패권주의의 반대, 세계평화의 유지, 각국과의 우호협력의 발전 그리고 공동 경제번영의 촉진이다. 둘째, 모든 국가는 대소, 빈부, 강약을 불문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셋째, 독립자주를 견지하여 일체의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비곡직에 따라 중국의 태도와 대책을 결정한다. 넷째, 어떤 초강대국에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결성하거나 전략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평화공존 5원칙을 엄수하며, 이 기초 위에서 세계 각국과 정상관계를 수립·회복·발전시키며,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에 의해 친소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여섯째, 중국은 제3세계에 속하며 제3세계 국가와의 단결과 협력의 강화와 발전이 대외활동의 기본 출발점임을 견지한다. 일곱째,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이러한 군비경쟁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선제공격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재천명한다. 여덟째, 대외개방의 장기적인 실행을 견지하며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의 경제·무역·기술교류 및 협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아홉째, 유엔 조직이 현장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지하며 유엔과 그 전문기구가 전개하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유리한 활동을 적극 참여한다. 열째, 각국 인민간의 교류를 중시하며 각국 인민간의 이해와 우의를 강화한다.¹²²⁾

이에 대한 평가는 첫째, 중국이 전방위적 평화공존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명실상부한 독립주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소와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재조정함으로써 세력균형의 달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상유지의 평화지향 자세로서,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122) 『大公报』(1986년 3월 26일자).

된 것이다. 끝으로 탈이념의 실용주의노선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¹²³⁾

2) 덩샤오핑 시기 외교정책

(1) 전방위 독립자주의교

덩샤오핑은 1978년 3월 18일 전국과학대학회의 개막식에서 4개 현대화를 실용주의 원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20세기 안에 전면적인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 국가를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 이룩해야 할 위대한 역사적 사명이다”¹²⁴⁾ 또한 덩샤오핑은 1980년 1월 16일 중앙간부회의에서 “반패권주의, 조국통일, 경제건설의 3대 과업 중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건설”¹²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0년대 초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위해 건국 이후 일관되게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루어 온 주적에 대한 광범한 국제통일전선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¹²⁶⁾

중국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하였다.¹²⁷⁾ 또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의 견지를 표명하며 “중국은 절대로 어떤 강대국이나 국가집단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¹²⁸⁾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123) 소치형, “외교정책의 목표와 원칙”, 『중국외교정책론』 (서울:골드, 2004), p.31.

124)邓小平, 『邓小平文件』 (北京:民族出版), pp.82-83.

125)邓小平, 『邓小平选文(1975-1982)』 (北京:民族出版社, 1983), pp.264-265.

126)金益度,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 (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p.371.

127) Harry Harding,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 of Communism* (March-April 1983) p.13-15.

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환경 하에서도 소련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¹²⁹⁾라고 밝혀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외관계를 견지하려는 의지를 표시하였다.

즉 중국의 ‘독립자주외교노선’은 미·소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4개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소 양국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하여 주변국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외교노선이라 볼 수 있다.¹³⁰⁾

정리하자면 덩샤오핑 시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보다 독자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연합을 지양하는 쪽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보다 화해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¹³¹⁾

중국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에게 과도하게 편향된 외교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중국의 외교가 미국과 서구 국가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¹³²⁾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반미를 의미하거나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¹³³⁾

중국의 입장에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었고, 미국 역시 중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관심에 근거하여 패권주의에 대처하고자 하였다.¹³⁴⁾ 그리고 중국이 보다

128)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70.

129) Liaowang, "China's Independence and Initiatory Diplomacy" *FBIS* (October 21, 1982), pp.1-2.

130) 김옥준, “1980년대 중국 독립자주외교노선의 함의와 실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2006), p.8.

131) Liao Wang, "China's Independence and Initiatory Diplomacy" *FBIS* (October 21, 1982), pp.1-2.

132) 尹庆耀, “从中共外交政策的演变看中共当前的基本外交政策”, 『问题与研究』第23卷10期(1984), p.21.

133) 김옥준, 전게서, p.9.

134) Zbigniew Brezezinski, *Power and Principle* (New York: Farrar, Strauss, Giroux, 1983), Annex1, p.1.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행태를 포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증대되기를 희망하였다.¹³⁵⁾ 이와 같은 양국의 희망은 1979년 1월 1일 공식적인 국교수립을 실현시켰으며 이후 양국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의 덩샤오핑과 미국의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미 관계는 마침내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¹³⁶⁾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관계법’¹³⁷⁾의 통과와 대선에서 카터 대통령의 패배, 그리고 친대만 성향의 레이건(Ronald Reagan) 공화당 정권 등장으로 198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오히려 냉각되는 경향이 있었다.¹³⁸⁾

그러나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레이건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정권 초기에 친 대만 입장을 견지했던 레이건 행정부는 세계전략상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고려로 기존의 친 대만 입장을 수정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¹³⁹⁾

135) Harry Harding,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 of Communism* (March-April, 1983), pp.1-19.

136) 1979년 중국과 미국은 197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 공동성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3가지 요구 조건, 즉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 대만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폐기,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를 수용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그 대신 중국은 미국이 주장한 대만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묵인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78년 12월 15일의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미국은 1972년의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포괄적인 원칙에서의 합의를 강조하였다. 즉 양국은 모두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며, 1980년에 기간 만료가 되는 대만과의 상호 방위조약을 자동 소멸시킨다고 선언하였다.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70.

137) ‘대만관계법’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이익이며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대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평화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것을 서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취지에서 대만에 대해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의 안보 및 사회경제체제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강제력이나 폭력 사용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견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71.

138)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71.

즉 1982년 8월의 중·미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미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과 1979년 국교 정상화 성명에서 천명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을 반복 강조하는 한편 대만문제의 해결은 1979년 1월 1일에 중국 정부가 대만 동포에게 공표한 평화통일방안과 1981년 9월 30일에 발표한 9개항의 제안에서 밝힌 것과 같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¹⁴⁰⁾

정리하자면 1982년 중·미 공동성명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당장 포기하거나 철폐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완전히 종결한다는 점을 약속함으로써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과 갈등의 여지를 대폭 제거하고 전면적인 협력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¹⁴¹⁾

이처럼 1980년대 중국과 미국은 부분적인 갈등 요인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었다. 무역 마찰이나 인권문제,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수출 문제 등이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견과 갈등 요인보다는 양국간 전략적 이해의 합치, 그리고 중국 시장과 개혁적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호감, 아름다운 국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협력 필요성 등이 작용하여 1980년대 중국과 미국은 모든 부분에서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¹⁴²⁾

한편 중국은 이 시기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미국과의 협력과정에서도 소련 카드의 사용은 전략적으로 필요했고, 또한 경제발전과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중·소 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기

139)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72.

140) 서진영, 상계서, p.172.

141) 서진영, 상계서, p.173.

142) 서진영, 상계서, p.174.

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1982년 말에는 중국의 각료급 인물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였으며, 1984년 말에는 소련대표단이 1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대소 무역도 1981년의 2억 2천만 달러에서 83년에는 6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80년대 중반에는 소련은 중국에 있어 서독 다음으로 제5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¹⁴³⁾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중·소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조건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곧 중·소 국경선에 배치된 소련 병력의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그리고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통해 소련이 중국 적대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먼저 보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이런 요구는 사실상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런 정책 전환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으로 인한 소련 국내외 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도되는 시점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¹⁴⁴⁾

고르바초프는 정권을 장악한 후 중·소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3가지 요구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소련은 1987년 이후 단계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교섭을 통해 국경선 확정을 시도하면서 국경분쟁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 198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의 철병에 착수, 1989년 2월 완전 철수를 실천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8년 12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시아에서의 20만 병력 감축을 선언하였고, 그것을 또 실천하였으며, 베트남을 설득해서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철

143)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p.372.

144)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12.

수를 실현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3가지 조건이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되었다. 이와 같은 고르바초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1989년 5월 16일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의 정담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¹⁴⁵⁾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1972년 수교 이후, 특히 1978년 중일 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은 이미 중국의 '4개 현대화' 사업의 중요한 지주가 되었다. 만일 양국관계가 악화된다면 그 피해자는 일본이 아닌 바로 중국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안정과 발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¹⁴⁶⁾

(2) 제3세계 정책의 변화

냉전시기 중국의 제3세계 외교는 미·소 강대국에 대항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전개된 것이었다.¹⁴⁷⁾ 제3세계는 미·소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통일전선 형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¹⁴⁸⁾

당시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함은 물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의 고립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간지대'론을 확대하여 '3개 세계' 이론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대외관계의 축을 점차 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스

145)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13.

146) 김옥준, "1980년대 중국 독립자주외교 노선의 함의와 실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3호(2006), p.11.

147) 김예경, "중국의 영향력 균형전략과 제3세계 외교",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p.16.

148) Lillian Craig Harris and Robert L. Wroden, *China and the Third World: Champion or Challenger?*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6), p.55.

스로 제3세계 국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제3세계의 단합과 ‘제2세계’(일본, 유럽, 캐나다 등)의 규합을 통해 ‘제1세계’(미국과 소련)의 패권정책에 반대하고 이들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했다.¹⁴⁹⁾ 당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민족 해방과 민족 독립 투쟁 지원의 결과 중국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56개 제3세계 국가와 새롭게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1971년 중국의 유엔 복귀와 대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⁵⁰⁾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중국의 개혁개방과 덩샤오핑 체제의 등장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에 필요한 풍부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더욱 중시함으로써¹⁵¹⁾ 중국외교에 있어서 제3세계 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정도 감소하였다.¹⁵²⁾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시기 이데올로기를 탈피한 실용외교를 선언하였기에 제3세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국 또는 소련과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¹⁵³⁾

이 시기 중국은 여전히 국제질서 개조를 주장하며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현 국제질서에 적응하여 경제발전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목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중국의 외교노선은 ‘비동맹’으로 어떠한 강대국과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패권에 대해서가 아

149) ‘중간지대론’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광활한 중간지대가 존재하는데 제1중간지대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국가들이고, 제2중간지대는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 및 오세아니아를 의미한다. 중국은 제1중간지대를 세계혁명의 원천지대 및 세계모순의 집중지역으로 인식하여 이들 지역 국가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된다. 중간지대론은 다시 3개세계론으로 발전하는데 마오쩌둥은 미국과 소련(제1세계)과 일본, 유럽, 캐나다(제2세계)를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제3세계라 하였다. : 『毛泽东选集』第5卷(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4), pp.58-60, 584.

150) 文興鎬, 申鍾浩, “중국의 대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중소연구』 통권 111호(2006), p.117.

151) 중국은 경제적으로 ‘남남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다. :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 p.375.

152) 文興鎬, 申鍾浩, 전거서, pp.117-118.

153)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2009), p.182.

나라 패권행태에 대한 반대로 변화됨으로써 제3세계와 통일전선 구축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¹⁵⁴⁾ 이에 따라 이 시기 중국에게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에 투자할 자본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기 중국에게 제3세계의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¹⁵⁵⁾

이와 같은 연유로 중국은 이때까지 아프리카의 빈곤국가에 대해 제공하던 원조방식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¹⁵⁶⁾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부족한 자본은 모두 국내의 현대화 건설에 투입하고 제3세계 국가와는 자본이 필요치 않는 경제협력에만 치중한다는 새로운 남남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¹⁵⁷⁾

이처럼 중국이 전방위 외교와 개혁개방 정책으로 대외정책의 노선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이 전세계의 모든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이미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종래의 정책노선을 포기하였으며 중국이 각종 국제회의에서 제3세계 국가와 협력하는 분야는 같은 발전도상국으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의 유사성이 있는 분야, 예컨대, 불평등교역, 누적채무, 기술이전 등 상호간의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⁵⁸⁾

154) 张清敏, "国家不同平等互利", 『科学决策月报』第1号(2007), p.17.

155)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제49집 1호(2009), pp.178-179.

156) 1980년대 중국은 원조수취액이 대외원조 지출액을 상회하게 됨에 따라 순피원조국이 되었다. : 『人民日报』(1989년 1월 4일자); 사실 중국은 1960년대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정책을 지속해 왔지만 1970년대 초부터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약속액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서구제 국가나 국제기관이 공여하는 원조를 놓고 여타 제3세계 국가와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p.375.

157)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p.375.

158) 金益度, 李大雨 共著, 상계서, p.376.

(3) 개혁개방의 대외경제정책

1978년 말 중국은 덩샤오핑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대외경제 정책을 급전환하여 개방형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개방형 개발전략이란 대외무역의 확대, 외자·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대외경제 관계를 확충함으로써 중국경제의 현대화를 가일층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전략을 의미한다.¹⁵⁹⁾ 대외경제개방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⁰⁾

첫째, 중국의 현대화라는 현실적 과제이다. 중국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또 외환수입의 급속한 증대, 외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무역의 확대, 합작투자 및 외자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방형 개발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둘째, 자력갱생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덩샤오핑 체제의 실용주의 노선이 등장한 이후에는 경직적인 자력갱생주의는 후퇴하고 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즉 수출 등 대외 무역¹⁶¹⁾을 중국의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외자·기술도입, 합작투자, 공동 에너지 개발 등 대외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셋째,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이다. 1976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서방세계와 관계개선을 갖게 되자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159) 콰태운, “중국의 개방형 개발전략”, 『중·소 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87), pp.63-64.

160) 콰태운, 상계서, pp.65-67.

161) 중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 실시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외무역기구의 지방분권화이다. 둘째, 수입억제·수출지향이다. 셋째, 비공산권과의 교역 확대이다.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서울: 골드, 2004), p.112.

중국은 제11차 3중전회를 계기로 하여 대외 경제합작, 선진 기술 및 설비의 도입, 공동 자원개발, 외자 도입 등 국제관례에 따른 대외 경제협력의 폭을 확대해 왔다. 중·소 관계의 악화는 경제 건설에 있어 대서방 관계 개선과 교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다액의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대미·대일 관계정상화의 시기를 전후하여 서방 제국과의 무역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증가¹⁶²⁾되었다.¹⁶³⁾

중국은 대외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도방침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¹⁶⁴⁾

첫째, 자력갱생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견지한다. 자력갱생과 대외개방정책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다.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자력갱생원칙은 대외경제관계를 맺음에 있어 중국 사회주의 경제에 발전이 있어야 하고, 중국 자력갱생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호혜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대국과 소국, 부국과 빈국을 차별하지 않으며, 상대국의 주권과 이익을 존중하고 특권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전면개방정책을 견지한다. 중국의 개방은 전방위 개방으로서 선진 서방공업국가에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와 발전도상국에게도 개방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하다면 중국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면서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4개 기본원칙¹⁶⁵⁾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대외개방을 실시하며 사회

162) 중국의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무역 거래를 살펴보면 비공산국가와의 교역은 총 교역량에 비추어 볼 때, 수출의 경우 1978년의 84.6%에서 1980년에는 89.7%로 증가되었다. 또한 수입의 경우는 1978년의 85.1%에서 1980년에는 89.7%로 늘어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공산권 무역은 수출의 경우 1978년의 15.4%에서 1980년에는 10.3%로 낮아졌고, 수입의 경우도 1978년의 14.9%에서 1980년에는 10.3%로 둔화되었다.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서울: 골드, 2004), p.112.

163)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서울: 골드, 2004), pp.111-112.

164) 김명신,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계간중국』 제15호(1991), p.24.

165) 4개 기본원칙이란 사회주의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립적 입장, 마르크스·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 당 영도의 견지를 일컫는다. :김하를, 『중국정치론』(서울: 박영사, 1990), p.81.

주의 방향으로 발전한다.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외국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것이지 사회주의 방향을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Ⅲ. 장쩌민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1. 장쩌민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인식

1)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제14차 당대회는 1992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정치보고를 맡은 장쩌민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사업의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제1장 14년간의 위대한 실천에 대한 기본결산’, ‘제2장 90년대 개혁과 건설의 주요 과업’, ‘제3장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외정책’의 내용 중 중국의 대외인식과 관련된 언급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3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장쩌민은 보고를 시작하며 1978년 11차 3중전회 이후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결산을 하고, 1990년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국가의 주요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지금의 세계 현실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면 매우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남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면한 국제 경쟁의 모습은 경제력과 과학기술역량을 토대로 하는 종합 국력의 경쟁이다. (...)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지체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다.¹⁶⁶⁾

166)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353.

장쩌민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발달한 자본국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창조한 모든 선진적인 문명성과를 흡수하고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¹⁶⁷⁾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과 평등호혜의 토대 위에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확대하며, 더 나아가 문화, 교육, 보건, 위생, 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¹⁶⁸⁾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3장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첫째, 평화로운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둘째,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필요성, 셋째,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독립 자주 외교정책 추진, 넷째, 책임 대국의 국제적 역할이 그것이다.

정치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장쩌민은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의 세계의 양대 주제”¹⁶⁹⁾라고 밝히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 우리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는 건국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고 중국과 많은 발전도상국과의 단결과 협력도 더욱 공고화되고 강화되었으며, 선진 서방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는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 지위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¹⁷⁰⁾

그러나 장쩌민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이 평화일로인 것은 아니다. 장쩌민은 “앞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계

167)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p.2350-2351.

168)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p.2361-2362.

169)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p.2361-2362.

170)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p.2361-2362.

대전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⁷¹⁾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세계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각종 모순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가에서 민족모순, 영토분쟁, 종교분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유혈충돌과 국지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많은 발전도상국가들의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패권주의, 강권정치의 존재는 평화와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계속해서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많은 발전도상국가들이 가난하고 낙후된 상황에서는 세계의 발전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¹⁷²⁾

양극구조가 이미 종식되고 각종 세력들이 새롭게 분화, 조합되고 있는 “세계사적 대변동의 역사적 시기”¹⁷³⁾를 맞이하여 장쩌민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국제질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주장한다. 보고는 “주권과 영토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와 평화공존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안정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세계는 다양하며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나라 인민들은 모두 자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자국에 맞는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라가 크거나 작거나, 강대하거나 약소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국제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서로 존중하며 불일치한 점은 유보하고¹⁷⁴⁾, 공통점

17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p.2361-2362.

172)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p.2361-2362.

173)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361.

을 찾으면서 상호평등하게 대우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¹⁷⁵⁾

국가들 간의 평화적이고 평등한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 간의 의견차이와 분쟁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준칙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¹⁷⁶⁾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의식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보고는 중국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편승하여 국제체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쩌민은 “중국은 유엔구성국이자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중시하여 유엔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및 그 안보이사회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군비 축소를 추진하고 세계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내 인권문제에 대해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여러 민족, 인민들이 장기간 침략을 받고 억압당하고 능욕을 당하던 비참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자기의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국 헌법은 근본적인 면에서 인민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중

174) 구동준이는 원래 1955년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동회의)에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필리핀 대표 등이 공산주의를 제3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목하자 내세운 개념이다. “식민주의로 인해 빚어진 불행과 고통을 해소하는 큰 방향 속에 서로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그의 연설은 회의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금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 “구동준이 외교”, 『경향신문』, 2011년 10월 7일, 22면.

175)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p.2361-2362.

176) 圓睥世纪潮编, 上掲書, pp.2361-2362.

국은 인권과 관련되는 일련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결국은 한 나라의 주권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¹⁷⁷⁾

덩샤오핑 시기와 비교하여 장쩌민 시기의 중국은 분명 대국으로의 부상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소련의 붕괴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역학구조의 다극화 추세도 중국에 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¹⁷⁸⁾

한편 제12차 보고에서부터 언급되어 온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인 독립자주 외교에 관해 장쩌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민족의 이익,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나 국가집단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군사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침략적 팽창행위에 반대한다. 중국은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공정, 합리, 전면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¹⁷⁹⁾

또한 보고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철저히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다

17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362.

178) 지재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외교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 (2003), pp.539-540.

17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p.2361-2362.

음과 같은 장쩌민의 주장은 상호주의¹⁸⁰⁾를 그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토대 위에서 모든 나라와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회제도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교류에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자기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중국에 강요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는 종합국력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국력의 신장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고, 평화적인 외교정책의 추진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에 대한 장쩌민의 긍정적인 평가는 중화민족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14차 당대회 보고는 기존의 당대회에 비해 국제질서에 대한 제언이나 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이다.

2)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1997년 9월 12일에 열린 제15차 당대회는 일주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장쩌민이 발표한 정치보고의 주요 내용은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상호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¹⁸¹⁾,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외교사상 계승, 평화

180)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상호주의에는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한다는 측면과 가치 있는 것을 박탈한다는 2가지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의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박탈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상호주의도 낳게 된다.:“相互主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135> (검색일 : 2011. 10. 19.)

18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554.

적인 외교정책, 다자 외교정책의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15차 당대회 보고 중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제14차 당대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대외정책 관련 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이미 제14차 대회에서 천명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그 분량이 제14차 보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중국의 대외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제15차 정치보고 역시 제14차 보고와 같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중국을 발전도상국이라 정의하는 문구는 당대회 문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15차 문건에 등장하는 제3세계와 관련한 내용 역시 “발전도상국은 국가의 독립 수호, 경제 발전의 근본 목표 실현에서 일치한다”¹⁸²⁾라고 명시되어 양자 관계가 기존에 비해 한층 약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외교가 점차 제3세계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증거로 분석할 수 있다.

장쩌민은 국제형세와 관련한 언급을 시작하며 “현재 국제형세의 전반적 흐름은 완화의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제정치에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군비경쟁,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정치의 구질서, 빈부격차, 내정간섭 등 국제정치의 고질적 폐해들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¹⁸³⁾하지만 이것은 다극화에 기초한 평화롭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국제정치의 신질서 구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고는 당대 국제환경과 국제정치 신질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평화와 발전은 당대의 주제이다. 다극화 추세는 전 세계 혹은 지역 범위나 혹은

182)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554.

183) 圓睥世纪潮编, 上揭書, p.2554.

정치, 경제 등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세계의 각종 역량은 새로운 분화와 조합을 이루고 있다. 강대국 간의 관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각 지역간, 대륙간 협력 조직도 전대미문의 활약을 하고 있다.¹⁸⁴⁾ 많은 발전도상국들의 전반적인 실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다극화 추세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유익하다. (...) 평화를 원하고 협력을 추구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발을 피할 수 있고, 양호한 평화적인 환경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⁵⁾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추진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되며 평화와 발전의 시대흐름을 반영한다. 중국은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다중다양하다. 각국에서는 본국 국정에 부합하는 사회제도와 발전전략 및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국의 국정은 각국 인민들이 주관해야 하며 국제 사정은 모두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¹⁸⁶⁾

1990년대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예측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¹⁸⁷⁾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는 21세기 국가전략 중의

184)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553.

185)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554.

186)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554.

187)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위협론'을 들 수 있는데, 1990년 8월 일본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의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지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Tomohide Murai, "On the Potential Threat of China," *Academic Journal*, (Tokyo Defense University, August 1990). 참조;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서방에서도 점차 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제력이 정치력과 함께 군사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2년 2월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영해법이 공포되자 중국이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중국의 능력과 의도가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이 새로운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Jim Mann and David Holley, "China Seeking to be a Superpower," *Pacific Stars and Stripes*, (September 16, 1992). 참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5년까지 연평균 11.9%의 비약적인 경제성장률과 국방·안보 측면에서의 군사현대화, 국방예산의 증대, 무기구입 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이 확산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국방비는 실제 1989년 12.6%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 평균 13%, 그리고 1995년에는 21.5%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8년 12.8%를 기록하며 10년 동안

하나로 현대화 건설을 설정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188)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1992년에 개최된 제14차 당대회 보고에 이어 본 보고에서도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반패권주의 외교전략과 평화 외교정책에 대한 다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은 응당 상호 협상을 통해 상호 간의 분쟁의 발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구실이든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업신여기며 전복해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는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189) (...) 중국은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역량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장기간의 평화적 국제환경, 특히 양호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발전은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은 오랫동안 열강의 침략과 압박, 능욕을 받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영원히 다른 국가에게 가하지 않을 것이다.190)

반패권주의 외교전략과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장쩌민은 평화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1일자;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국방·안보 측면의 노력을 보자면 장쩌민은 1997년 9월 제15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2000년까지 50만 명의 병력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패권주의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200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5%, 일본의 30%, 영국의 40%에 불과하고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 『연합뉴스』, 2000년 10월 16일자.

188) 이정남, “조화세계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1호 (2010), p.46.

189) 圓睥世紀潮編,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554.

190) 圓睥世紀潮編, 上掲書, p.2555.

중국은 화목한 이웃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주장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간의 논란은 평화와 안정의 대세에 초점을 두어 우호적인 협상과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곧바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잠시 보류해두고 일치한 점을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보류할 것이다.

제3세계 국가 간의 단결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발전도상국은 국가의 독립, 수호, 경제 발전의 근본 목표 실현에서 일치한다. 중국은 예전과 같이 발전도상국 각국과 모든 방면에서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발전한 국가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은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존중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공동 이익의 합치점을 추구하여 상호 협력을 확대하며 인류 생존과 발전 중에 직면하는 도전에 대응할 것이다.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화를 견지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쌍방의 장기적인 이익과 세계평화의 발전의 대세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며 걸핏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¹⁹¹⁾

장쩌민은 중국의 대외인식과 관련한 보고의 말미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하고 독립자주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등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과 지역 간에 폭넓은 무역과 경제 기술 협력 및 문화 교류를 전개하여 공동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외래로부터 오는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어떤 대국 혹은 국가 집단과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보고에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다자적 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및 기타 국제 조직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191)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554.

<표-2> 장쩌민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국제정세인식 | 외교노선 |
|-------------------------------------|--|---|
| 제14차 (1992.10.12~18) 장쩌민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는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유리한 시기 • 세계는 양극화에서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 • 전쟁가피론 •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여전히 존재 • 중국은 발전도상국 •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 • 세계평화와 인류발전 • 반패권주의, 반강권정치 • 평화공존 5원칙 •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 • 다자외교 |
| 제15차 (1997.9.12~18) 장쩌민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는 전반적으로 완화의 추세 • 세계 다극화 추세 • 전쟁가피론 •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 •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필요성 •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 | |

출처: 回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346-2555를 토대로 정리.

2. 장쩌민 시기 외교정책

장쩌민은 1989년 6월 23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차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로 등장하였고, 이어 1992년 개최된 제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덩샤오핑 후계정권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국내경제건설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장기간에 걸친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경제건설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선진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서구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경제건설을 위한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평화로운 국제환경의 유지와 대외개방의 확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혁명투쟁의 지원과 같은 현상타파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현존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⁹²⁾

1) 도광양희, 유소작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발생 이후 중국은 국제적 압력,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조치에 직면하여, 국책으로 추진하던 개혁개방정책이 좌초될 위험에 처하였다. 당시 덩샤오핑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퇴조에 직면하여 “냉정하게 관찰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며 신중하게 대처한다(冷靜觀察, 穩住陣腳, 沈着應付)”는 대응책을 내걸었고, 얼마 후 다시 이를 수정하여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말고, 재능을 숨기고, 기회를 잡아, 적극적으로 행동한다(善于守拙, 絕不爭頭, 韜光養晦, 抓住時機, 有所作爲)”라는 20자 방침을 제시하여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지도방침으로 정하였다.¹⁹³⁾

192)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 (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pp.454-455.

193) 류동원, “21세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연속성과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2호

이와 같이 소극적인 중국의 외교전략에는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보다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리한 결정이나 행위를 막아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부터 100여년 이상 강대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의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그의 외교정책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국제적 환경의 조성을 반대하고 또 다른 국가의 중국에 대한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고 다만 강대국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¹⁹⁴⁾

이러한 사실은 1987년 자오쯔양이 제13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상품경제와 국내시장이 극히 미발달하여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나, 같은 해 국무원 국제문제연구소 센터의 총간사를 역임한 환향의 “아시아·태평양의 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의 많은 국가와 인근지역이 금세기 말에는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분발하여 국력을 증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크게 낙오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 등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실상 당시 중국의 1인당 GNP는 필리핀의 2분의 1, 태국의 3분의 1, 말레이시아의 5분의 1정도로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다.¹⁹⁵⁾

그 결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는 되도록 국제문제에 대해 개입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 대신 국내경제건설에

(대구 : 대한정치학회, 2003), p.7.

194) 송영우, “등소평 이후의 중국 대외정책과 동북아 정책”, 『동서연구』 Vol.9, No.1(1997), p.122.

195)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 p.373.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중국은 이전의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질서의 유지를 강력히 지지하는 쪽으로 행동을 전환하게 되었다.¹⁹⁶⁾

결론적으로 도광양희, 유소작위의 외교전략은 중국의 실제적 역량을 감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미국의 압도적 정치군사적 우위를 인식하면서 대립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상에 정치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려는 의지를 담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먼저 나서서 다른 나라와 대립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고립정책이나 패권정책 등 그 어느 쪽도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¹⁹⁷⁾

2) 신안보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진행된 냉전의 종식이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양극체제의 해체를 의미하였으며, 이는 또한 제로섬(zero-sum)적 상호관계와 군사우선주의 중심의 냉전적 국제사회가 상호의존과 경제우선주의 중심의 탈냉전적 국제사회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¹⁹⁸⁾ 중국은 세계화의 조류에 따른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신안보개념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¹⁹⁹⁾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제기된 신안보관은 현대화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외교안보정책(평화공존 5원칙)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서구의 협

196) 金益度, 李大雨 共著, 上揭書, p.373.

197) 김흥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91.

198) 한석희, “중국의 신안보개념: 다자간 안보에 대한 중국의 협력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Vol.8, No.2 (2004), p.225.

199) 한석희, 상계서, p.228.

력안보이론을 적절히 수용한 ‘중국특색의 협력안보’라고 할 수 있다.²⁰⁰⁾

신안보관 개념은 1999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 장쩌민은 회의에서 “군사동맹을 기초로 하고 군비강화를 수단으로 한 구안보관을 대신하는 신안보개념관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신안보개념의 핵심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이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공존 5원칙의 평화옹호의 정치적 기초인 호혜적 협력과 공동번영이 그 경제적 보장이며, 대화, 협의, 교섭이 분쟁해결과 평화옹호의 올바른 절차이다”²⁰¹⁾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신안보관의 주요내용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互信, 互利, 平等, 協作)”으로 축약할 수 있다. 장쩌민에 의하면 “상호신뢰”는 신안보관의 기초이며, “상호이익”은 신안보관의 목적이고, “평등”은 신안보관의 보장이며, “협력”은 신안보관의 방식을 의미한다.²⁰²⁾

이후 2002년 ARF 외상회의에서 ‘중국 신안보개념에 관한 입장문건’²⁰³⁾이 제출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신안보개념이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신뢰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냉전시대의 잔재와 강권정치의 폐해를 버리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적시하지 않는 것이다. 각국은 항상 자국의 안보를 위한 방위정책과 증대 행동에 관하여 상호 조율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상호이익이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따라 안보와 관련한 상호 간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국 안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200) 김승채,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추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석유』 (한국석유공사, 2006), p.54.

201) 江泽民, “推动裁军进程 维护国际安全——在日内瓦裁军谈判会议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4760.htm> (검색일: 2011.9.16.)

202) 倪建民, 陳子舜, 『中國國際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03), p.317.; 주재우, “북핵 이후 중국의 동북아 평화정책” 『경기논단』 제8집 4호 (2006), p.61에서 재인용.

203) “中国关于新安全观的立场文件”,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tytj/t4549.htm> (검색일: 2011.7.31.)

물로, 상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만들고, 공동의 안보를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평등이란 국가의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을 떠나 모든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이란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함께 공유하는 한편,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전쟁과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신안보관은 서구 선진국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개인의 자유 및 개인의 안전을 강조하며 주권을 초월한 국제적 간섭이나 통일적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는데 반해 철저히 평화공존 5원칙을 강조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주권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⁰⁴⁾

204) 张艳军, "非传统安全与中国的新安全观", 『社会科学论坛』第8期 (2008), p.102.

<표-3> 군사동맹과 신안보관

| 구분 | 군사동맹 | 신안보관 |
|---------|-------------------|--------------------|
| 목표 | 전쟁 승리, 상대방에 대한 위협 | 군사적 충돌 방지 |
| 성질 | 군사력 강화 | 무력사용시기의 억제 |
| 체계 | 폐쇄, 일정한 적의 설정 | 개방, 일정한 적을 설정하지 않음 |
| 범위 | 군사 | 정치, 경제, 군사 |
| 핵심 | 동맹국 전쟁의 지원 |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 분쟁해결 |
| 기초 | 명확한 공동의 적 | 불명확한 안보우려 |
| 충돌관계 |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관계 | 회원국 간의 관계 |
| 원칙 | 강제적 협력 | 자발적 협력 |
| 주요 협력방법 | 군사훈련, 군사원조 제공 | 신뢰구축조치의 형성 |
| 효력 | 비료적 강함 | 비료적 약함 |

출처: “아·태지역적협력안전” 『아주계간』 제30권 제2기(1999.4), p.102.

중국은 <표3>에서 비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사안보 중심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확장하여 경제, 자원, 정보, 국제테러리즘 등 세계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다국가적 갈등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규정하고 이들 위협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특히 중국은 다양한 비군사적 갈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비전통안보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전통안보분야의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가속화와 함께 발생·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다자주의에 의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⁵⁾

205) 한석희, “중국의 신안보개념”,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2004), pp.229-230.

또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안보개념과 함께 보다 상위의 안보개념으로서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군사비 증액과 국방 현대화와 같은 국방력의 증진을 통한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가 아직까지 국가의 존립에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의미의 종합적인 국력신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⁰⁶⁾

중국은 종합국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종합적인 경제신장은 다자간 협력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은 전통적인 군사안보영역에서도 중국이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다자간 국제안보체제와 다자간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수준의 두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하여 중국은 접근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국제안보체제는 NPT와 CTBT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은 1992년과 1996에 각각의 체제에 가입하였다. 또한 중국은 지역안보체제 차원에서 ARF와 CSCAP에 1994년과 1996년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참여이유를 검토해볼 때, 중국은 국제안보체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미지 제고를, 지역안보체제에 대해서는 상호신뢰구축을 시도하려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⁷⁾

3) 강대국 외교

206) Wu Baiyi, "The Chinese Security Concept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0, No. 27, pp.278-279.

207) 한석희, "중국의 신안보개념",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2004), pp.230-232.

강대국 외교²⁰⁸⁾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 영역을 지칭한다.²⁰⁹⁾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강대국 외교의 핵심은 대미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²¹⁰⁾

그 동안 중·미관계는 기복이 있는 관계(up and down relationship), 깨어지기 쉬운 관계(fragile relation), 사랑과 증오의 관계(love and hate relationship), 협력과 갈등의 순환적 패턴(cyclical pattern), 호황과 불황의 성격(boom-bust nature), 고난의 관계(rocky relations)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²¹¹⁾ 이는 그 동안의 중·미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을 보는 중국의 시각에는 서로 상반되거나 심지어 모순적인 측면들이 불안하게 병존한다.²¹²⁾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게 미국은 한편으로 현대화를

208) 중국에게 있어 강대국 외교는 사실상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국제체제의 일극이거나 일극의 잠재력을 지닌 대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외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자체가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209) 최지영, “중국의 대국외교와 대 EU전략”, 『신아세아』 제15권 3호(2008), p.93.

210) 미국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전략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국의 외교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르면 미국에 대한 정책도 강경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제기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이 된다. 가령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추구한다면 이는 곧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중국이 기존 질서를 수용하려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82-83.

211) 김호준, “21세기 미중관계의 결정요인”, 『대한정치학회보』 10집 제3호 (2003), p.317.

212) 미국에게도 중국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국가는 아니다. 미국이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동반자로서 또는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자이며 경쟁자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153-154.;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에게 미칠 악영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다른 파트너들 특히 일본이나 EU에게 중국 내 경제적 우선권을 안배함으로써 중국과 관련된 미국 내외의 상업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 외교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당사국들에 대한 핵 미사일 기술과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대한 합의를 지연시킨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반 국제테러리즘 협력이 제한될 것이다. :Avery Goldstein, "The Diplomacy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2001), pp.846-858.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경제, 군사, 그리고 과학기술 등에서 세계의 주도 국가인 미국은 중국에게 경제발전에 필요한 시장, 기술,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²¹³⁾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상하이 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은 소련 견제라는 전략적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의 발생,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라는 세기적 대변혁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도전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몰락으로 소련 견제라는 미국과 중국이 공유했던 공통의 전략 목표가 사실상 소멸되었고, 중국의 전략적 효용가치가 급속도로 감소된 반면,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덩샤오핑의 개혁정권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면서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고, 중국을 견제와 변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세력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계속되면서 중국위협론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²¹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²¹⁵⁾ 직면하여 중국 내부에서도 반서양적인 감정이 고조되었다. 장쩌민은 1990년 “오늘날 서방 국가들은 ‘화평연변(和平演變)’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²¹⁶⁾고 언급하였고, “우리는 세계에 개방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면적인 서양화에 반대하며

213)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서울: 폴리테이아, 2007), p.85.

214)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175-176.

215) 1989년 6월 6일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로 중국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과의 인적 교류도 중단하였다. 중국 학생들의 정치적 망명에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국제은행(IBRD)으로부터의 차관을 연기하였다. :Kim Changsoo, "Terms of Endearment: The United States China Policy and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X, No.1(Winter/Spring 1996), pp.84-85.

216) Guanqiu Xu, "Anti-U.S. Sentiments in China, 1988-1996: Sources, Development and Impact", *Issues & Studies*, Vol.34, No1 (January 1998), p.81.

서양의 이러한 압력에 저항하여야 한다”²¹⁷⁾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1991년 미국의 걸프전 참전과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 내부의 반서양적인 감정은 점차 반미감정으로 발전되었다. 인민일보는 1991년 처음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미국은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지적하였다.²¹⁸⁾ 또한 1992년 초 중국지도부는 “소련이 붕괴되고 걸프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교만해졌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새로운 봉쇄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한국,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봉쇄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을 목표로 사용된 바 있다”²¹⁹⁾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냉전시대에는 전략적 공통이익에 가려 표출되지 않았던 체제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실리적 이익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중·미 관계는 경쟁과 갈등, 그리고 협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또는 갈등과 협력, 경쟁이 번갈아 강조되는 롤러코스터의 곡예와 같은 불안한 관계로 변화되었다.²²⁰⁾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견제를 극복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 세계체제의 다극화였다.²²¹⁾ 중국은 다극화가 미국의 패권적 행위에 대한 견제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²²²⁾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외교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채택하면서 전통적 강대국 외교도 재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미국 이외의 러시아나

217) 『人民日报』(1990년 6월 3일자)

218) 『人民日报』,1991년 4월 24일자.

219) Guanqiu Xu, op. cit., pp.86-87.

220)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77.

221)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서울: 폴리테이아, 2007), p.94.

222) "多极化不等于反美", 『环球时报』,1999년 8월 6일자.

EU 등 다른 대국들의 전략적 가치에 새롭게 눈뜨게 된다.²²³⁾ 그 가운데서도 초점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집중되어 왔다. 1990년대 양국이 대단히 밀착되어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양국은 1992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6년 동안 국가 원수가 상호 교환 방문하며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²²⁴⁾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고, 러시아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다.²²⁵⁾

1992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24개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중·러 관계의 기초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양국은 서로를 반대하는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상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3국에게 자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1996년에 양국은 ‘상해협정’²²⁶⁾에 서명하였고, 1997년에는 미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²⁷⁾ 양국은 이 때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극화의 발전과 새로운 국제질

223) 최지영, “중국의 대국외교와 대 EU전략”, 『신아세아』 제15권 3호(2008), p.94.

224) 송영우, “중국의 강대국 외교”, 『중국연구』 제17권, p.117.

225)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17.

22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군 병력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군사훈련은 서로 상대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군사훈련의 규모, 범위, 그리고 회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국경으로부터 100km 이내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군사훈련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아울러 상대방의 주요 관심사는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일정 규모의 군사훈련에는 상대국가의 인사를 초청하여야 한다. 양국은 위협한 군사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국경수비대와 군 병력 간의 우호적인 교류는 강화되어야 한다. :상해협정의 전문은 『人民日报』, 1996년 4월 27일자 참조.

227) 송영우, 전게서, pp.117-119.

서의 건립을 추동시키기 위해”²²⁸⁾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1999년 8월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미, 일 전역미사일 방위체제(TMD) 구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²²⁹⁾하였고, 2001년 7월에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양국 고위 인사의 접촉 및 교류가 많아졌다. 중국 국무원 총리 리펑은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러시아 수상 체르노미르딘(Vihta Chernomyrdin)과 연방회의 의장 스트로예(Yegar Stroye)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군사적 교류도 빈번해져 1994년 5월에는 중국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²³⁰⁾ 중국 당국에 의하면 1991년 러시아 공화국이 탄생된 다음부터 1996년 초까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1,000여회의 회의를 가졌고 5,000여회의 회합(round)을 가졌다.²³¹⁾

중국은 1990년대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양국 역사상 가장 좋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중국 지도부에 따르면 양국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모두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국제환경의 안정을 필요로 하며, 둘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셋째, 양국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발전, 국민 통합, 생활수준의 향상,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넷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원칙 준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³²⁾

우호적이고 협력지향적인 중·러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다극화 정책

228) 『人民日报』, 1997년 4월 24일자.

229) 『중앙일보』, 1999년 8월 26일자.

230) 송영우, “중국의 강대국 외교”, 『중국연구』 제17권, p.119.

231) 『Beijing Review』 (May, 1997), pp.10-11.

232) Jing-dong Yuan, "Sino-Russia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 Preliminary Analysis", *Asian Pespitive*, Vol.22, No.1 (Spring 1998), pp.95-96.

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미 관계는 양국관계의 악화되었다. 1994년 NATO의 확장,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코넬 대학 방문 그리고 1995-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등으로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비록 1997년 장쩌민 총서기가 미국을 방문하여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 건설에 합의한 후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은 그 다음 해에 일본과 MD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999년 초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과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서의 미국의 강경책 등으로 건설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기대는 무산되었고, 중국에서 반미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부시가 대통령직에 취임하고(2001년 2월), 이어서 발생한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계획 발표, 그리고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방미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다.²³³⁾

중·미 관계에 있어 대만문제는 고질적인 외교 현안이다. 통일문제는 중국의 국가목표 중 한 가지이므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여부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1972년 2월 28일에 발표된 ‘상해공동성명’, 1979년 1월 1일 선언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그리고 1982년 8월 17일에 발표된 공동성명 등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으며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 기초해서 미국은 대만과 문화적, 상업적,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문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²³⁴⁾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언

233)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2007), pp.99-100.

234) 송영우, “중국의 강대국 외교”, 『중국연구』 제17권(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1998), p.125.

급하면서 실제로는 ‘두 개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고, 달라이 라마(Tenzin Gyatso)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양국관계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중·미 공동성명이 분명한 전제조건이다”²³⁵⁾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대만문제이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미간의 3개 공동성명에서 밝힌 원칙들을 준수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매우 건강하고 안정적일 것”²³⁶⁾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1998년 6월 30일 중국을 방문하여 대만에 대한 ‘3불정책’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미국은 하나의 중국 및 하나의 대만, 또는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주권 독립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국제기구에 대만의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²³⁷⁾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클린턴의 행보로 양국은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님을 확인²³⁸⁾하고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관계 회복을 꾀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의 중·미 관계는 화해와 협력 보다는 경계와 불신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쩌민 시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극단적인 외교적 단절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국 간에는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고어(Albert Gor, Jr) 미국 부통령과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국무장

235) 『Beijing Review』 (October ,1997), pp.10-11.

236) 『Beijing Review』 (Februry,1998), pp.7-8.

237) 『Beijing Review』 (July ,1998), p.15.

238)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28, 1998)

관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도 첸치첸(錢其琛)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9년 이래 중국의 해군 함대가 처음으로 미국을 친선 방문²³⁹⁾하여 양국 간 군사적으로도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²⁴⁰⁾

양국 간에는 국가 원수의 교환방문도 이루어졌는데 장쩌민은 1997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이고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3개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중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²⁴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1998년 6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그리고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²⁴²⁾

탈냉전 초기인 1990년대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²⁴³⁾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탈냉전시기가 전개되면서 소련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던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상실되었고, 민주화와 인권을 명분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그리고 개혁개방에 필요한 외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일본은 대단히 중요한 교역대상국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²⁴⁴⁾

일본 역시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1972년 양국 수교 이후 활성화된 양국의 밀접한 경제관계는 상당할 정도로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었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대폭 증가하였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239) 『Beijing Review』 (October, 1997), p.4.

240) 송영우, “중국의 강대국 외교”, 『중국연구』 제17권(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1998), p.126.

241) 송영우, 상계서, pp.126-127.

242) 『Beijing Review』 (July, 1997), p.9.

243)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41.

244) 서진영, 상계서, p.239.

1991년 8월 가이후 일본 총리가 서방 선진국 수뇌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정상관계로 완전히 복귀되었다.²⁴⁵⁾

중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문제와 센카쿠-다오위다오, 대만문제 등 예민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재정비됨에 따라 양국간 경쟁과 갈등의 요인도 많아졌다. 그러나 1992년 중일 수교 20주년을 맞아 장쩌민 총서기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우호관계를 강화를 다짐하였고, 10월에는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 부부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고 천황의 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이후 일본 총리는 거의 모두 정규적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이에 부응해 중국 최고 지도부 역시 일본을 교환 방문하였다. 특히 장쩌민 재임기간 동안 모두 3번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는데 1992년과 1995년에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신분으로, 199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신분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²⁴⁶⁾

4) 주변국 외교

중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29개 국가와 인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5개 국가와는 직접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고 육지 국경선 길이만 하더라도 22,800Km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환경을 지니고 있다.²⁴⁷⁾ 중국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변국가와의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45)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40.

246) 서진영, 상계서, pp.241-242.

247) 지재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외교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중국학연구회, 2004), p.546.

중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외교를 대외관계의 대상에 따라 강대국 관계, 주변국가와의 관계, 발전도상국가와의 관계, 국제조직에서의 다자외교로 구분하고 있다. 248) 주변국 외교와 다자외교는 장쩌민 시기에 들어서 새롭게 제시되었다. 주변국 외교가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이유는 냉전시기 중국은 지역정책이 없는 지역강국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249)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250)

우선 냉전시기 중국의 대외관계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국가 간의 친소도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자체는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별도의 지역정책의 설정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중국은 또한 냉전기간 안보적 고려에 의해 미·소 양극체제와 이른바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되어 세계적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마치 세계적 강대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지역 강국으로서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세계적 이슈와 초강대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외교를 전개하게 되었으며, 지역정책은 바로 이러한 전세계적 전략관계의 기본 틀에 종속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중국이 주변지역을 강대국 외교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적인 객체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별도의 지역정책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 미·소와의 전략적 삼각관계보다는 중국의 현대화라는 국가목표가 중국 대외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즉 중국의 지역정책은

248)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 (2006), p.3.

249) Steven I. Levine, "China in Asia: The PRC as a Regional Power." in Harry Harding, (ed.),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 Yale University Press, 1984), p.107.

250)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281.

세계적인 데탕트와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중국 국내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환경의 확보라는 동기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가들에 대한 이른바 ‘선린외교’²⁵¹⁾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²⁵²⁾

중국은 1989년에 최초로 “아태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지역의 안정을 도모한다”²⁵³⁾는 외교의 원칙을 확정했으며, 1992년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²⁵⁴⁾을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천명하였다.²⁵⁵⁾ 또한 1993년에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을 외교의 중점내용으로 공식화했다.²⁵⁶⁾

무엇보다 중국이 주변 역내 국가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는 1989년 천안문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천안문 사태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공동경제제재에 맞닥뜨린 중국은 이를 8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증대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체제를 연착륙 시키려는 이른바 ‘화평연변(平和演變)’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²⁵⁷⁾

이렇게 촉발된 미중관계의 갈등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3년 최혜국 대우 연장문제, 1995-1996년의 대만해협 위기 등의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1997-1998년 양국정상의 상호방문 이전까지

251) 선린외교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켜 주변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 강국으로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률, 상계서, p.290.

252)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282.

253) 王友才, "论第四代领导集体的睦邻外交思想", 『党史文苑(学术版)』(2005), p.21.

254) 中国政府网,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922.htm. (검색일:2011.3.4.)

255)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2006), p.4.

256) 中国政府网,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926.htm. (검색일:2011.3.4.)

257) 이동률, 전계서, p.282.

악화되어갔다. 중미 간의 갈등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과 일방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다극화전략 추진은 중국의 주변지역외교 또한 경제협력 다변화와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기존의 목표 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과 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확보, 다극화의 지역연대 모색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목표가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확장된 주변지역외교의 목표는 결국 대국외교²⁵⁸⁾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²⁵⁹⁾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 80년대 이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인접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과 아세안은 다변화 전략의 적절한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²⁶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199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와의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싱가포르, 브루나이와도 공식 수교했다. 이 밖에도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베트남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아세안 출범 이후 최초로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신기원을 열었다.²⁶¹⁾

258) 장쩌민은 2001년 7월 1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100년 동안 중국 인민의 모든 목표는 조국 독립과 민족해방을 실현해 굴욕적인 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성했다. 20세기 중엽부터 21세기 중엽까지 100년 동안 중국 인민의 모든 목표는 이제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부유,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江泽民, 『全面建设小康社会, 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北京: 人民出版社, 2002.); 2002년 개최된 16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2002년 11월 17일자. ; 이러한 국가 목표는 독립적이고 현대화된 강대한 국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국력에 상응하는 세계적 강대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59)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293.

260) 실제로 중국은 선린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2년 한중수교를 비롯하여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싱가포르(1990), 부르나이(1991), 카자흐스탄, 한국(1992) 등 주변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려 28개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하는 전례 없는 외교성과를 이루어냈다. : 이동률, 상계서, p.282.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인도와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996년 11월에 장쩌민 국가주석이 중국·인도 수교 이후 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해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인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²⁶²⁾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1992년에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의 경제, 무역 분야 협력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대화도 강화되고 있다. 비록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분쟁과 역사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중일관계는 역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²⁶³⁾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하자 즉각 이들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었다. 이후 각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대화와 협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²⁶⁴⁾

천안문 사태와 그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촉발된 중국의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은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자국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시의 전략적 대

261)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2006), pp.15-16.

262) 윤영덕, 상계서, p.16.

263) 윤영덕, 상계서, p.16-17.

264) 윤영덕, 상계서, p.16.

응으로 큰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 시키면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위협과 경제 심리를 약화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²⁶⁵⁾

중국의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은 동반자²⁶⁶⁾ 관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외교의 새로운 전략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반자 외교에 ‘전략적’이란 개념을 부가하면서 동반자 외교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²⁶⁷⁾

동반자 외교는 경제적 글로벌화의 추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제관계를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협력의 장으로 인식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서로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자국의 안보와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다른 국제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전방위적인 동반자 외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⁸⁾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동반자 외교는 신안보관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동맹관계와는 다르다. 동맹은 주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의 가상적국을 대상으로 한 안보동맹을 지칭하였지만 중국의 동반자 관계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265)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2006), p.283.

266) 사전적 의미로 동반자(partnership)는 사업상의 동업자, 공동의 참여자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국제 관계에서 동반자란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전제로 한 서구와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부터이다.:王巧荣, “论20世纪90年代中国的伙伴关系外交”, 『思想理论教育导刊』第2期, p.53. ; 그러나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국제 관계에 적용된 시기는 탈냉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89.

267)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88.

268)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2006), p.55.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일시적 전술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구상이다.²⁶⁹⁾

따라서 중국의 동반자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동맹을 추구하지 않고, 외교관계의 형성에 있어 이데올로기를 전제하지 않고 국가 간에 상호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원칙”²⁷⁰⁾으로 수립될 수 있다. 중국의 동반자 외교는 기존의 일반 수교국 관계나 ‘우호협력’의 국제관계보다 진일보한 관계이며, 이론적으로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벗어나 약소국을 포함하는 보다 포용적인 개념이다.²⁷¹⁾

중국은 1993년 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94년에는 러시아와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보다 본격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²⁷²⁾

1996년 4월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 방중 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1997년 5월 유럽의 주요 강대국인 프랑스와 ‘장기적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외교의 양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도 1997년 10월에 장쩌민 주석이 방미하면서 ‘건설적인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의 노력의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1996년 발생한 대만해협위기로 인한 양국 간 참여한 갈등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97년 11월과 12월에는 각기 캐나다 및 멕시코와 ‘전면적 협력동반

269)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2009), p.242.

270)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90.

271) 김홍규, 상계서, p.290.

272) 중국이 수립한 동반자 관계는 중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전략적 가치의 고려뿐만 아니라 양자 간에 형성된 특수 관계에 의해서도 규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중국의 여러 동반자 관계의 특성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중국학자들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다. : 중국 동반자 관계의 특성에 관한 분석은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p.293-300 참조.

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12월에는 다자조직인 아세안과 '21세기를 향한 선린과 신뢰의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같은 달 인도와는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²⁷³⁾

1998년 2월에는 파키스탄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0월에는 영국과 '전면적 동반자' 관계 수립, 11월에는 한국과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1월에는 장쩌민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호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세계 각국과 동반자 관계의 형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과도 1998년 '장기 안정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밖에도 중국은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라오스, 몽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29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중국은 탈냉전시기 비영합적 특성을 지닌 동반자 외교를 활성화하여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²⁷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견제의 대상인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협력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도 미국과의 갈등구조에서 중국의 부상을 실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쩌민 시기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단극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보다는 국제사회의 다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이른바 동반자 외교를 통해 공조관계를 확대해가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입김이 강하지 않은 지역 다자주의를 주도하는 외연을 확장해가는 방식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²⁷⁵⁾

273)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92.

274) 김홍규, 상계서, p.292.

275)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p.291-292.

결국 중국이 주변국 외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위상 구축과 주변국가의 중국에 대한 우려 불식으로 이 두 가지 목표는 중국의 일종의 양면성 혹은 이중 정체성을 보여준다.²⁷⁶⁾

5) 제3세계 외교²⁷⁷⁾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지지세력 획득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시기 제3세계 국가들은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추세 하에서 냉전 시기에 비해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80년대와는 달리 제3세계 국가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²⁷⁸⁾

탈냉전 이후 중국 지도부는 중국과 발전도상국이 국제무대에서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고 협력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상호보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전도상국과 교역 규모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제기구에서의 발전도상국들의 이익 보호, 향후 발전도상국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²⁷⁹⁾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1991년 이후 중국 지도부의 매년 첫 대외방문을 제3세계 국가의 집중지역인 아프리

276) 김재철,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국가전략』, 제9권 4호(2003), p.28.

277) 1990년대 아시아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 불리고 있고,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원인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1993 참조) 4마리의 용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역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한겨레』 (1996년 9월 7일자)) 이와 같은 근거로 일찍이 마오쩌둥이 구분지은 제3세계의 특성 및 국제적 위치와 현재의 아시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자는 아시아는 주변국 외교로,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제3세계 외교로 편입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278) Samuel S. Kim, "China's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Behavior",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Theory & Practice* (New York: Oxford Press, 1995), p.415.

279) 文與鎬, 申鍾浩, “중국의 대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중소연구』 통권 111호(2006), p.118.

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²⁸⁰⁾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서 정치적·이념적 목적은 퇴색하였거나 완전히 배제되었다. 냉전기 중국 수뇌들의 아프리카 방문 목적은 오직 프롤레타리안 혁명론의 확산을 위한 이념 외교였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국 내 화석 연료의 고갈과 ‘자원의 블랙홀’로 일컬어질 만큼 자원의 소비 규모가 거대한 산업 구조 등의 영향으로 탈냉전 이후 중국 수뇌부의 아프리카 방문 목적은 에너지를 위한 자원외교로 변경되었다. 1996년 장쩌민 주석은 아프리카 6개국(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말리, 짐바브웨, 나미비아)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투자, 관세 및 무역 등 경제협력을 강조했을 뿐 이념에 관련된 발언이나 발표는 전무하였다.²⁸¹⁾

1990년 이후 중국지도자들이 잇달아 중남미를 방문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일부 대만 승인국들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개선도 이루어졌다.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 역시 1979년 개혁개방 정책 전환 이후,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경제의 석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밀접해졌다.

중국은 1993년을 기점으로 해외의 석유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1993-2004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규모는 4배로 증가하였고, 에너지 소비는 2배로 증가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과 비교해볼 때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²⁸²⁾ 2004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008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석유수입국이 되었다.²⁸³⁾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중동지역 등에 편중된 석유의존도의 심화는 중국

280)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2009), p.179.

281) 김동환, “경제관계 측면에서 본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2호(2010), pp.191-192.

282) Smil Vaclav, *Energy at the Crossroads: Global Prospects and Uncertainties* (Cambridge, MA: MIT Press, 2003).

283)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2008), p.288.

내에서 에너지 안보²⁸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1993년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에너지 안보를 국가이익의 핵심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한 대외정책과 자원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²⁸⁵⁾

중국 석유 수입의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유라시아 대륙의 송유관 건설이 지체되면서 중국 국영기업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석유생산국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 수입 비중은 1996년 8.5%에서 2004년 28.7%로 급격히 증대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 53개국 국가 중 47개국 국가와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5년 수단과 유전개발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앙골라, 기니 등 20개국과 유전탐사 및 개발 계약을 맺었다.²⁸⁶⁾ 냉전시대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중동 등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소의 체제경쟁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만의 아프리

284) ‘에너지 안보’란 간결하게 표현하면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안정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권의 보전과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너지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산업구조 및 시장개선, 에너지 수송망의 안전, 발전소 안전, 에너지 보존 등을 의미한다. :Buchan David, "The Threat Within: Deregulation and Energy Security", *Survival* Vol.44, No.3, pp.105-115. ;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는 공급에 초점을 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취약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Calder Kent E, "Asia's Empty Gas Tank", *Foreign Affairs*, Vol.75, No2 pp.55-69. ; 에너지 및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판매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반면 제한된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는 에너지 자원 수입국들은 에너지 안보에 취약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에너지 자원은 번영과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국가이익을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 보유는 국가역량의 새로운 요소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을 우려하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위협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David Campbell, "The Biopolitics of Security: Oil Empire and the Sports Utility Vehicle", *American Quarterly*(2005), p.951. ; 따라서 에너지 자원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란 합리적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적절한 양의 석유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에너지의 공급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J. Bielecki and David L. Goldwyn, "Energy and Security: Is the Wolf at the Door",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2(2002) ; 남궁 영, “에너지 안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1호(2007), p.245에서 재인용.

285) 김관욱,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아프리카 자원 외교”,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2008), p.266.

286)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2008), p.297.

카 소국들과의 관계 확장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관계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²⁸⁷⁾

중국은 원유 수입의 증동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중남미에서 단순히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사회간접자원에 투자하는 등 무역 등 경제교역을 확대하고 있다.²⁸⁸⁾ 1996년 11월 중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는 '석유분야협력에 관한 협정' 및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유화석유 타당성 연구에 대한 협의'에 서명한 이래 1997년 6월 중국 CNPC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의 유전과 동쪽 분지의 카라커얼 유전의 개발권을 낙찰받았다.

6) 다자 외교

1990년 중반 이전까지 중국은 경제우선주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거부감, 대만문제와 인권을 통한 외세의 내정간섭의 가능성 및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양자동맹체제의 강화 등의 이유로 다자주의에 소극적이었다.²⁸⁹⁾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역 소국과의 관계에서 양자주의는 중국이 기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쟁이 악화되었을 경우 지역국가들이 반중국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다자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고립당하고 포위당하는 위험성 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²⁹⁰⁾ 아울러 과거와 달리 이들 기구와 회의가 본질적으로

287) Payne Richard J and Cassandra R Veney, "China's Post-Cold War African Policy", *Asian Survey*, Vol.38(1998), pp.867-879.

288)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2008), p.298.

289)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p.128.

중국을 견제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적대적 그룹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는 중국이 다자 외교로 선회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이들 그룹이 중국의 견해와 영향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을 억제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²⁹¹⁾

결국 중국의 다자 외교 전략은 중국이 아직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적할 수 없으며 주변국들이 중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⁹²⁾

중국이 각종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의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⁹³⁾ 첫째, 지역 및 국제적 범위에서의 다자간 제도는 중국과 세계 강대국 및 국가집단 간의 접촉 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동반자 외교를 확대·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및 국제 다자간 제도가 제공하는 각종 채널을 통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행위를 견제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각종 압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및 국제 다자간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임대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 및 국제 다자간 제도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중국의

290)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Vol.168 (2001), pp.842-843.

291) David Shambaugh, "Return to the Middle Kingdom.", *Power Sh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292) Christopher R. Hughes, *Chinese Nationalism in the Global Era* (London : Routledge, 2006), pp.139-141.

293)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2006), p.20.

다자 외교는 장쩌민이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양극구조는 이미 종식되고 각종 세력들이 새롭게 분화, 조합되고 있으며 세계는 바야흐로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²⁹⁴⁾고 언급한데 이어 1993년 8월 “중국은 안보협력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와도 다양한 채널, 다양한 수준,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할 수 있다”²⁹⁵⁾고 밝힌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국력 증대에 따른 위협을 느낀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신안보 공동선언’과 1997년 9월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였다. 미·일 양국은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방위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미·일 양국은 1997년 9월 23일 그 동안의 현안이었던 양국 간 방위협력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최종적인 내용을 뉴욕에서의 미일 안보장관협의회에서 결정, 공표하였다.

1996년 맺어진 미·일 양국의 신가이드라인은 재강화된 안보동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7년 9월 23일 발표된 신가이드라인의 최종적인 내용은 평상시, 일본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 등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각 경우의 미일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고 있다.²⁹⁶⁾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가 자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이는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일 신안보선언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향배이며, 중국이 미·일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이는 중국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견제할

294)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361.

295) 『人民日報』, 1993년 8월 7일자.

296) “The Guideline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September 23, 1997),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guideline2.html> (검색일: 2011.4.14.)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 것이다.²⁹⁷⁾ 이에 대해 중국은 다자 안보기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남아국가들과 일본의 불안감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양자동맹의 강화로 연결되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²⁹⁸⁾

미·일 신안보선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은 신세계 질서, 반패권주의, 군사 블록, 유엔 및 발전도상국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련 붕괴로 말미암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다극화와 신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²⁹⁹⁾이라고 천명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지역 경험기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고, 각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 발전도 다양성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공동 이익은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를 기초로 한 대화와 협력에 달려있다.”³⁰⁰⁾고 강조하고 있다.

성명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 반대한다. (...) 각국은 고유 여건에 따라 외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 간 분쟁은 무력 사용이나 위협이 아닌,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³⁰¹⁾고 언급하면서 국제체제의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이 외교전략으로 다극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다극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첫째, 중국 스스로가 다극의 한

297) 이교덕,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한국의 통일환경에서 갖는 의미”, 『통일연구논총』 제16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7), p.144.

298)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2004), p.129.

299) 『조선일보』, 1997년 4월 25일자.

300) 『조선일보』, 1997년 4월 25일자.

301) 『조선일보』, 1997년 4월 25일자.

극으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극 가운데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미국을 비롯한 다극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요 강대국들과 안정적 공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강대국으로서의 대외정책(책임지는 대국, 화평굴기, 조화세계)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양자관계에 중점을 둔 강대국 외교’와 ‘다자주의’가 사용된다.³⁰²⁾

중국은 1971년 유엔 회원국 가입을 기점으로 국제체제에 참여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80년대까지는 주로 경제관련 국제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다 9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서 정치, 안보 분야 등 정부 차원의 국제조직에 대부분 가입하였다.³⁰³⁾ 중국은 사실상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진입을 거의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⁰⁴⁾

장쩌민 시기 중국의 다자 외교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1994년 7월 ASEAN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의 참여이다. 중국의 ARF 가입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ARF의 운영 방식인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다.

아세안 방식이란 원래 ASEAN 체제 내에서 회원국들 간의 마찰을 완화시키고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던 정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장·적용시킨 방식으로 ARF에서 아세안 방식은 ARF가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방안이다.³⁰⁵⁾ 특히 아세안 방식은 ARF가 회원국들의 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권중심의 규범확립,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 그리고 체제제도화의 최소화

302) 최지영, “중국의 대국외교와 대 EU전략”, 『신아세아』 제15권 3호(2008), p.96.

303) 卍自成, 『중국의 세계전략』, 이우재 역, (서울: 북21, 2005), p.253.

304) 임반석, “중국의 대외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전략과 한국”, 『동북아논총』 제50집 (2009), p.57.

305) Amitav Acharya, "Ideas, identity and institution-building: from the 'ASEAN way' to the 'Asia-Pacific way'," *The Pacific Review*, Vol. 10, No.3 (1997), pp.219-346. ;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360에서 재인용.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왔다.³⁰⁶⁾

ARF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력이 미치는 대다수의 다자간 체제와는 달리 가입국의 주권³⁰⁷⁾을 상호존중하면서 정치·경제·사회·군사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신뢰구축을 위한 예방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1994년 ARF의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³⁰⁸⁾

이 시기 중국은 ARF 이외에도 1996년 4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상하이5국’을 탄생시켰고 이후 지역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협력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각 구성원 국가들이 보다 유효하게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정식 가입시킴으로써 6개국으로 확대하여 SCO를 건립하였다. SCO는 “상호 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의 모색”³⁰⁹⁾을 내용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제시하며 지역다자안보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1년 ASEAN 초청국 자격으로 처음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협상 대상국으로, 1996년에는 전면적인 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부터 비공

306) Amitav Acharya, "Multilateralism: Is There an Asia-Pacific Way?" *NBR Analysis*, Vol.8, No.2(1997), pp.1-18. ;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360에서 재인용.

307) 중국은 전통적 웨스트팔리안식 주권개념을 바탕으로 주권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자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참여와 함께 이미지 제고와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주권 또는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다자간 안보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이익이나 권리는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부담이나 책임은 최소화하는 최대-최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최소의 원칙에 따른 외교적 태도는 중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자국의 국익을 바탕으로 한 최대-최소의 원칙에 따라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참여의 수준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Samuel S. Ki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 pp.141-157.

308)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p.360-361.

309)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www.sectsc.org/> (검색일: 2011.5.25.).

식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실무차원의 대화창구도 구성되었다.³¹⁰⁾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위협론에 대응해 중국 기회론을 주장하며 아세안 국가들에게 좋은 파트너로서의 포지션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다극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을 미·일·중·러와 함께 역내 5개 강자 또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균형자로 부각시키며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패권추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시키며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³¹¹⁾

1997년 ASEAN+1의 등장은 1997년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당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당시 중국은 아세안에 또 다른 충격을 주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³¹²⁾

상술한 지역안보기구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안보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한 바 있다. 1997년 신안보개념의 제기와 더불어 중국은 다자 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310) ASEAN <http://www.aseansec.org/5874/htm> (검색일: 2011.7.14.)

311) Yang Jian, "Sino-Japanese Relations: Implication for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5, No.2 (2003), pp.306-327.

312) 김재철, “중국의 동아시아정책”,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pp.7-32.

IV.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1. 후진타오 시기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1)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제16차 당대회는 2002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6차 당대회는 특히 기존의 당대회와 비교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쩌민을 위시한 제3세대 지도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제4세대 지도자들이 정치전면에 등장함은 물론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중국공산당 대회였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은 11월 8일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³¹³⁾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다(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라는 제목으로 정치보고를 하였다. 정치보고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10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첫째, 지난 5년간의 공작과 13년간의 기본적인 경험³¹⁴⁾, 둘째, 3개 대표 이론의 전면적인 관철, 셋째,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분투 목표, 넷째, 경제 건설과 경제체제의 개혁, 다섯째, 정치건설과 정치체제의 개혁, 여섯째, 문화 건설과 문화체제의 개혁, 일곱째, 국방과 군대의 건설, 여덟째, 일국양제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의 실현, 아홉째, 국제형세와 대외공작, 열 번째, 당 건설

313) 소위 전면적인 소강상태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도농발전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 http://baike.baidu.com/view/190966.html?tp=0_11 (검색일: 2011.3.21).

314) 13년간의 기본적인 경험은 1989년 제13차 4중 전회 이래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해오면서 현재까지 쌓인 경험을 의미한다. :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검색일: 2010.11.21).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 어떤 당을 건설해야 하는지, 당의 인식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귀중한 경험을 의미한다. :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0.11.21.).

의 강화와 개선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대외인식과 관련된 부분인 첫 번째 주제와 아홉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분화된 주제의 보고에 앞서 장쩌민은 중국의 국가 목표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중 개혁개방 정책과 현대화 건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조국통일을 완성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3대 역사적 의무이다.³¹⁵⁾ (...)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형세의 발전, 변화에 따라 올바른 대외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양자간·다자간 외교를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한층 더 제고되었다.³¹⁶⁾

장쩌민은 천안문 사태를 비롯하여 공산권의 붕괴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가목표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는 개혁개방, 특히 1989년 제13차 4중전회 이후의 노선에 기초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 13년 동안 국제정세가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어려웠다. 특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국내에는 심각한 정치 풍파가 발생하였고, 동유럽은 격변하였으며, 소련을 해체되었고, 세계 사회주의는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은 전대미문의 거대한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과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당 중앙은 제11차 3중전회 이후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의 대세를 성공적으

315)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8.23.).

316)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8.23.).

로 공고화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수호하였다.³¹⁷⁾

아홉 번째 주제를 분석함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주제인 ‘지난 5년간의 공작과 13년간의 기본적인 경험’ 중 아홉 번째 내용과 같다. 중국의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해당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한다. 시종일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최우선 순위이다.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의 건립을 촉진한다. 냉정한 관찰, 침착한 대응의 방침과 상호존중, 구동존이의 정신으로 국제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과 양호한 주변환경을 생취한다.³¹⁸⁾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 중 아홉 번째 주제인 국제형세와 대외업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제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다. 장쩌민은 “평화와 발전은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³¹⁹⁾라고 언급하며 다극화 추세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새로운 세계대전은 예측가능한 시기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평화로운 국제 환경과 양호한 주변 환경이 유지될 것”³²⁰⁾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17)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1.8.23.).

318)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1.8.23.).

319)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8.23.).

장쩌민은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에는 여전히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민족·종교적 갈등과 영토 투쟁 등의 불확정 요소가 존재하고 국제정치경제의 구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자주독립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³²¹⁾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제14차 당대회부터 언급되어 온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청사진은 제16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다방면에서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은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공동으로 협상해야 하며, 자기의 의지를 타국에 억지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경제적으로 상호촉진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되 빈부격차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문화적으로 서로를 본보기로 삼고, 공동으로 번영하되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안보에 관하여 상호 신임하고 공동으로 수호하며 서로 신뢰하고 이익이 되며 평등하고 협조적인 신안보관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을 이용하여 서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한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하지 않는다.³²²⁾

제16차 보고는 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화를 제창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선진국, 주변국,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다자적인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

320)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8.23.).

321)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8.23.).

322)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8.23.).

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각국인민의 근본 이익을 중요시하여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공동 이익의 합치점을 넓히고,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린우호를 강화하고, 이웃 국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 국가를 동반자로 삼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3세계국가들과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키며, 상호 원조와 지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협력 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자적인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합국과 기타 국제적, 지역적 조직 중에서 영향을 발휘할 것이며, 발전도상국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다.³²³⁾

장쩌민은 제16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중국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개혁개방 정책, 평화공존 5원칙과 독립자주 원칙에 기초한 전방위 외교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같은 맥락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후진타오 시기로 넘어오면서 중국 외교는 장쩌민 시기의 외교노선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부문에서 심화·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쩌민 시기에는 도광양회에 보다 중점을 두어 중국의 현실적인 능력 신장에 주력했다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도광양회의 큰 틀에서 유소작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323)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8.23.).

책임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중국의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3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15차 당대회 보고에서의 주권 수호나 경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에 대한 원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 제1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인식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최초로 외국 언론의 직접 취재가 허용되었던³²⁴⁾ 제17차 당대회는 지난 5년간에 걸친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체제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향후 후진타오 집권 2기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³²⁵⁾ 후계자로 떠오른 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³²⁶⁾가 윤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받들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 분투한다.(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³²⁷⁾는 제목의 정치보고를 하

324) NEWSIS, 2010년 10월 15일자.

325) 중국의 제1세대 지도자는 마오쩌둥, 제2세대 지도자는 덩샤오핑, 제3세대 지도자는 장쩌민, 제4세대 지도자는 후진타오이며,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등장할 지도자가 제5세대 지도자이다.

326) 중국 공산당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7차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중국 당정을 이끌고 갈 최고 지도부 9명을 선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시진핑(習近平) 상하이(上海)시 당서기와 리커창(李克強) 랴오닝(遼寧)성 당서기, 허궈강(賀國強) 당 조직부장, 저우융강(周永康) 공안부장 등 4명이 새로운 얼굴이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등 5명은 상무위원에 그대로 유입됐다. : 『조선일보』, 2007년 10월 22일자.

327)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였다. 총 22페이지에 달하는 정치보고는 크게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거 5년간의 공작, 둘째, 개혁개방의 위대한 역사적 과정, 셋째, 과학발전관 실현의 철저한 관철, 넷째,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목표의 새로운 요구 실현, 다섯째, 국민경제의 빠르고 바람직한 발전 촉진, 여섯째,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공고화, 일곱째,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과 번영 촉진, 여덟째, 민생개선에 중점을 둔 사회건설 촉진, 아홉째,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 개창, 열 번째, 일국양제 노선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대업 추진, 열한 번째, 평화발전 노선의 추진, 열두 번째, 당 건설의 새롭고 위대한 과정의 전면적인 추진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연관된 열한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17차 당대회를 개최하며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은 제16차 당대회의 보고에 비해 부정적이다. 보고에서 후진타오는 현 국제정세가 “총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³²⁸⁾고 언급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보고를 통해 “국제정세가 대변혁과 대조정기에 들어섰으며 세계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미 “평화를 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³²⁹⁾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중국의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은 “시종일관 평화발전 노선을 추진하는 것”³³⁰⁾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17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를 “국가의 주권과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28)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29)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30)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안전, 발전 이익의 수호, 세계 평화 수호와 공동의 발전 촉진”³³¹⁾이라고 밝히고 있는 후진타오는 2002년의 장쩌민과 마찬가지로 다극화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체제 내의 장기적인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독립 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³³²⁾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보고를 통해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강대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중국의 지지 역시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도상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할 것이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며,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상호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주변 외교방침을 관철할 것이고,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우호와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평화안정, 평등상호신뢰, win-win협력의 지역 환경을 조성해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광대한 발전도상국과의 단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전통 우의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장시키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발전도상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자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상응하는 국가 의무를 다할 것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제 질서가 더욱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³³³⁾

후진타오의 정치보고는 5년 전과 비교하여 중국의 평화적 외교전략이 진

331)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32)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33)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일보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의 정치보고에서는 보이지 않던 몇몇 단어와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먼저 후진타오는 협조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관계 중 민주(民主), 화목(和睦), 협조(協作), 공영정신(共贏精神; win-win정신)을 드높여야 한다”³³⁴⁾고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 각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³³⁵⁾의 기초 위에서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³³⁶⁾을 주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보고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질서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책임 대국³³⁷⁾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증거로 정치보고에 ‘연합국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 관계 준칙 준수’, ‘법에 따른 처리’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경제무역 규정에 따른 시장진입의 확대’, ‘국제 무역과 금융 체제 지지’,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편리화 촉진’과 같은 중국의 다짐은 중국이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운용해 나갈 것임을 암시한다.

제17차 정치보고에서도 기존부터 이어져 오던 반패권주의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³³⁸⁾는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표현은 여기

334)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35) 구동존이는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함을 의미한다.

<http://baike.baidu.com/view/98832.htm> (검색일: 2011.9.20.).

336)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5.).

337) 1990년대 초반 중국은 덩샤오핑의 국내경제발전 우선전략을 계승하여 도광양회를 외치며 국력이 강해지기를 기다릴 것을 주장하였다. “책임대국”의 개념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제기였다. :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2009), p.177. ; 이 때 중국이 평화와 협력과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으로 국제지위와 영향을 제고한다는 주장과 함께 책임대국의 외교가 정식으로 출현하였다.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政策研究室编, 『中国外交』(北京: 世界知识出版社, 1999), p.4.

서도 여지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장쩌민은 정치보고 전반에서 반패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동 번영과 국제적·지역적 안보 협력 추진 등의 개념을 앞세움으로써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는 제16차 보고에서도 보았듯이 국제체제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양면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보고 말미의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세계의 번영과 안정 역시 중국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³³⁹⁾는 언급은 이미 눈부신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종합국력의 증강을 통해 강대국의 길을 바라보는 중화민족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338)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339)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4.)

<표-4> 후진타오 시기 당대회 주요 정세인식과 외교노선

|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국제정세인식 | 외교노선 |
|---|--|---|
| 제16차 (2002.11.8~14) 후진타오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추세 • 세계의 다극화, 경제세계화 추세 강화 • 종합 국력 경쟁 심화 • 전쟁가피론 • 국제정세의 불확정적 요소 증가 • 선린우호, 지역협력 강화 •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주 • 세계평화와 인류발전 • 반패권주의, 반강권정치 • 평화공존 5원칙 •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 • 다자외교 |
| 제17차 (2007.10.15~21) 후진타오 정치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는 대변혁, 대조정기에 해당 •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존재 • 여전히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추세 • 다극화는 역전 불가능 • 중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 | |

출처: “江澤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報告”, 『新華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와 “胡錦濤在党的十七大上的報告”, 『新華网』(2007년 10월 24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를 토대로 정리.

2. 후진타오 시기 외교정책

장쩌민 시기의 외교정책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국력증강과 경제발전을 추구한 것에 비해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

16차 당대회, 2003년 3월의 전인대에서 장쩌민으로부터 당총서기직과 국가 주석직을 승계받은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외전략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고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소극적 자세에서 국제질서 수립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의 변화이다.³⁴⁰⁾ 후진타오는 화평굴기, 화평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증강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조화세계 개념에 근거한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2004년 제16차, 제17차 당대회 보고의 내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외교’라는 기존 정책기조의 바탕 위에서 당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이며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4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¹⁾

1) 화평굴기, 화평발전, 조화세계

9.11 테러 사건 이후 중국이 견지해오던 도광양회 원칙은 중국이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중요한 국제적 사안에서 외교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도광양회의 큰 틀 속에서 유소작위를 추구하는 입장(堅持韜光養晦, 積極有所作爲)을 견지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바를 한다’는 유소작위 전략은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의 제고와 맞물려 화평굴기의 외교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화평굴기론은 2003년 10월 당시 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이었던 정비젠(鄭必堅)이 보아오 포럼에서 제기한 후, 같은 해 12월 10일 미국 하버드

340) 이태환, “2004년 중국정세”, 『정세와 정책』 (서울 : 세종연구소, 2004), p.14.

341) 이동률, “16大以後 新指導部の登場과 外交政策展望”, 『신아세아』 Vol.10, No.1(Spring 2003), pp.114-132.

대학 강연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같은 달 26일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 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화평굴기를 강조하면서 중국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³⁴²⁾ 2002년 제16차 당대회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화평굴기와 화평발전 노선을 통하여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인 부상을 할 것임을 밝혔다.³⁴³⁾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에 개최된 제10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화평굴기 개념을 자세히 언급하였다.³⁴⁴⁾ 첫째, 중국의 화평굴기는 세계평화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둘째, 중국의 굴기는 독립자주, 자력갱생, 고난과의 투쟁, 넓은 국내시장과 충분한 노동력으로 개혁이 가져온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굴기는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은 반드시 개혁개방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평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세계의 모든 우호국가들과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굴기는 장시간을 요구하며, 수세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굴기는 누구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것이며 누구를 희생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패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다극화 대외전략에서 미국은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다극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단극체제를 약화, 해체시켜야 하지만, 다극화의 일환으로 중국이 지역에서 일극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

342)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23.

343)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2005), pp.215-233.

344) “温家宝解和平崛起五要义 重申中国永远不会称霸”, <http://news.sina.com.cn/c/2004-03-14/17563022381.shtml> (검색일 :2004.3.14.).

지로서 ‘평화로운 부상’을 이야기한 것이다.³⁴⁵⁾

그러나 화평굴기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중국위협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중 억제정책 강화를 초래하였고, 대만 문제의 해결에서 무력개입이 방해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화평굴기론은 공식석상에서 사라지고 화평발전론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화평발전은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화평굴기론과 구별되는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함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새로운 정책적, 전략적, 이념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조화세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³⁴⁶⁾

이후 2004년 10월 14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평화와 발전,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화세계 개념이 처음으로 국제정치영역에 등장하게 되었다.³⁴⁷⁾

2005년 12월 22일 중국정부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길>이라는 백서에서 민주, 화목, 공정, 포용이라는 4개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조화세계의 함의를 개관하고, 국제정치, 안보, 경제발전, 문명과 대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화세계 건설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언급하였다.³⁴⁸⁾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새로운 시기 중국의 외교노선으로 ‘화평발전·교류소통·호혜상생·조화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³⁴⁹⁾

조화세계의 이념은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 질서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조화세계의 이념 건설은 평화공존 5원칙을 관철하고,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건립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345) 최지영, “중국의 대국외교와 대 EU전략”, 『신아세아』 제15권 3호(2008), p.97.

346) 하도형, “중국의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4집(2008), pp.171-177.

347) 이정남, “조화세계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1호(2010), p.45.

348) 이정남, 상거서, p.45.

349) 강준영, “중국-대만 양안대화와 남북대화”, 『문화일보』, 2008년 6월 23일자.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제관계 민주화를 계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부 합의를 던져주었고 새로운 시대 특성을 부여하였다. 조화세계는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는 전통 관념을 넘어 경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추세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이념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세계변영과 안정이 중국과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⁵⁰⁾

중국이 여러 담론들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현실적 국력에 부합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강대국들의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평화, 조화’라는 수사들을 동원하면서 연성권력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인 것이다.³⁵¹⁾

그러나 비록 후진타오 시기 상술한 바와 같이 조화세계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국의 외교정책은 도광양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상에 따라 유소작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⁵²⁾ 중국 내에는 이미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적 사고들이 경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발전도상국으로 인지하면서 도광양회적 외교를 중시하는 집단과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인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더 적

350) Liu Dong Jian,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와 한중관계의 추세: 평화공존에서 조화세계로”, 『한국민족문화』 김홍수 역, 제37호(2010), p.27. ;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주평 교수는 조화세계 이념은 중국외교의 새로운 기상, 새로운 인식, 그리고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 사업을 위해 중국이 기여할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마리랜드 대학의 쿠프타 교수는 조화로운 세계건설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발전관계가 윈-윈의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中国网 “조화세계 이념 하에 중국외교 커다란 성과 이뤄” http://china.naeil.com/chinacontbo/contents_view.asp?buloyoid=2&buloyoo2Id=&num=185&GotoPage=5 (검색일:2011.5.20.)

351)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294.

352) 김홍규, “도광양회 위주, 유소작위 보완전략: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브리프』, 제5권 제1호 통권 15호(서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10), p.49.

극적인 행보를 주장하는 유소작위적 외교를 강조하는 집단들이 제각기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³⁵³⁾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중국과 신흥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에서 비롯된 양면성을 내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5년 당중앙 정치국 집체학습³⁵⁴⁾에서 보고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개혁개방 중인 사회주의 발전도상국이며, 신속히 부상하고 있는 대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2) 강대국 외교

중국은 패권적 지위에 대한 의도와 욕심이 누차 없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왔으나 향후 이룩해야 할 바람직한 국제정치질서로서의 다극 체제 안에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에서도 이미 1990년대 후반기부터 ‘책임있는 대국’ 외교노선³⁵⁵⁾의 천명을 통해 자신을 대국이라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비록 온포나 소강과 같은 경제적이거나 추상적인 국가 목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강대국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지와 염원인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서 자주 제기되어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 때로는 명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

353) 김홍규, “도광양회 위주, 유소작위 보완전략: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브리프』, 제5권 제1호 통권 15호(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10), p.47.

354) 중앙집체학습은 2002년12월26일 제1차 중앙집체학습이 실시된 이후 2007년1월23일 제38차 학습에 이르기까지 4년 여간 거의 40일에 한 번씩 중국지도부의 집체학습이 진행됐다. 2006년12월26일 후진타오 총서기는 제1차 중앙집체 <학습헌법>에 관한 강연 중 “자습 이외에, 중앙정치국은 집체학습을 실시할 것이며 이는 제도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체학습의 과목은 대체로 현재의 정책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용은 주로 지식과 이론으로 꾸며져 있으며 기본적인 것은 역사와 현황, 문제와 대책건의로 이뤄져 있다. : 『中国网』, 2007년 3월 20일자 참조.

355)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등장한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양극체제의 해체에 따른 국제질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합국력의 획기적 신장에 대한 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률,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 전략적 함의,” 『동아연구』 제50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pp.352-370.

하면서 그것이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 또한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³⁵⁶⁾

이러한 중국의 의지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자신감의 증대는 다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도록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곧 대외적으로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려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곧바로 팽창적인 대외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미국의 존재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계라는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미국을 위시한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협력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³⁵⁷⁾

2000년대에 들어 미국과의 국력 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의 국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좌절시킬 능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³⁵⁸⁾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⁵⁹⁾ 이러한 중국의 대미정책의 변화는 반테러 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필요와 결합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을 가져온다. 9.11 이후 양국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제시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고, 이는 갈등을 반복하던 1990년대의 양국관계와 대

356) 정재호, “강대국화의 조건과 중국의 부상”,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정재호 편 (서울: 도서출판 길, 2006), pp.33-34.

357) 김재철,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2005), pp.118-120.

358) Yu Bin, "Why China Sides with US in War on Terrorism", *Pacific News Service* (September 21, 2001).

359)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100-101.

비된다.³⁶⁰⁾

중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전쟁을 위해 다른 강대국들과의 협조가 필요해진 미국의 전략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반테러 전쟁, 비확산, 중동지역의 안정 등에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지지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전략적 기반을 확립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핵심적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부상이 지나친 저항이나 위협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장시키고자 했다.³⁶¹⁾

이러한 의도에서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³⁶²⁾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2002년 11월 8일 이라크 무장 해체에 관한 유엔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미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솔직하고 협력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³⁶³⁾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2005년 8월 베이징에서 제1차 전략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외교부 차관급에서 진행된 전략대화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호 이해증진, 신뢰강화 그리고 협력확대를 목표로 했다.³⁶⁴⁾ 전략대회가 개최된 이후 줄릭(Robert Zoellick)은 한 연설에서 중국을 ‘이익공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중국관을 표명했다. 그는 책임있는 이익공유자는

360)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서울: 폴리테이아, 2007), p.109.

361) 김재철, 상계서, pp.100-102.

362) 중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가시화시킨 2001년 10월 초 새로 구성될 아프가니스탄 연합정부를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고 : 『人民日报』, 2001년 10월 10일자. ;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 Nicholas Berry, "Who Is in Charge of China Policy?", *Foreign Policy Forum* (March 9, 2006), p.56.

363) Bonnier S. Glaser, "Face to Face in Shanghai: New Amity amid Perennial Differences", *Comparative Connections*, Vol.3, No.4(January, 2002), p.26.

364) "China, US need high-level meetings", 『China Daily』, August 11, 2005.

단순히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³⁶⁵⁾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대만의 후원세력으로서 중국과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³⁶⁶⁾ 9.11 이후 미국이 반테러 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다면 중국은 그 대가로 대만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보를 얻으려 했다.³⁶⁷⁾ 이에 미국 또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억제함으로써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 들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직에 취임한 직후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함을 천명하였다.³⁶⁸⁾ 2006년에는 대만 주재 미국 대표가 “미국은 대만 안보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이지만 동시에 대만의 독립선언으로 초래되는 전쟁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다”³⁶⁹⁾고 명시한 바 있다.

2001년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20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친선·우호 협력조약’을 체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첫째,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둘째, 국경지역에서의 협력, 셋째, 지난 1996년 이후 협의된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른바 상해 5개국간 국경지역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와 안정 유지 협력, 넷째,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신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다섯째, 탄도탄요

365)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110-111.

366) 지재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외교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2003), p.548.

367) 『环球时报』, 2005년 3월 25일자.

368) "Bush's call to Hu was a Strategic Move, Say Analysts",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003).

369) "US Warns Taiwan on Independence", 『South China Morning Post』, 2006년 5월 12일자.

격미사일(ABM) 협정 준수 등을 천명하였다.³⁷⁰⁾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국경문제도 2004년 10월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푸틴과 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마침내 ‘중·러 동쪽 국경에 관한 보충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국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³⁷¹⁾

중국과 소련은 구소련의 몰락과 러시아 공화국의 등장이라는 세력균형의 변화로 전통적 ‘소련 위협’ 요인은 소멸되었고, 그 대신 탈냉전시대의 일초다강 구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공동 이익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국경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세기 양국관계는 상당기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³⁷²⁾

21세기에 들어 중일관계는 한편으로 탈냉전시대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³⁷³⁾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충돌하는 협력과 갈등이 존재하는 복합적 불안정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고도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의 재조정이 초래됨으로써 중일간 상호 견제와 경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대세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공존과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

370)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서울: 폴리테이아, 2006), p.218.

371) 서진영, 상계서, p.219.

372) 서진영, 상계서, p.216.

373)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당시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량은 국교수립 10주년인 1982년에 88.63억 달러, 20주년인 1992년 289.01억 달러,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2002년에는 1,101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국은 모두 상대방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2004년 양국 무역총액은 1,6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최대의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 서진영, 상계서, p.253.

고 있지만, 동시에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의 정치, 이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활동하면서 양국의 상호 협력과 공존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⁷⁴⁾

양국관계의 악화는 2001년 일본의 보수화 추세와 함께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과 2002년 중국의 ‘화평굴기’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후진타오 정권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2001년도 통상백서’에서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 아시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선언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기하면서 탈냉전시대 일본 안보의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³⁷⁵⁾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체제와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된 두 나라간의 동맹체제이고 따라서 두 나라의 범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³⁷⁶⁾고 지적한 바 있다.

탈냉전시대의 중일관계를 가리켜 흔히 ‘정랭경열(政冷經熱)’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신사참배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인식 문제, 영토분쟁 문제, 미일 안보동맹과 대만문제 등으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의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는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일 관계는 양국 민족주의로 촉발된 감정적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고 있지만 세계화와 탈냉전 시대에 양국 간 경제 관계는 급속도로 상호의존적으로 전환되면서 양국관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³⁷⁷⁾

374)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246-249.

375) 서진영, 상계서, pp.246-261.

376) 『人民日报』, 2005년 2월 21일자.

377) 서진영, 전계서, p.251.

3) 주변국 외교

후진타오 시기 중국 외교는 ‘책임지는 대국외교’, ‘화평발전’, ‘조화세계 건설’ 등의 외교정책 목표 또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실시하고 있다. 주변국가에 대해서 ‘선린(睦鄰)’, ‘안린’, ‘부린’으로 대표되는 우호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국제기구와 국제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주도하고 있다.³⁷⁸⁾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주변지역을 새롭게 인식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차적으로는 테러라는 비대칭전쟁에서 중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위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무슬림의 영향권에 있는 신장 자치구를 비롯한 일부 소수민족지역의 분리운동과 그에 따른 국경지역에 대한 안보불안이 체제 전환기에 통합의 문제를 안고 있던 중국당국에게 새삼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9년 코소보 사태를 통해 민족분규로 인한 강대국의 개입의 사례를 직시한 이후였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효과가 수반되는 반테러 공조에 동참하면서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그런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대한 불안과 위기 인식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주변지역정책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다. 2005년 7월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과 더불어 9.11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일정 마련에 대해 미국에 공식으로 촉구한 것도 중국의 변화된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⁷⁹⁾

378) 이영학, “중국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동서연구』 제31권 제1호(2009), p.148.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주변국 외교는 크게 경제외교와 동반자 외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주변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³⁸⁰⁾

첫째, 중국의 주요 변경지역과 그와 인접한 주변지역과의 소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의 강화이다. 이러한 소지역 경제협력의 추진은 90년대 이후 상당수 국경분쟁이 해소되면서 중국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른바 ‘4연(沿)개방전략’³⁸¹⁾을 통해 전방위 개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경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서북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서남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남부지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으며 동북지역은 몽골, 남북한, 일본과의 경제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는 2006년 10월 중국 난닝(南宁)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중국 창장(長江) 삼각주를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 서남부와 메콩강 경제협력지역을 개발하고 싱가포르와 중국 쿤밍(昆明)을 잇는 국제철도도 건설하기로 하였다. 아시안 국가들과의 이러한 활발한 지역협력은 중국이 1991년 아세안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교역 규모가 15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주변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FTA)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ASEAN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완료하였고, 홍콩·마카오와 CEPA를 체결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호주, 걸프협력회의(GCC)³⁸²⁾,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379) 이동률,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pp.283.

380) 이동률, 상계서, pp.284-285.

381) 4연 개방전략은 다음의 사항을 포괄한다. 첫째, 기존 경제특구 면적의 확대와 보세구역의 설치, 둘째, 상하이-양자강 연안지구 28개 시 및 8개 현을 개방지역으로 지정, 셋째, 국경도시 및 내륙지역의 대외개방, 넷째, 내수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다섯째, 무역관리제도의 개선, 2백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입조절세의 폐지가 그것이다.

공화국 등과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 인도 등과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도 FTA 추진에 합의한 상태이다.

셋째, 중국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 부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2006년 3월 푸틴대통령의 중국방문시 구체적으로 논의된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2006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에너지협력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특히 카자흐스탄과는 2006년 4월 송유관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인도와는 에너지 신사업협정을 체결하였고,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의 에너지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중동지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에너지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외교에서 널리 적용되기 시작한 동반자 관계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유지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급속한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2)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로 참가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이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804> (검색일: 2011.10.20.).

<표-5> 중국의 대외관계 유형

| 유형 | 나라 | 특징 |
|-----------------------|---|--|
| 전략적 협업 동반자 관계 | 러시아 | 동맹관계는 아님.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음.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적 혹은 세계적 사안들을 논의. 단기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사안들도 논의. |
| 전략적 전면 동반자 관계 |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 |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파키스탄, 인도, 한국 | |
|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캐나다 | |
|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아프리카 연합 |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아세안 | |
| 전략적 호혜관계 | 일본 | 일부 사안의 갈등을 전제한 상태에서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략적 문제를 다룸 |
|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 북한 | 북한에만 적용되는 관계이며 동맹 관계는 아님. 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의 |

| | | |
|------------------------|----------------------------------|---|
| | | 원칙아래 현재 실리에 기초한 정상국가간 관계로 전환중 |
| 전략적 협력 관계 | 알제리 | 일부 사안의 갈등을 |
| 전략성 협력 관계 | 말레이시아 | 전제한 상태에서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구함 |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군사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협력관계 수립노력 |
| 세계적 범위의 책임있는 동반자 관계 | 독일 | 전세계적 범위의 사안들에 대해 협력을 추구, 그러나 '전략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 동구권 국가, 우즈베키스탄, 몽고 | 직접적 갈등이 없는 관계. 지역성 문제에 대한 협력 추진 |
| 우호 협력 관계 | 타지크스탄, 키르기즈스탄, 여타 동남아 국가군들 |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친선우호 관계추구.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은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나 아직 이해갈등이 존재함을 전제 |
| 수교관계 | 기타 수교국들 | |

출처: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96.

중국은 1990년대 브라질, 러시아, 미국 등의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였던 ‘전략적’이라는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21세기 들어 강대

국은 물론이고 주요 지역 기구, 자원 부유국, 중간 규모의 주변국 및 지역강국들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공간이 급속히 확대되었다.³⁸³⁾

중국은 2000년 들어 개별국가와의 양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기구와의 관계에서도 최초로 아프리카 연합과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아세안 및 유럽연합과도 각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같은 해 멕시코와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였고, 2004년 이태리,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와 전략적 혹은 전략성 관계를 수립하였고, 2005년에 포르투갈, 캐나다, 스페인, 인디아,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과도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그리스, 나이지리아, 한국, 덴마크 등과도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켰다.³⁸⁴⁾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특정 국가와의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식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즉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의 부상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 파트너들도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수가 빠르게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⁸⁵⁾

383)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2008), p.295.

384) 김홍규, 상거서, p.295.

385) 이남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서울대 중국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09.6), pp.55-56.

4) 제3세계 외교

후진타오 지도부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경제외교의 지도원칙으로 “상호존중과 평등상대, 정치를 통한 경제 촉진과 정치와 경제의 결합, 상호호혜와 공동발전, 그리고 다양한 형식과 실효성 중시(相互尊重, 平等相待, 以政促經, 政經結合, 互利互惠, 共同發展, 形式多樣, 注重實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세계 에너지자원의 주요 보고인 발전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과 발전도상국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국제다자기구에서 발전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원칙과 정책 제정에 대한 참여는 물론 중국과 발전도상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³⁸⁶⁾ 발전도상국과의 대외문화교류를 통한 민간외교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증대를 통한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이들 국가·지역에 존재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⁸⁷⁾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⁸⁸⁾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 등의 형식을 막론하는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³⁸⁹⁾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방문 외교’를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

386) 『人民日报』, 2004년 9월 2일자.

387) 文興鎬, 申鍾浩, “중국의 대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중소연구』 통권 111호(2006), p.119.

388) 중국의 필사적인 아프리카 공략은 서방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자원 공급처’로 만들고 있다며 신식민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 박영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1), p.3.

389)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총론』 제49집 1호(2009), pp.184-190.

해 나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0명의 고위 지도자와 외교부장이 아프리카를 찾았다. 수교 50년 동안 장관급 이상의 고위층 방문이 838회, 이 가운데 최고지도자가 찾은 경우는 162회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52개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 524명이 중국을 방문했다.³⁹⁰⁾

둘째,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외교이다. 1950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입 총액은 1,211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31.8%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교역 규모가 3천억-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⁹¹⁾ 2006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이 연평균 24.4%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당시 3%대에 머물렀던 중국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이 2010년에는 14%대에 육박하기도 하였다.³⁹²⁾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에너지 외교도 장쩌민 시기에 이어 발전일로에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세계 에너지 자원의 수급질서를 개편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2년 21세기 석유전략을 수립하였고, 2003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에너지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원자바오 총리를 조장으로 국무원의 관련 부처 장관들과 2명의 부총리 등 13명의 최고관료들이 참가하는 ‘에너지영도소조’를 설립하였고, 2008년에는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였다.³⁹³⁾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6년 1월 ‘대아프리카 정책 페이지’를 발표하여 정

390) 유동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파워외교와 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2010), p.117.

391) 박영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2011), p.4.

392) 박영호, 상계서, p.4.

393)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pp.291-292.

치, 경제, 사회문화, 평화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강화의지를 천명하고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³⁹⁴⁾ 이에 발맞추어 중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석유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³⁹⁵⁾ 2002년에 60%대에 이르던 중동산 석유 수입은 2006년에 50%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2001년에 23%이던 아프리카산 석유 수입 비중은 2004년 28%로 높아진 데 이어 2007년 30%대로 확대되었다.³⁹⁶⁾

셋째,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대외원조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해외원조 백서’에 따르면 2009년 누계기준 중국은 전체 해외원조(400억 달러)의 45% 이상을 아프리카에 제공하고 있다.³⁹⁷⁾ 중국은 또 2000년 이후 6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109억 위안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고, 향후 100억여 위안의 채무 탕감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원조와 부채탕감은 유엔 및 다자기구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중요한 레버리지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넷째, 중국은 과거의 쌍무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자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3년마다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경제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³⁹⁸⁾을 열고 있으며,³⁹⁹⁾ 현재까지 4차례의 포럼을

394) 김재명, 『석유육망의 샘』(서울: 웅진씽크빅, 2007), p.129.

395)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확보는 석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발트, 망간, 크롬, 구리, 목재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원자재를 망라한다. 2001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광물별 아프리카 수입 의존도를 보면 코발트의 경우 무려 90% 이상에 달했으며, 망간과 크롬은 각각 40%, 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박영호, 전게서, p.5.

396) 김동환, “1955-1962 기간의 중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3호(2009), p.875.

397) 박영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2011), p.6.

398)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포럼은 ①

개최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매개체로써 중국은 이 포럼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경제교류와 정치 외교 군사관계의 확대를 하고 있다.⁴⁰⁰⁾

특히 2006년은 중국이 ‘아프리카의 해’로 선포하면서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쌍무적 및 다자적 외교역량을 집중하였고, 3차 포럼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호혜적이며 문화적으로 교류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고, 아프리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⁴⁰¹⁾

다섯째,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있어 ‘호혜주의,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원조공세를 강화해 왔다. 서구국가들은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 및 시장화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 조정 등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원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반란과 민족문제에 직면한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공언은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다.

후진타오 지도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의 전개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2004-2005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방문 및 APEC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로부터 유전개발 및 정유

원조액을 2배로 증액, ②50억 달러의 차관제공, ③50억 달러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 조성, ④최빈국의 2005년 만기 무이자 차관 전액탕감, ⑤무관세 수입품목 확대(190개→440개), ⑥3-5개의 경제무역지대 설치, ⑦아프리카 연합센터 건설지원, ⑧아프리카 장학생 수를 연갈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 등이었고, 2009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4차 포럼은 ①100억 달러의 우대차관 제공, ②농업기술자(2천 명) 및 의료인력(3천 명) 교육 지원, ③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채무탕감, ④태양열 발전 등 100개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등이었다. : 박영호,상계서, p.7.)

399) 유동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파워외교와 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2010), p.117.

400)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p.297.

401) 『조선일보』, 2006년 11월 8일자.

시설 등 상당량의 에너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⁴⁰²⁾ 이 중에서도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자원 외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주요 수출국이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에너지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은 미국과의 갈등적 요소를 내포한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⁴⁰³⁾

중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한 노력은 중국이 국제체제 내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에너지 자원이 미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 다자 외교

장쩌민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중국의 다자 외교는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심화·발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자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닌 책임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다자적 국제체제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자국의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중국은 다양한 국제체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402)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p.298.

403)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미국과 영향력 경쟁과 긴장을 야기함으로써 미중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관점을 교환하고 이해관계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4년 에너지정책대화(US-China Energy Policy Dialogue)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과 에너지 소비국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p.302.

그 역할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간 국제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 미국주도의 일극체제 공고화를 구조적으로 막는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이 주도하여 다자간 국제체제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도 국제질서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전략⁴⁰⁴⁾을 구사하고 있다.⁴⁰⁵⁾ 냉전시기부터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의 다자외교 정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04) 중국 전문가들은 21세기의 국제체제를 하나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일초다강(一超多強)’ 체제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21세기 국제체제는 미국, 러시아, 일본, EU 그리고 중국 등 5개 주요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강대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49-50.

405)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 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p.361-362.

<표-6> 중국의 다자외교에 대한 정책

| 시기 | 특징 | 내용 |
|-----------|---------------|---|
| 1971-1991 | 소극적·부분적 참여 | 소련이 중국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하자 미국과 수교.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성 확보. 기존 도전자의 모습에서 변모하여 소극적으로 다자 외교에 참여. 의제 제안 역할은 거의 없었음. |
| 1992-2001 | 참여 확대 | 냉전의 종식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국내정치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다자 외교에 참여 확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화 추세 하에 중국의 다자 외교 참여가 심화됨.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및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국제체제의 편입 심화. 중국은 자국을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하여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목표. |
| 2002-현재 | 주도적 참여 | 9.11테러 이후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조하는 가운데 주변국가들과 다자협력체제 구축.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성과 사무국 북경 설치. ARF, 아세안+3, APEC, 국방장관 회담인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협력 대화 등에 적극 참여. 6자회담 주도적 운영. |

표 6 출처: 이태환,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2006-2(통권 제67호), p7-8.

물론 9.11 테러사건 이후 대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대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은 냉전 이후의 세계가 세계 유일의 초강국 미국이 지배하는 이른바 일극 체제이며 다극화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자조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존하는 세계의 힘은 미국을 ‘1극(極)’으로 하고,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을 ‘다강(多強)’으로 하는 이른바 ‘1극4강’의 형태로, 결국 이 체제는 ‘1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이다. 이 체제는 일극화 경향을 보이면서 이와 동시에 다극화 추세 성격도 포함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제2단계 경제 성장에 성공할 경우 세계의 역학 구도는 결국 다극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양극화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미국과 축을 이룰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는 중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⁴⁰⁶⁾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6개국이 참여하는 상해협력기구(SCO)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여 더욱 광범위한 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3년 연례회의에서부터 경제적 협조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해협력기구(SCO) 회원국 간의 정치적 상호관계도 점차 증진되고 있다.⁴⁰⁷⁾

중국과 아세안(ASEAN)의 관계 역시 발전일로를 걸어왔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ASEAN)은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목표로 “중국과 아세안(ASEAN)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프레임 협의”에 서명하였고, 2005년에는 중국 아세안(ASEAN)간 FTA를 위한 전면적인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9년 “중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지대 투자협약”의 서명으로 화물, 서비스, 투자에 대한 3개 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⁴⁰⁸⁾ 중국은 또한 2003년에 비아세안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

406) 지재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외교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2003), pp.541-542.

407) David Shambaugh, “Return to the Middle Kingdom”, *Power Sh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408) David Shambaugh, *Ibid.*

입하였고,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형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되었다.

유엔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중국 다자 외교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장쩌민 시기 중국은 “유엔과 기타 국제 및 지역적 기구에서 역할을 한다”는 데 그쳤지만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서는 “유엔과 기타 국제 및 지역적 기구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혀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고, 2006년 들어 중국 외교부는 “유엔 및 유엔 안보리의 권위와 주도 역할을 수호 강화하고 국제 사무에서 힘껏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⁴⁰⁹⁾

구체적으로 중국은 유엔 외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¹⁰⁾ 첫째, 1997년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는 한편 유엔의 정당성과 권위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경쟁과 갈등을 회피하면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있다. 셋째, 중국은 유엔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다극화 전략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들 수 있다. 특히 2002년 11월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5개국(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북한)이 모여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6자회담은 중국이 다자주의를 주도

409) 박창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북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37집 2호(2006), p.93.

410) 이동률,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안보리 표결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2007), pp.117-120.

할 정도로 성숙한 강대국이 되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7년 2월까지 모두 5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2006년 7월 5일)이나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 9일)과 같은 안보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2005년 9월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 발표를 이끌어내고,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 계획에 합의하는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⁴¹¹⁾ 중국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다자와 양자의 상호작용”⁴¹²⁾이라고 설명하며 다자틀에서 양자회담이 병행되는 새로운 협상 모델을 중국이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6) 소프트 파워와 경제 외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에 따르면 파워를 행사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채찍을 통한 강제(coercion), 둘째, 당근을 통한 유인(induction), 셋째,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게 만들도록 끌어들이는 매력(attraction)이 그것이다. 나이는 파워의 자원과 행사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구분하고 있다. 파워의 행사방식을 고려해보면 양자 간의 차이점은 행위의 특성과 자원의 유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성 파워는 강제나 유인에 의존하는 반면 차용성 파워는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의 매력이나 정치적 선택 상의 아젠다를 조작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명령성과 차용성 사이의 행동유형은 강제에서 강제적 유인, 아젠다 설정, 매력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파워의 자원측면에서 하드파워는 군사력과

411)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 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362.

412) 『人民日报』, 2003년 8월 29일자.

경제력이라는 물리적 역량을 말하며, 소프트 파워는 문화, 외교전략, 정치적 가치관 등 비물리적 역량을 지칭한다.⁴¹³⁾

<표-7>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자원

| | 하드파워 | | | 소프트 파워 | | |
|---------|------|------|-------|--------|------------|--|
| 행동 스펙트럼 | | 강제 | 유인 | 아젠다 설정 | 매력 | |
| | 명령성 | | | 차용성 | | |
| 자원의 유형 | | 무력제재 | 보상 매수 | 제도 | 가치 문화 제반정책 | |

출처: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8.

즉, 소프트 파워⁴¹⁴⁾란 강압(coercion)이나 보상(payment)이 아닌 매력(attraction)을 통해서 혹은 정치 아젠다(agenda)를 주도함으로써 타국의 선호(preference)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주로 세 가지 자원⁴¹⁵⁾을 갖는다. 첫째, 타국에 대해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둘째, 국내외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가치관, 셋째, 합법성과 도덕적 위신을 갖는 외교정책이 그것이다.⁴¹⁶⁾

413)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8-15.

414) 소프트 파워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쇠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조셉 나이가 미국은 군사력 및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력의 또 다른 요소로서 제시한 개념이다. : Joseph Nye,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415) 이 외에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국제무역, 문화교류, 해외투자, 개발원조, 재난구제, 교육 지원 및 교류, 관광 교류 등이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China's Foreign Policy and Sofy Power in South America, Asia, and Afric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2008), p.3.

416) Joseph S. Nye, op. cit., pp.5-11.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인 하드파워⁴¹⁷⁾는 군사적 강제력 또는 경제력을 이용한 보상을 통해 다른 국가의 행태 또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국이 원하는 바를 얻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행동 스펙트럼과 자원의 유형에 따라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나이의 표를 통해 양자 간의 차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학자들이 소프트 파워 이론을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⁴¹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합국력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종합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면서 소프트 파워 강화가 국가목표에 포함되었다.⁴¹⁹⁾ 나이는 2004년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없다고 지적하였지만⁴²⁰⁾, 2005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베이징 컨센서스⁴²¹⁾가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하였

417) http://en.wikipedia.org/wiki/Hard_power (검색일: 2011.9.2.).

418)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조셉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을 빌려오거나 혹은 중국적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중국 소프트 파워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위해 정책 제안을 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또한 중국의 평화발전 전략에서 소프트 파워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와 같은 중국식 발전 모델, 조화세계와 같은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중국적 가치관 같은 중국 소프트 파워의 한 가지 자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이영학, “중국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동서연구』 제31권 제1호(2009), pp.146-147.

419)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2009), pp.182-183.

420)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sn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421)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제시하여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다.: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념상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되지만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김애경, “세계금융위기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외적 확산?”, 『동서연구』 제22권 2호, p.12. ; 베이징 컨센서스는 혁신과 도전에 대한 단호한 의지, 국경과 국익의 확고한 수호, 비대칭적으로 힘을 표출하는 수단을 신중하게 축적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실용의 추구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구별하지 않는 중국 고대 철학관의 반영이기도 하다.:Joshua Cooper Ramo, *Ibid.* p.17.

다.⁴²²⁾

다음과 같은 중국학자의 발언은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신흥대국으로서 중국이 선진 국가 특히 미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GDP와 군사력이 아닌 각종 소프트 파워이다. 이런 소프트 파워는 제도 개발, 인적 자원, 문화전파력과 응집력, 감화력,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력 등 내부 소프트 파워와 국가체제의 통제력, 국제적 규칙의 창조력, 국제의무의 분담능력 등 외부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치체제, 가치관, 국가응집력 등 비경제적 요소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 파워는 종합국력 요소에서 하드파워보다 더 중요해졌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하드파워 부문에서는 대등한 수준이 되었으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장 뚜렷한 약점이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부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⁴²³⁾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중국지도부는 책임강대국 논의 및 조화세계론의 강조를 통해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⁴²⁴⁾ 이에 따라 2007년에 개최된 제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중국이 인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와 이익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의 일부로서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지도부가 소프트 파워 건설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 파워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⁴²⁵⁾

422) Joseph S. Nye,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Wall Street Journal Asia* (December 29, 2005).

423) 黄仁伟, 『中国崛起的时间与空间』(上海社会科学出版社, 2002), pp.109-110.

424)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pp.39-40.

425) 이영학, "중국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동서연구』 제31권 제1호(2009), p.147.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 파워 개념은 그의 수용과 정책적 실현과정을 살펴보면, 나이가 제시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개념과는 다른 ‘내정불간섭’, ‘경제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소프트 파워는 나이의 정의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안보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요소, 즉 외교, 원조, 투자, 경제적 협력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⁴²⁶⁾

중국이 추구하는 소프트 파워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 원인에 대한 고찰을 선행하고자 한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⁴²⁷⁾

첫째, 중국은 자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역량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⁴²⁸⁾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를 앞세운 이라크 침공과 타 국가와의 관계에 일방주의적 방식을 적용하는 사이 중국은 다자적 국제제도 및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프트 파워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통해 대만의 외교관계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승인을 예방하려는 것이다.⁴²⁹⁾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426) 유동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 파워 외교와 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 (2010), pp.114-115.

427) 김관욱,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아프리카 자원 외교”,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2008), pp.269-270.

428) Hsin-chih Chen, "The Rising of Chinese Soft Power?: Its Nature, Exercise and Implication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48t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II, (February 28-March 3,2007), p.3.

국에 대한 자국의 투자와 해외원조에 있어 대만과의 관계단절을 제공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화평굴기의 가치를 확산하여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진타오는 중국은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들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조화세계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⁴³⁰⁾

첫째, 중국은 소프트 파워 개선방안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심혈을 쏟고 있는 분야는 공자와 유가사상의 복원이다.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공자의 ‘화(和)’ 사상에 입각한 ‘조화세계’를 내세우려는가 하면 유교 경전 정리, 공자 탄생제의 복원,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교연구센터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설립 및 대학의 유교연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⁴³¹⁾ 또한 중국은 중국어를 교육하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자아카데미(the Confucius Institute)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문화적 자산을 통한 중국 소프트 파워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현재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54개국에 걸쳐 156개의 공자아카데미를 창설하였다.⁴³²⁾ 공자아카데미 역시 인간들 사이의 조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유교의 가치를 확산시켜 중국의 후진타오의 조화세계론을 뒷받침하고 있다.⁴³³⁾

429) Richard J. Payne and Cassandra R. Veney, "China's Post Cold-War African Policy", *Asian Survey*, Vol.39, No9(1998), p.873.

430) 김관옥,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아프리카 자원 외교”,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2008), pp.270-273.

431)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사상연구』 제33집(2008), pp.321-347.

432) 김관옥, 전제서, p.271.

433) Hsin-chih Chen, "The Rising of Chinese Soft Power?: Its Nature, Exercise and Implication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48t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아울러 중국은 2007년부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공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절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기념일을 축소하고 추석과 청명절, 단오절을 법적 공유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둘째,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존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구 또는 제도들을 창설함으로써 자국의 이해관계와 선호하는 바를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해외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은 또 다른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연간 대외원조액이 약 15-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0% 정도는 아프리카 지역에 배분되고 있고 특히 2007년 말까지 49개국의 채무 374건을 탕감해주기도 했다.⁴³⁴⁾ 원자바오 총리는 이러한 중국의 원조가 아프리카와 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협력임을 설명함으로써 자원수탈을 위한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선의의 원조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⁴³⁵⁾

넷째, 중국은 자국의 가치와 정책 등을 확산시켜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교육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학원을 설립하여 1995년 이래 아프리카 등 제3세계국가 130여개 국가들의 외교관을 상대로 중국 외교정책, 중국경제, 그리고 중국정치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⁴³⁶⁾

다섯째, 중국 소프트 파워 향상의 가장 강력한 방안은 다른 국가들, 특히 제3세계국가들이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

Conference in Chicago, (February 28-March 3,2007), p.4.

43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3667

(검색일:2011.6.20.).

435) 『조선일보』, 2006년 11월 6일자.

436) 『내일신문』, 2005년 12월 23일자.

텔과 정치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식민지 지배와 내부적 혼돈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성취한 중국의 성장모델의 성공적 경험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서구식 모델에 대해 비교적 우위를 가지는 대안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⁴³⁷⁾ 더불어 중국이 스스로를 제3세계의 발전도상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내정불간섭과 평등의 기초위에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윈-윈의 공생 추구를 강조하자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소프트 파워의 매력을 증폭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⁴³⁸⁾

437) Bates Gill, Chin-hao Huang, and J. Stephen Morrison, *China's Expanding Role in Afric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2007), p.5.

438) Joshua C. Ramo,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p.3.

V. 1~3시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각 시기별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말미에 1~3시기를 아울러 인식과 정책 각각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덩샤오핑 시기 개최된 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동 시기 외교정책을 비교·분석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덩샤오핑 시기의 선언적 외교와 행태적 외교는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만큼 정치보고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대외인식과 현실의 외교정책이 합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자주 외교노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 독립자주 외교노선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어떠한 대국이나 집단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중국의 독립자주 외교노선은 1970년대 중국 외교가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선진국가에 치중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 즉 편향된 외교정책에 대한 경각심의 발로로써 향후 중국 외교는 어느 편에 치우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지도부의 인식은 외교정책에 투영되어 소련과 유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중국은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독립자주적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1982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과 소련 간 각료급 교류가 재기되었고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 발전의 전제로 제시한 3가지 조건⁴³⁹⁾은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선 후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다. 그 결과 양

439) 중·소 국경선에 배치된 소련 병력의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캄보디아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국은 1989년 국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시기 미국과의 관계 역시 부분적인 갈등 요인은 존재했지만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중국은 현대화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이 필요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에 대한 견제, 중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기대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충분한 유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전략적 이해의 합치로 미·중은 모든 부분에서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수호와 인류발전의 촉진이다. 198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국가목표 중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현대화 건설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가관계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 특히 자본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진성을 겸비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후야오방이 정치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피하는 미국과 일본, 소련 등의 국가와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최우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반패권주의이다. 중국이 과거부터 패권주의에 반대해온 것은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받고 위협과 압력을 배제하고자 함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사실상 과거에 비해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과 소련이 이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서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점차 패권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패권행태에 대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목표와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이후 선언하는 반패권주의의 의미와 그 동안 추구해왔던 반패권주의의 함의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근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넷째, 제3세계와의 관계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부터 제3세계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제3세계는 중국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점차 이념적이나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이익의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기에는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3세계와의 관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 문건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제3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호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3세계 외교와 관련하여 중국의 선언적 외교와 행태적 외교는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 중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는 제3세계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제3세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제3세계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는 인식과 행태 면에서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장쩌민 시기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간의 상관관계는 제14차와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향후 중국의 외교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독립자주외교노선,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세계평화 추

구, 주변국 외교, 제3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다자 외교를 이용한 반패권주의와 반강권정치 등 총 5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자주 외교노선이다.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독립자주의 원칙은 장쩌민 시기를 통해서도 꾸준히 견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여타 강대국들, 특히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1990년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장쩌민 시기 국가 원수가 상호 방문하며 총 6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고, 199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덩샤오핑 시기가 소련과의 관계를 재개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장쩌민 시기는 이러한 중국의 독립자주 외교정책이 현실화된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쩌민 시기 중국은 중국의 외교를 강대국, 주변국, 제3세계, 그리고 여타 다자 기구 및 협력체 등 전방위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어느 한 강대국 또는 국가 집단에 의존하거나 종속됨이 없이 독립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세계평화 추구이다. 중국 지도부는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평화공존 5원칙의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협력적이며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사회제도나 의식형태,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지위나 영향력에 관계없이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국제사회 구성을 추구하는바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은 결국 중국의 국력 신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 관계 구축, 전세

계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노력 등 구체적인 외교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존에 강조점을 두었던 양자적 관계의 강화에 해당하는 동반자 관계 구축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적·국제적 협력체 등을 통한 다자적 틀 내에서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수립과 유지에도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중국의 신안보관 역시 평화공존의 원칙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변국 외교이다. 주변국 외교는 장쩌민 시기에 대폭 강화되었다. 장쩌민 시기 정치보고는 양호한 주변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은 화목한 이웃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접국가 간의 논란은 평화와 안정의 대세에 초점을 두어 우호적인 협상과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무엇보다 천안문 사태를 겪으며 주변국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봉쇄정책에 직면하여 중국은 경제협력 다변화와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기존의 목표 이외에 미국의 압력과 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개도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꾀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안보관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는 동반자 외교를 강화하였다. 한국 역시 1998년 중국과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이다.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1980년대의 중국과 제3세계의 관계와는 달리 장쩌민 시기에는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호 관계 강화의 유인이 적었던 제3세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급에 대한 필요성 역시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관계

가 회복되게 된 강력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당대회 정치보고는 다시금 발전도상국인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고, 이러한 지도부의 인식의 영향을 받아 실제 외교정책 역시 강화된 측면을 보인다. 예컨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방문 외교 역시 활성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서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보다 본격화되고 적극적인 행태를 띠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자외교를 이용한 반패권주의, 반강권정치이다.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제언은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국제질서의 구질서는 불안정하고 불합리하며 아직까지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은 덩샤오핑 시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에 종합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대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현 국제질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반발과 견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의 현실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능가할 수 없는 미국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체제의 다극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단극체제를 대체하기 위함이지만 중국이 다극 중 일극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갈등과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며 현존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득은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자 외교의 추진을 통해 국제체제의 다극화를 피하여 다극 중의 일극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양면성은 정치보고에서도 드러난다. 한편으로 장쩌민은 정치보고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의 변화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국제질서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책임대국의 입장 역시 피력하고 있다.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이 이중성을 띠게 되면서 그 지도부의 국정운영 하에서 추진되는 외교정책 역시 같은 속성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반패권주의를 표방해오면서 중국 자신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고공행진을 벌임으로써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계와 불안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위협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일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며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 세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장쩌민 시기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실제 외교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4차, 제15차 보고에 제시된 대외인식과 전략노선을 기준으로 외교정책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국제환경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판단이 정책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장쩌민 지도부의 과도기적 대외인식 역시 이중적인 외교정책 노선으로 구현됨으로써 양자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높여주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의 대외인식과 외교노선은 장쩌민 시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심화·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상정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와 정도 역시 확장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제16차, 제17차 보고에서 드러나는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전략노선에 해당되는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자주 외교노선이다. 독립자주의 원칙은 덩샤오핑 지도부 시기부터 장쩌민 시기를 거쳐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오고 있다. 2000년대 발표된 정치보고는 모두 중국은 독립자주적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부의 공언은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실감하고 대미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을 추진하는데 중국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필요와 결합되면서 중·미 관계는 개선되었다. 갈등을 반복하던 1990년대의 양국관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양국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만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후진타오 시기에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완화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가관계 발전에도 중점을 두어 균형적인 독립자주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1년 양국은 『친선·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였고 양국 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국경문제도 사실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세계평화 추구이다. 후진타오는 장쩌민 시기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형성하고 중국의 국력 증대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대국과 주변국가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다자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주의와 일방주의가 심화되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전략을 우려하여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였고, 경제적 유인과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 등으로 제3세계와의 관계도 가일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세계평화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평화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특히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민주, 화목, 공정, 포용이라는 4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조화세계 전략과 중국이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반패권주의는 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에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타 국가들의 인식을 정비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환경과 국가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 외교의 새로운 주안점으로 떠오른 소프트 파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 외교를 통한 반패권주의 추구이다. 이 부분 역시 장쩌민 시기와 유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다. 즉 중국 외교는 다자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국제체제의 다극화를 완성하여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일극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보이는 한편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종합국력 신장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장쩌민 시기와 비교하여 후진타오 시기에는 미국과의 국력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한 반패권주의적 대응이 다소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은 외교정책을 통해 잘 대변되고 있다. 본래 외교 관계라는 것이 한결같을 수는 없는데 중국이 전방위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적 외교정책에도 종종 갈등과 마찰이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지도부의 정세 인식의 반영과 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외교정책은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분석으로서 1~3시기를 아우르는 인식의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먼저 인식의 측면을 고찰하자면 현대화 건설을 위한 경제 성장 추구가 본격화된 제13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탈피함으로써 전쟁불가피론에서 전쟁가피론으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추세라는 인식은 이후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14차 보고부터는 세계의 다극화, 즉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발전도상국이라는 언급은 제15차 정치보고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중국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국가 위상 제고에 관한 내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자신을 ‘책임있는 대국’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인식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위상 변화로 말미암아 점차 중국의 외교가 제3세계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면, 중국의 국가 목표 중 하나인 4개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전방위 외교, 독립자주 외교노선 등은 덩샤오핑 시기에 처음으로 제기되어 장쩌민 시기를 거쳐 보완되고 후진타오 시기에 심화·발전되면서 지속적으로 견지되어 왔다.

중국 외교정책은 상술한 기본원칙이 저변에 깔려 견지되면서 각 시기마다 전략적 필요에 의해 외교노선과 정책이 추가·변경되는 패턴을 보인다. 장쩌민 시기에는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 제3세계 등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했고, 책임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외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타국의 의심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화세계 개념을 내

세우며 이에 기초한 주변국, 제3세계, 다자외교, 소프트 파워 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

상술한 근거들을 종합한다면, 1~3시기 중국의 인식과 정책은 변화보다는 지속성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기별로 지속된 요소와 변화된 요소가 혼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부상해 가는 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요청되는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중국 외교의 기본 인식과 원칙을 고수하되, 중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점차 중국의 역량과 실질적 능력의 간극이 좁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의 부상이 현실화 되었을 때 상술한 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략노선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앞으로의 중국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은 행위자 ‘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분석들에 기초하여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을 분석하였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행위자의 인식을 추적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당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관계이론이 포착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이 분석시기를 덩샤오핑 시기 이후로 한정하고, 중국의 대외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역시 당대회 정치보고 문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범위 내에서 구성주의적 분석들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향후 더욱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에 선행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인식 중심적 분석법은 특히 본 논문에서 제3세계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 이행해 가는 중국의 행보를 추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미 현격한 종합국력의 신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국제체제에서 미국과 함께 G2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 과정에서도 자신을 발전도상국이라 천명해왔다. 그 괴리의 시간은 신현실주의적 접근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외교적 수사에서 발전도상국의 언급이 사라지고 센카쿠 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마야흐로 혼돈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작금과 같은 국제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중국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⁴⁴⁰⁾

440)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중국의 개방과 국력 증대에 따라 변화한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에는 다양한 대외전략사고들이 존재한다. 이들 전략사고들은 정책적 영향력의 확대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사고는 대략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 외교론, 신흥대국 외교론 등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¹⁾

전통적 지정학파는 과거 강한 중국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의 부활을 희망한다. 미국과의 협력이나 조화보다는 구조적 경쟁관계에 더 주목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세력권과 완충지대의 확보를 중시한다. 이들의 핵심개념과 언어는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수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⁴⁴²⁾

발전도상국 외교론은 후진타오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외교전략 사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강대국이 아니라 발전도상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합당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을 중시한다. 도광양희론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잘 설명한다.⁴⁴³⁾

신흥 강대국 외교론은 최근 주옥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국력의 신장, 이에 따른 자신감의 증대를 반영하면서 중국 일반인과 엘리트 사이에서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소작위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사고이다.⁴⁴⁴⁾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수사는 ‘발전도상국 외교론’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441)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442)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443)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444)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있지만, 점차 ‘신흥 강대국론’적 입장과 절충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지키는 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된다고 믿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담은 ‘전통적 지정학파’의 주장이나 ‘신흥 강대국론’자들이 과도하게 중국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이 보다 공세적이고 대립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일 것이다.⁴⁴⁵⁾

앞으로 효과적인 대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역동적인 전략 사고들 간의 경쟁 관계에도 주목하여 이들 경쟁의 결과가 어떠한 특성을 지닌 중국의 대외인식으로 표출될 것이며, 이러한 대외인식에 기초한 외교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관한 혜안을 가져야 한다.

445) 김홍규,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 외교”,
http://cafe.daum.net/bemoderate?t_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석찬.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서울:한국학술정보, 2008.
- 곽태운. “중국의 개방형 개발전략.” 『중·소 연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1987).
- 김관욱.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아프리카 자원 외교.”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 김동환. “1955-1962 기간의 중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3호, (2009).
- _____. “경제관계 측면에서 본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2호, (2010).
- 김명선.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계간중국』 제15호, (1991).
- 김병일. “중공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10집, (1980).
- 김소중,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002)
- 김승채.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추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석유』 한국석유공사, (2006).
- 김애경.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_____.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 김예경. “중국의 영향력 균형전략과 제3세계 외교.”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 김옥준. “덩샤오핑의 반패권주의 외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2002).

- _____. “1980년대 중국 독립자주의교노선의 함의와 실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 (2006).
- 김윤태.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6).
- 김재명. 『석유욕망의 샘』 서울: 웅진씽크빅, 2007.
- 김재철,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 관계자료.” 『중소연구』 제11권 제4호(1987)
- _____.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 _____.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 _____.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김재현.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서울: 나남출판, 1996.
-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김하륜.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0.
- 김학노. “합리주의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국가전략』 제6권 2호, (2000).
- 김호준. “21세기 미중관계의 결정요인.” 『대한정치학회보』 10집 제3호, (2003).
- 김홍규. “도광양회 위주, 유소작위 보완전략: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브리프』 제5권 제1호 통권 15호, (2010).
- _____. “중국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평가 및 대외정책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통상부, (2007).
- _____.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2008).
- 남궁영. “에너지 안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1호, (2007).
- 류동원, “21세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연속성과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제2호. 대구: 대한정치학회, (2003).
- _____.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 _____.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박광득,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 제3호(2003)
- 박명희, “건국이전의 당대표대회연구.” 『중국』 제19호(1993)
- 박영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1).
- 박은미.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과주: 법문사, 2008.
- 박창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북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37집 2호, (2006).
- 박형준. “안토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근대성.” 『한국사회학』 제26집, (1992).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 소치형. “외교정책의 목표와 원칙.” 『중국외교정책론』 서울:골드, (2004).
- 송영우. “등소평 이후의 중국 대외정책과 동북아 정책.” 『동서연구』 Vol.9, No.1, (1997).
- _____. “중국의 강대국 외교.” 『중국연구』 제17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8).
-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 (1998).
-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양갑용,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연구』 제30권(2002)
-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0).
- 유동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 파워 외교와 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권 제2호, (2010).

- _____.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파워외교와 경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 (2010).
- 윤영덕.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 (2006).
- 이교덕.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한국의 통일환경에서 갖는 의미.” 『통일연구논총』 제1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이남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서울대 중국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09.6).
- 이동률. “16大以後 新指導部の登場과 外交政策展望.” 『신아세아』 Vol.10, No.1, (2003).
- _____.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안보리 표결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 (2007).
- _____.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 전략적 함의.” 『동아연구』 제50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 _____.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 전략 및 목표.” 『중국연구』 제38권,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6).
- 이방숙. “중공 반패권주의의 이론과 실제.” 『건대학술지』 제26집, (1982).
- 이영주.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서울: 나남출판, 1998.
- 이영학. “중국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동서연구』 제31권 제1호, (2009).
- 이정남. “조화세계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1호, (2010).
- 이태환. “2004년 중국정세.” 『정세와 정책』 서울: 세종연구소, (2004).
- _____.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이희옥, “중국공산당 장정-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 『중소연구』 제16권 제4호(1992)
- 임반석. “중국의 대외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전략과 한국.” 『동북아논총』 제50집

- (2009).
- 장원호, 최미옥. “지방정부혁신역량 구조화 모델: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연구』 제9집 2호, (2005).
-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0집 2호, (2010).
- 정재호. “강대국화의 조건과 중국의 부상.”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정재호 편. 서울 : 도서출판 길, (2006).
-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 (2000).
-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2009.
- 주재우. “북핵 이후 중국의 동북아 평화정책” 『경기논단』 제8집 4호, (2006).
- 지재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외교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 (2003).
- 차성만. “80年代 中國의 獨立自主 外交政策의 運用에 관한 考察.” 『서경대학교논집』 제23권 제1호, 서경대학교, (1995).
-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2008).
-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사상연구』 제33집, (2008).
- 최지영. “중국의 대국외교와 대 EU전략.” 『신아세아』 제15권 3호, (2008).
- 하도형. “중국의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4집, (2008).
-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7).
- _____. “중국의 신안보개념: 다자간 안보에 대한 중국의 협력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Vol.8, No.2, (2004).
- 홍성민. “정체성과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 (2002).

케니스 H. 터커.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김용규, 박형신 역. 서울: 일신사, 1999.

Jurgen Habermas.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역. 서울: 관악사, 1995.

Liu Dong Jian.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와 한중관계의 추세: 평화공존에서 조화세계로.” 『한국민족문화』 김홍수 역. 제37호, (2010).

金益度, 李大雨 共著. 『現代中國의 政治』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金官楷. “平和共存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教 大學院 論文集』 제12집, (1980).

文與鎬. 申鍾浩, “중국의 대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중소연구』 통권 111호, (2006).

叶自成. 『중국의 세계전략』, 이우재 역. 서울: 북21, 2005.

<영문 자료>

Acharya, Amitav. “Ideas, identity and institution-building: from the ‘ASEAN way’ to the ‘Asia-Pacific way’.” *The Pacific Review* Vol. 10, No.3 (1997).

_____. “Multilateralism: Is There an Asia-Pacific Way?.” *NBR Analysis* Vol.8, No.2 (1997).

Berry, Nicholas. “Who Is in Charge of China Policy?.” *Foreign Policy Forum* (2006).

Brezinski, Zbigniew. *Power and Principle*. New York: Farrar, Strauss, Giroux, 1983.

Buchan, David. “The Threat Within: Deregulation and Energy Security.” *Survival* Vol.44, No.3.

Bukovansky, Michael. “Identity and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Reca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Paradigms*. Seoul: KAIS, (1996).

Calder Kent E. “Asia’s Empty Gas Tank.” *Foreign Affairs* Vol.75, No2.

Campbell, David. “The Biopolitics of Security: Oil Empire and the Sports Utility

- Vehicle." *American Quarterly* (2005).
- Chen, Hsin-chih. "The Rising of Chinese Soft Power?: Its Nature, Exercise and Implication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48t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2007).
- Giddens, Alexander. *The Consistitutions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 Gill, Bates. Chin-hao Huang, and J. Stephen Morrison. *China's Expanding Role in Afric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2007.
- Glaser, Bonnier S. "Face to Face in Shanghai: New Amity amid Perennial Differences." *Comparative Connections* Vol.3, No.4 (2002).
-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Vol.168. (2001)
- Habermas, Ju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Boston: Beacon Press, 1987.
- Harding, Harry.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 of Communism* (March-April, 1983).
- Harris, Lillian Craig and Wroden, Robert L. *China and the Third World: Champion or Challenger?.*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6.
- Hinton, Harold(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A Documentary Survey* Vol.1 (1980).
- Hughes, Christopher R. *Chinese Nationalism in the Global Era*. London: Routledge, 2006.
- J. Bielecki and Goldwyn, David L. "Energy and Security: Is the Wolf at the Door."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2 (2002).

- Kim, Changsoo. "Terms of Endearment: The United States China Policy and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X, No.1 (1996).
- Kim, Samuel S. "China's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Behavior." (2006).
- _____.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2005).
- Krasner, S.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Levine, Steven I. "China in Asia: The PRC as a Regional Power." in Harry Harding(ed.).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 Yale University Press, (1984).
- Liaowang. "China's Independence and Initiatory Diplomacy." *FBIS* (October 21, 1982).
-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s Foreign Policy and Soft Power in South America, Asia, and Afric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Boulder : Westview Press, 1977.
- Mann, Jim and Holley, David. "China Seeking to be a Superpower." *Pacific Stars and Stripes* (1992).
- Mao, Tse-Tung. "Long Live the Great Unity of the Chinese People!."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v.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77).
- Murai, Tomohide. "On the Potential Threat of China." *Academic Journal*. Tokyo Defense University, (1990).
- Nye, Joseph S,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_____.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Wall Street Journal Asia*

- (2005).
- _____.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 Onuf, Nicholas G. "Constructivism: A User's Manu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Armonk. New York: M.E. Sharpe, (1998).
- _____. "Sovereignty: Outline of a Conceptual History." *Alternatives* Vol.16, No.4 (1991).
- _____.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9.
- Oxford University.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1993).
- Payne, Richard J. and Veney, Cassandra R. "China's Post Cold-War African Policy." *Asian Survey* Vol.39, No9 (1998).
- Ramo, Joshua C.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 Raymond, Gregory A.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Norm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41 (1997).
- Robinson, Thomas W. and Shambaugh, David (eds.). *Chinese Foreign Policy-Theory & Practice*. New York: Oxford Press. 1995.
- Ruggie, John G.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 (1998).
- Shambaugh, David. "Return to the Middle Kingdom." *Power Sh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Smil, Vaclav. *Energy at the Crossroads: Global Prospects and Uncertainties*. Cambridge, MA: MIT Press, 2003.

- Smith, Steve. "Positivism and Beyond."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Huet al (e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James Der Derian(ed.). *International Theory-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8, No.2, (1994).
- _____. "The Agent 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41, No.3.
- _____.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u, Baiyi. "The Chinese Security Concept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0, No. 27.
- Xu, Guanqiu. "Anti-U.S. Sentiments in China, 1988-1996: Sources, Development and Impact." *Issues & Studies* Vol.34, No.1(January, 1998).
- Yang, Jian. "Sino-Japanese Relations: Implication for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5, No.2. (2003).
- Yu, Bin. "Why China Sides with US in War on Terrorism." *Pacific News Service* (2001).
- Yuan, Jing-dong. "Sino-Russia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 Preliminary Analysis." *Asian Pespective* Vol.22, No.1, (1998).
- Zehfuss, Maja.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중문 자료>

- 『1981年匪情年報』. 台北: 中國研究出版社, 1970.
- 『中華人民共和國憲法』.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鄧小平文件』 제3권.
-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北京: 人民出版社, 2002.
- 北京大學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
- 倪建民, 陳子舜. 『中國國際戰略』. 北京: 人民出版社, 2003.
- 王巧榮. “論20世紀90年代中國的伙伴關係外交.” 『思想理論教育導刊』 第2期.
- 王友才. “論第四代領導集体的睦鄰外交思想.” 『党史文苑(學術版)』.
- 尹慶耀. “從中共外交政策的演變看中共当前的基本外交政策.” 『問題与研究』 第23卷10期, (1984).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關於建國以來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註釋本』. 北京: 人民出版社, 1991.
- 中央文獻出版社編, 『周恩來年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研究室編,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9.
- 回眸世紀潮編. 『中國共產党「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 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 郝夢算, 段浩然主編. 『中國共產党60年』.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
- 張清敏. “國家不同平等互利.” 『科學決策月報』 第1号, (2007).
- 張艷軍. “非傳統安全与中國的新安全觀.” 『社會科學論壇』 第8期, (2008).
- 鄧小平. “堅持社會主義, 防止和平演變.”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鄧小平. 『鄧小平文件』. 北京: 民族出版社.

鄧小平. 『鄧小平選文(1975-1982)』. 北京: 民族出版社, 1983.

黃仁偉. 『中國崛起的時間与空間』. 上海社會科學出版社, 2002.

<기타 자료>

『경향신문』. 2011년 10월 7일.

『내일신문』. 2005년 12월 23일.

『문화일보』. 2008년 6월 23일.

『연합뉴스』. 2000년 10월 16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3667 (검색일:2011.6.20.).

『조선일보』. 1997년 4월 25일; 2006년 11월 6일; 2006년 11월 8일; 2007년 10월 22일.

『중앙일보』. 1999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 1996년 9월 7일; 1999년 3월 1일.

『Beijing Review』. Jan. 30. 1984; May. 1997; July. 1997; October. 1997; February. 1998; July. 1998.

『China Daily』. August 11. 2005.

『NEWSIS』. 2010년 10월 15일.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28. 1998.; March 2003.; 2006년 5월 12일.

『大公報』. 1986년 3월 26일.

『新華網』. 2002년 11월 17일; 2002년 11월 17일.

『人民日報』. 1974년 4월 11일; 1977년 7월 21일; 1989년 1월 4일; 1991년 4월 24일; 1990년 6월 3일; 1993년 8월 7일; 1996년 4월 27일; 1997년 4월 24일; 2003년 8월 29일; 2004년 9월 2일; 2005년 2월 21일.

『朝日新聞』. 1974년 8월 21일.

『中國網』. 2007년 3월 20일.

『環球時報』. 1999년 8월 6일; 2005년 3월 25일.

『新華網』. “江澤民在黨的十六大上所作的報告.”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 2010.11.21.).

『新華網』. “江澤民在黨的十六大上所作的報告.”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 2010.11.21.).

『新華網』. “江澤民在黨的十六大上所作的報告.”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 2010.11.21.).

“相互主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135> (검색일: 2011.10.19.).

“中國關於新安全觀的立場文件.”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검색일: 2011.10.19.).

“胡錦濤在黨的十七大上的報告.” 『新華網』. (검색일: 2011.10.19.).

“溫家寶解和平崛起五要義 重申中國永遠不會稱霸.” <http://news.sina.com.cn/c/2004-03-14/17563022381.shtml> (검색일: 2011.4.24.).

江澤民. “推動裁軍進程 維護國際安全——在日內瓦裁軍談判會議上的講話.”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4760.htm> (검색일: 2011.9.16.).

中國政府網.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922.htm. (검색일: 2011.3.4.).

中國政府網.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926.htm. (검색일: 2011.3.4.).

中國網. “조화세계 이념 하에 중국외교 커다란 성과 이뤄.” http://china.naeil.com/chinacontbo/contents_view.asp?bulyooId=2&bulyoo2Id=&num=185&GotoPage=5 (검색일: 2011.5.20.).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804> (검색일: 2011.10.20.).

ASEAN. <http://www.aseansec.org/5874/htm> (검색일: 2011.7.14.).

Lyle Flint. “Meta-Theoretical Issues to Consider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http://www.bsu.edu/classes/flint/comm360/metatheo.html> (검색일: 2011.8.15.).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www.sectsco.org> (검색일: 2011.5.25.).

http://baike.baidu.com/view/190966.html?tp=0_11 (검색일: 2011.9.21.).

<http://baike.baidu.com/view/98832.htm> (검색일: 2011.9.20.).

http://cafe.daum.net/bemoderate?t__nil_loginbox=cafe_list&nil_id=9 (검색일: 2011.8.30)

http://en.wikipedia.org/wiki/Hard_power (검색일: 2011.9.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943300> (검색일 :2011.9.20.).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검색일: 2010.11.21.).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0.11.21.).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tytj/t4549.htm> (검색일:2011.7.31.).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guideline2.html> (검색일: 2011.4.14.).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ies and diplomatic policy
in Chinese Party Congress after Deng Xiaoping**

from the diplomacy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o the diplomacy of powerful countries

Ji-Hyeon, So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Chinese leaders'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ies which means how Chinese leaders recogniz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how they evaluate Chinese status in international regimes and consider if diplomatic policy reflects Chinese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ies in actualities sufficiently and if there is any gap between them.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Constructivism focuses on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members for the analysis while considering attributes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regimes. So, this thesis borrowed the analysis method of Constructivism.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period of Deng Xiaoping(1980s), the period of Jiang Zemin(1990s) and the period of Hu Jintao(2000s) through the analysis method focusing on recognition, there was the conclusion

that this analysis method has a significant persuasive power fo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ies and diplomatic policy. This thesis used the method to analyze Chinese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politics reporting paper of Party Congress and then, compare·analyze it with actual diplomatic policy of that period. As the result, Chines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situation was reflected to foreign policy sincerely.

Of course, some people can insis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m when considering in the short term like the policy of the third world in the period of Jiang Zemin. However, if considering the long-term viewpoint of the whole period of Jinag Zemin, it can be also in the range which is not greatly opposed to the analysis result of this thesis. On the other hand, the frame of Constructivist analysis showed the possibility which can be a strong complement for the part of analytic dead zone of neo-realism. It gives an implication that we must focus on the changes of Chinese internal recognition for making a decision of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the masses in the future. Although this thesis has a limitation from the aspect of studying period and analytic materials, it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the precedent study of in-depth and systematic analysis in the future.

<부록> 제1차-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 중
중국의 대외인식 관련 내용⁴⁴⁶⁾

제1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1년 7월 23일~8월 5일)

1. 대회의 강령과 결의

중국공산당 제1강령(1921년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통과)

② 우리 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제3국제(제3인터네셔널)를 연합한다.⁴⁴⁷⁾

중국공산당(분투) 목표의 제1결의(1921년)⁴⁴⁸⁾

6. 당과 제3국제(제3인터네셔널)의 관계

당 중앙 기관은 매월 제3국제에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대표를 이르쿠츠크의 극동 서기처에 설치된 제3국제에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를 극동 각국에 파견하여 계급투쟁을 논의하는 중 서로 협력하고 계획한다.⁴⁴⁹⁾

무지한 제국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본주의를 통해 전 세계를 노예화하려 한다. 하지만 파리평화회의도 더 이상 자본주의의 결점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고 국제연맹은 이미 ‘영 제국의 외교국(外交局)’으로 전락했다. 또한 윌슨 대통령의 세계분열과 유린 계획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며 동반구

446) 본 연구자가 번역.

44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16

448)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19.

44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20.

에 쏠려있던 국제연맹의 야심도 사라졌다. 허버트 후버(哈市新倣) 대통령은 윌슨의 방법을 답습하여 태평양회의를 개최했다. 악덕 상인 영국은 엄청난 이익을 반드시 찾아 먹겠다는 심산으로 참여했고, 교활한 일본은 여우처럼 의심을 가득 품은 채 참여했다. 중국 무산계급을 수탈했던 쉬스창(徐世昌) 일당은 이를 기회 삼아 회의에 참여했다. 충실한 앞잡이였던 정치인들은 태평양회의에서 제창한 ‘정의’, ‘인간의 도리’, ‘문화개방’, ‘기회균등’, ‘영토보전’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될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태평양회의는 영국, 미국, 일본이 중국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회의로 그들이 말한 정의와 인간의 도리라 함은 강탈한 재물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 문화개방이라 함은 자유롭게 중국에서 수탈하는 것이며, 기회균등이라 함은 중국의 자원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다. 또 영토보전이라 함은 꺾 데기에 불과한 중국 정치인이나 군벌들을 그들의 노동자로 삼아 중국 무산계급을 수탈하여 이를 바치는데 상응한 이익이다.

태평양회의 성과가 무엇인지는 물어보나마나 이지만 그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⁴⁵⁰⁾

제2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2년 7월 16일~23일)

I 대회 선언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 대회 선언

1. 국제 제국주의의 분할 하에 놓인 중국(宰割下之)

구미 자본주의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시장, 대약탈지로 만들어

450)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26.

수탈하면서 발전하였다. 최근 한 세기 내 자본주의 침략의 축적은 20세기 온통 피로 물들인 세계 자본주의의 거대한 골간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본 제국주의자의 경쟁적 약탈로부터 시작된 전쟁은 그들이 만든 골간에 근본적인 훼손을 가했다. 훼손 후, 그들은 원래의 방식을 사용하여 공고화하고자 했고, 자본주의의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약탈 사업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 추세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 중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중략) 세계 자본주의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참하고 잔인한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거대한 시장을 획득해야 한다. 그들은 공급 과잉의 상품을 가져와 판매하고 그들이 필요한 원료를 가져간다. 세계에서 약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은 오직 인도, 중국, 터키, 모로코, 이집트, 페르시아, 고려, 멕시코, 남양군도 등의 지역이다. 이로 인해서 이 시장의 일부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결과 전쟁에 호소하게 된다. 1914년~1918년의 세계 대학살은 영국과 독일, 양계 자본 제국주의의 극동 시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번 세계대전의 결과는 수천만의 노동자 군중을 학살했고, 독일의 식민지를 분할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경제 기초를 훼손시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전쟁 이후,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 전 경제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멸의 역경을 구제하여 전쟁의 거대한 손실을 전 세계 노동 군중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파리와 워싱턴 등지에서 차례로 분장(分贓; 부당한 권리나 이득을 나누어 갖다.)회의를 열었는데, 전 세계 압박 받는 계급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평화”, “정의” 등의 단어를 빌렸다. 그러나 세계를 분할하기 위한 투쟁과 격렬

한 충돌이 발생하는 실상은 이미 하나도 숨김없이 죄다 폭로되었다(暴露无遺). 그들의 끝이 날 수 없는 이익충돌은 더욱 맹렬한 제2차 제국주의 전쟁의 도화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몇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이 일본과 미국의 최근, 그리고 미래의 전쟁 추세를 피하게 할 수 없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전장에서 만나지 않음으로써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다.⁴⁵¹⁾

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민족 평등이니, 민족 자결이니, 인류 평등이니 듣기 좋은 말들을 제창하면서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약탈하고, 자본 제국주의의 열강이 약소민족을 압박하는 행위를 조용히 숨겨 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 90년간의 압박의 경험을 토대로 오히려 제국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평등과 자결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쉽게 이해한다. 또한 오직 자본 제국주의를 타도한 후에야 평등과 자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용이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압박 받는 중국의 고된 군중이 최근 세계의 대세에 대해 가장 명료히 이해할 때 비로소 압박 받는 고통에서 빠르게 구출될 수 있다. 최근 세계 정치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추세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세계 자본 제국주의 열강의 전 세계의 무산계급과 압박 받는 민족을 협동으로 통제 하려는(다스리려는)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자본 제국주의 혁명 운동의 전복, 즉 전 세계 무산계급 선봉(국제 공산당과 소비에트 러시아) 지도자의 세계 혁명 운동과 압박 받는 민족들의 민족 혁명 운동이다. 대전 이후, 영국 생산력은 정체되고, 프랑스의 경제는 파산이 나고, 미국의 생산력은 과잉되어 제국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전쟁 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조직한 “국제연맹”의 목적은 각자 얻은 권리를 상호 존중하고 각자

45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3.

의 약탈물을 상호 보호하는 상호 보험(保險)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에 의해서 분산되었다(結果又被他們自己拆散了).

워싱턴 회의는 일본과 미국의 충돌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고, 루르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의 형세보다 더욱 위험한 관계로 회복되었다(柔魯會議英法背道而馳，已是回夏到比大戰以前的形勢還更危險).⁴⁵²⁾ 대전의 “과괴(破壞)”가 자본주의의 토대를 반이나 파내버린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단기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나 재조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운명이 거의 다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방면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에트 러시아(전 세계의 고된 군중 혁명 세력의 기둥)는 5년간의 투쟁 세력을 나날이 공고화하여 부단히 근본적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에 타격을 가했다. 독일과 중앙 유럽 각국의 무산계급 혁명의 불꽃은 이미 극렬하게 정점에 도달했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종종 무시무시한 동맹파업 운동이 발생하여 이미 자본주의의 오랜 근거지 동굴(老巢穴; 소굴)을 동요시켰다. 일본 무산계급의 혁명 운동 또한 명성과 위세가 드높게 흥성하기 시작했고 지난 번 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인도, 이집트, 아일랜드, 고려 등 압박을 받는 민족에게까지 번져 독립 혁명 운동과 조직은 나날이 격렬해져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은 이미 불안해졌다. 이것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세력의 신속한 신장의 확실한 증거이다.

또한 자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두 가지 혁명 세력(무산계급 혁명과 민족 혁명)의 연합은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고, 이 연합 혁명 세력은 반드시 세계 자본주의의 납골함(枯骨架)을 자본주의 스스로가 판 무덤 안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의 압박에 반대하는 중국인 세력이 이

452)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6.

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은 반드시 전 세계의 압박 받는 민족의 혁명 조류에 편입하여 세계 무산계급 혁명 운동과 연합되어야만 신속하게 공동의 압박자(국제 자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 중국의 고된 군중은 이 유일한 길을 걸어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⁴⁵³⁾

II대회 결의

중국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9개 결의안

1. “세계 대세와 중국 공산당”에 관한 결의안

1914년 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세력은 이미 쇠퇴해졌고, 사회혁명의 세력은 나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무산계급 진영 안의 많은 간신들이 비열하게 자산계급을 위해 봉사하면서 혁명 무산계급의 가장 큰 적이 되었고 혁명의 드높은 기세를 억압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제국주의자가 자신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국 자본가들이 노동자 임금은 줄이고 노동 시간은 늘리는 등 전 세계 무산계급을 공격하는 정세가 조성되었다. 자본가가 무산계급을 공격하는 정세 중, 제3국제(인터네셔널)은 전 세계 무산계급을 소집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소비에트 소련은 세계 제1의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이며, 무산계급의 조국 이요, 고된 군중의 조국이며, 전 세계 노동자, 농민이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요새(壁壘)로 세계 자본주의 세력이 여전히 강성한 지금, 부단히 세계 자본주의를 향해 공격한다. 이 때문에 세계의 노동 계급과 고된 군중은 전력을 다해 소비에트 소련을 보호해야 한다.⁴⁵⁴⁾

453)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7.

454)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21.

2. “국제 제국주의와 중국, 중국공산당”에 관한 결의안

① 현재 세계의 대체는 다음과 같다.

- 세계의 경제 질서는 이미 제국주의 전쟁(1914~1918)으로 파괴되었다.
- 세계의 자산계급은 현재 무산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전 중 훼손시킨 경제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훨씬 더 큰 힘으로(倍加勁來) 노동자들을 강탈하고 있다. 무산계급은 연합된 전선을 통해서만 이러한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 경제 질서가 훼손된 중의 세계 자산계급은 또한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원료와 노동력을 강탈함으로써⁴⁵⁵⁾ 대전 중의 손실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을 사이에 둔 투쟁 때문에 그들 간에는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미일 간의 충돌이나, 프랑스 영국 간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모두 다음 번 제국주의 전쟁의 원인을 조성하고 있다.⁴⁵⁶⁾

제3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3년 6월 12일~20일)

2. 중국공산당 당 강령 초안

① 제국주의와 중국의 구(舊)경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의 자연스런 결과로 제국주의가 발생하였다. 제국주의의 최종적 목적은 식민지들을 그들의 경제적 속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과거 종법(宗法)사회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에서 치외법권, 협정관세 등의 우세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중국의 중요한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지배하였다.⁴⁵⁷⁾

455)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21.

456)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22.

457)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374.

④ 1차 세계대전(歐戰) 후 중국사회의 각종 투쟁과 형세

제국주의 열강은 각자 전력을 다해 발전했고 또한 서로 다투었다. 그로인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 결과 세계 자본주의의 대위기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식민지 국가들은 오히려 이 때를 틈타 자국의 공업을 가까스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⁴⁵⁸⁾ 한편으로 세계사회 혁명시기가 시작되었고 제국주의 전쟁의 범람이 멈추었고 많은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되어 여러 식민지 혁명의 자연스런 동맹자가 되었다. 중국은 ‘국제식민지’로 전락했고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열강들은 중국에서 격전을 치렀지만 아직도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균형으로 군벌들이 여전히 정권을 차지하고 있다.⁴⁵⁹⁾

5. 중국 공산당 제3차 전국대표대회 선언

중국인민은 외국과 군벌이 행사하는 폭력에 압박을 받고 있다. 국가 생명과 인민의 자유가 모두 극도의 위협에 처해 있다. (중략) “군벌타파”, “제국주의 타파”의 국민혁명운동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⁴⁶⁰⁾

제4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5년 1월 11일~22일)

2. 공산국제 집행 위원회 대표가 보고한 세계 공산주의 운동 상황에 대한 결의안

458)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374.

45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375.

460)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381.

(對於共產國際執行委員會代表報告世界共產主義運動狀況之議決案)

① 유럽의 소위 민주주의, 평화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영국과 미국은 반동파의 정부를 새롭게 발견하고, 유럽은 반동조류가 고조되며, 아시아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이 더욱 더 심화되는 현상은 실제로 세계 자본주의 내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② 영국과 미국 정부가 개혁되고(更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반동조류가 고조되는 요즘, 소위 소협상국은 이미 너무나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었고,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영국의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 에스토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국가의 농민, 노동자에 대한 국내 진압 정책이 특별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자본주의는 법정에서 공산당원을 마구 죽이고, 발칸 반도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총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소위 “독립”한 국가들이 자신의 새로운 주인(보수당과 공화당 등)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均貢禮)이다. 새로운 주인은 이러한 국가들 내부의 노동자, 농민 혁명 지도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③ 영국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후 즉시 이집트 인민에 대해 무장 공격을 했고, 영국 제국주의는 인도인민에 대해 위협을 가했는데, 실로 식민지에 대한 구미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정책은 난폭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④ 9개월간의 영국의 소위 노동당 정책(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실시하는 정책, 아시아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에게 실시하는 정책)은 국내의 계급모순을 감출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의 반항을 완화시키지도 못했으며, 자산계급의 희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와는 정 반대로 국내 계급 충돌은 더욱 심각해졌고, 식민지 민족은 더욱 더 제국주의를 증오하게 되었다.⁴⁶¹⁾

⑤ 노동당의 9개월 동안의 영국 자산 계급에 대한 봉사는 영국 귀족이

46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602.

위조된 季諾維也夫의 편지를 구실로 노동당을 공격하여 정권을 잃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노동당이 정권을 잃고 영국의 노동운동은 좌경화 되었고, 소련에 대한 군중의 공감감이 확실히 증대되었다.

⑥ 영국과 미국은 道威斯(Dawes Plan; 1924년 미국 재정장관이었던 찰스 G. 도스가 주재한 영국과 미국의 재정 전문가 위원회가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된 독일의 배상금 문제에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계획에 따라 독일을 식민지로 만들어 미국의 투자를 위해 가장 신뢰할만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고, 독일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부채를 갚고자 한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독일의 소련에 대한 물품을 수집하여(銷售德國貨品于蘇聯) 소련을 공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은 구미 반동 조류를 고조시키고 각국 자본은 노동자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⁴⁶²⁾

4. 중앙 집행 위원회 보고에 대한 결의안

우리는 현재 국내 군벌 정치 붕괴 속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처해 있고, 구 통치 군벌이 신 통치 군벌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는 시기에 있다. 지난번(前次) 전쟁은 막 끝이 났다. 비록 직계 군벌의 상명하달은 와해되었지만, 승리한 반 직계 군벌은 비단 계통을 대표하고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충돌 형세 또한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다. 제2차 전쟁 또한 곧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前次) 전쟁의 결과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면서 번영하는 영미 제국주의 세력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⁴⁶³⁾ 이로 인하여 일본, 영국, 미국 제국주의 간의 극동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금 심화되고, 최근 영국, 미국, 일본이 전쟁 준비를 나날이 진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⁴⁶⁴⁾

462)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603.

463)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603.

5. 민족혁명 운동에 관한 결의안

①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의 관계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 단계는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는 직, 간접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여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의 것(整個的)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혁명 운동 역시 하나의 것(整個的)이 되었다. 전 세계 각 민족의 경제 발전 정도는 모두 다르며, 혁명의 성질 역시 다르다. 구미의 자본제도 선진국에서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운동이 형성되고, 아시아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는 다(多)계급의 민족혁명운동이 형성되었다.⁴⁶⁵⁾

제5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7년 4월 27일~5월 10일)

7. 중국 공산당 제5차 전국대표대회 선언⁴⁶⁶⁾

국제 상황도 (국내 상황과) 마찬가지로 순조롭다. 제국주의자들이 중국 혁명에 반대하는 공동 연합전선을 조성하려 시도했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쇠락 시기에 각국 제국주의자 간의 충돌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간섭에 관하여 그들은 일치할 수 없다. 일국 내의 통일된 자산계급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역시 불일치를 보인다. 몇몇은 침략의 책략을 이용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몇몇은 평화적인 조건에서 무역을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황은 각국이 중국에 공동으로 간섭하는 위험을 줄여주었다. 만약 반동(反叛) 자산계급 정

464)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604.

465)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605.

466)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774.

권이 공고화된다면, 이것은 제국주의가 중국에 간섭하는 데 새로운 도구를 줄 수 있을 것이다(那就可以給帝國主義干涉中國一个新工具).

그 외에 무력간섭의 실현이 어렵게 하는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제국주의 국내의 무산계급이 반항이 그것이다. 몇 척의 군함, 수백의 수병으로 중국을 위협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오늘날 중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실행한다면, 결과는 장기간의 전쟁이 될 것이고, 제국주의 국내의 무산계급은 식민지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마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중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에 참가하는 각 제국주의의 국내에서 반드시 심각한 정치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는 중국의 혁명의 위대한 균중을 동정하거나 도울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무산계급과 압박 받는 민족은 모두 자유를 위해 싸우는 중국 균중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⁴⁶⁷⁾

제6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28년 6월 18일~7월 11일)

I 정치결의안

1. 세계 혁명 발전의 기초 단계

최근 10년간의 세계 혁명은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제국주의대전)의 결과, 10월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무산계급 독재 정권이 승리하였는데, 세계 혁명의 제1단계가 이때 시작되었다. 그 때 서유럽 각국 역시 격렬한 혁명 위기가 있었다(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무산계급의 공산주의 선봉대가 당시 아직 매우 미숙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46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779.

아직 단결되고 공고한 공산당이 없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자산계급의 스파이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대부분이 여전히 이러한 개량주의의 정당 지도 밑에 있다. 따라서 군중의 직접적인 혁명 운동은 타격이 큰 실패를 했다. 소련의 혁명만이 승리했다. 구미 각국 자산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실패로 인해 오히려 여전히 노동자 계급을 압박하고 자기의 정권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시나마 부분적인 경제안정을 얻고 있다.

세계 혁명 형세의 제2단계는 자본주의의 부분적, 일시적 안정이다. 세계 금융 무역과 생산액이 이미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섰고, 자산계급은 광범위하게 무산계급을 공격하고, 자산계급의 생산기구는 급속하게 생산 합리화를 실행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생활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전 시기에 쟁취한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다(8시간 노동제, 임금의 인상, 정치적 자유 등등).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세계 자본주의의 안정된 관정 중 생산력이 회복, 증가되고 심지어는 전쟁 이전의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제국주의의 모든 계통의 거대한 주요 모순 역시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세계와 사회주의 건설의 소련 간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 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은 나날이 증가해갔다. 제국주의 열강과 식민지 반식민지 노동 계급 간의 모순 역시 나날이 심화되었고, 많은 직접적인 무장투쟁과 무장봉기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이 불평등했으므로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 역시 나날이 격렬해졌고, 제2차 세계 제국주의 대전의 위험성까지 내비쳤다.

이러한 모든 모순이 격렬해지면서 세계 혁명의 제3단계가 시작된다. 세계 혁명 제3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계급의 좌경화와 혁명화, 아시아 식민지 군중의 제국주의를 공격하는 투쟁의 참가, 소련의 자본주의의 안정을 동요시키는 더욱 더 강대한 동력 형성, 소련의 각국 노동자 운동과 세계의 압박 받는 민족의 혁명 중심지 형성 등이다.

세계 혁명의 제3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공개적인 승패의 발동과 식민지의 무장 봉기가 새롭게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소련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실현될 위험이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 상호 간에는 많고 거대한 충돌의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다(重新要有工人階級公開的勝負的發動, 要有殖民地底武裝起義, 同時, 反對蘇聯的武裝戰爭會有實現的危險, 而且在帝國主義國家相互之間, 也有發生許多巨大沖突之可能。).⁴⁶⁸⁾

5. 중국 혁명의 동력 및 그에 따르는 변화가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를 만든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가 공황상태에 빠진 시대에 무산계급 독재 국가(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은 이미 10년이 되었다.)의 정치적, 경제적 위력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앞날에 도움을 주며, 승리의 가능성을 보장한다.⁴⁶⁹⁾

6. 중국 혁명 실패의 객관적 원인⁴⁷⁰⁾

① 중국 혁명의 주요 적인 제국주의의 역량이 강대하다. 제국주의는 일체의 반동역량의 조직자이고 지배자이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경제적, 정치적

468)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902.

46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904.

470)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904.

위력을 이용하여 민족 자산계급에 대해 소소한 양보를 하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며 민족 연합 전선을 분열시킨다. 또한 뇌물로 군벌을 매수하는 낡은 방법을 사용하고, 무력의 군함외교로 혁명을 압박하고, 경제적 봉쇄를 실행하며, 자기의 강대한 위력을 이용하여(은행, 회사, 군대 등등) 중국 혁명의 발전과 승리에 가장 험난한 장애물을 조성한다.⁴⁷¹⁾

10. 혁명의 고조기가 지난 후의 형세

중국혁명이 실패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봉기가 진압되어가고, 민족 자산계급이 민족 해방 혁명을 배신하면서 중국에서의 제국주의 세력은 1925년~1927년 보다 공고해지고 강화되었다. 일본의 중국 북방 침략, 지난(濟南; 산둥(山東)성의 성도)의 출병은 사실상 중국 분할의 시작이었다.

분할정책의 목적은 첫째, 비경제적 난폭 세력을 이용하여 식민지의 경제를 착취함으로써 중국의 혁명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시장 쟁취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열강 역시 중국 시장 쟁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은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서 태평양에서 제국주의 대전의 위험이 발생했고, 중국 연해지방의 각성은 전장이 될 판이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중국 시장 쟁취였다.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새로운 관계에 적합하도록 중국을 새로이 분할하고자 했다. 동시에 비록 제국주의 진영 내에 매우 큰 모순이 있었지만(일미 충돌 등등), 제국주의 현재의 역량은 여전히 중국 혁명이 강대해진 것에 비해 오래된 것이었다.⁴⁷²⁾ 그들은 중국 혁명의 통일전선에 반대하여

47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905.

472)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907.

새롭게 연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통치에 조금의 위험이 생기면 그들은 바로 중국 혁명에 반대하여 일치단결(연합)한다.⁴⁷³⁾

제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45년 4월 23일~6월 11일 마오쩌둥)

제7차 전국대표대회(七大) 공작 방침에 관한 마오쩌둥의 보고⁴⁷⁴⁾

우리의 적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가 있고, 국민당이 있다. 이 두 적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다. 하나는 우리의 앞문을 지키고 있고, 다른 하나는 뒷문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중하고 겸손해야 하며 거만하고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교만함과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⁴⁷⁵⁾

연합정부를 논하다(1945년 4월 24일)⁴⁷⁶⁾

3. 최근 국제 형세

최근 군사적 형세는 소련군이 이미 베를린을 공격했고, 연합군도 연합하여 히틀러의 패전군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인민들 역시 이미 봉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중국에 히틀러가 제거되었다. 히틀러가 제거된 후 일본 침략자를 타파하는 것은 머지않은 일이다. 중국 외부(中外) 반동파의 예상과는 상반되게 파시즘 침략 세력은 반드시 타도되어야 하고, 인민 민주 세력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세계는 진보를 향하여 나

473)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908.

474)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084.

475)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088.

476)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090.

아갈 것이고, 절대 반동적인(反動)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충분한 경각심은 제기해야 하고,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역사적으로 잠깐의, 심지어는 엄중한 우여곡절을 추측해야 한다. 또한 본국 인민과 외국 인민이 단결을 획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많은 국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진보적이고 해방된 반동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강대하다(當然應該提起充分的警覺, 估計到歷史的若干暫時的甚至是嚴重的曲折, 可能還會發生, 許多國家中不願看見本國人民和外國人民獲得團結, 進步和解放的反動勢力, 還是強大的。).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경시한다면, 정치상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총(總) 추세는 확정되었고 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다만 파시즘과 실제 파시즘에게 도움을 주는 각국 반동파에게 불리한 것이고, 국가의 인민과 조직 일체의 민주세력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인민, 오직 인민들만이 세계 역사의 동력을 창조할 수 있다. 소련인민은 강대한 역량을 창조하여 파시즘을 타파하는데 주력군을 담당하였다. 소련 인민은 여타 반파시즘 동맹국들의 인민의 노력을 더하여(加上) 파시즘을 타파하는 것이 가능케 했다. 전쟁은 인민을 가르쳤다. 인민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며, 평화를 얻을 것이며, 또한 진보를 이루어낼 것이다(人民將贏得戰爭, 贏得和平, 又贏得進步).

이러한 새로운 형세는 1차 세계대전 시대의 형세와 매우 다르다(大不相同). 그 시대에는 아직 소련이 없었고, 또한 현재 많은 국가 인민들의 각성 정도(覺悟程度)가 부족했다. 양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대이다.

파시즘 침략 국가가 타도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 평화가 실현된 이후, 바로 투쟁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잔여 세력은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반파시즘 침략전쟁의 진영 중 존재했던 반민주세력과 다른 민족들을 압박하던 세력들은 여전히 각국 인민과 각 식민지, 반식민지를 압박하고자 했다. 그래서 국제평화 실현 이후, 반파

시즘 인민대중과 반파시즘 잔여세력 간의 충돌, 민주와 반민주 간의 투쟁, 민족혁명과 민족 압박 간의 갈등이 여전히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야만 파시즘 잔여 세력과 반민주세력과 일체의 제국주의 세력을 극복하고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절대 쉽고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오늘에 이르러야 했다(必然要到達這一天). 반파시즘의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민투쟁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인민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튼튼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⁴⁷⁷⁾

제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56년 9월 15일~27일)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은 대내의 모든 역량을 단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대외의 모든 역량도 단결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국제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나?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국제정세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민족 독립적, 민주적, 평화적인 세력들은 2차 대전 이후 전에 없는 발전을 했지만, 제국주의 침략세력들의 대대적인 확장정책, 평화공존 반대정책, 새로운 세계대전 준비작전은 세계인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완화될 수밖에 없으며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는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47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091.

10월 혁명 이후 소련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만 해도 소련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중국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무렵이 되자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더욱 큰 강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서도 많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이 탄생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인구는 전 세계의 1/3인 9억 여 명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사회주의 국가 터전을 만들었다.⁴⁷⁸⁾ 이처럼 형제와 같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는 계속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이미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중국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우호적인 교류를 발전시켰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내 인민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주의의 평화로운 건설과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공,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외 관계에 있어 중국은 일관된 평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평화공존과 우호협력을 중시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믿으며 자본주의 국가와의 평화로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은 전 세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독립을 요구하며 사회발전을 꾀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은 국제정세 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키는 보루이다.

478)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329.

올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표대회는 세계적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다. 6차 5개년 계획을 제정했고 사회주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당 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개인숭배현상을 비판했다. 또한 평화공존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이는 세계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량을 제고시키고 단결시키는 것이야 말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리한 대외환경이다.

2차 대전 이후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사건은 민족독립 운동의 광범위한 승리이다. 베트남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 이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기타 다른 국가들도 민족독립을 맞이했다. 중국의 위대한 이웃국가인 인도를 포함해서 민족독립을 이룬 국가들의 인구수는 전 세계의 1/4로 총 6억 몇 천만 여명에 달한다.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평화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문제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특히 최근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회사 국유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는 민족독립 운동이 이미 거대한 세계의 힘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했다. 과거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제국주의 전쟁의 후방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식민주의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공존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 밖에 남미 국가들도 반 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독립운동의 흐름을 막으려 하지만 이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독립운동은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확대되어 식민주의 통치를 반드시 종결시킬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과 존립은 민족독립운동이 승리를 거두고 발전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였다. 또한 민족독립운동의 고조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약화시켜 세계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 평화건설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와 민족독립국가의 우호적인 협력은 상호간의 공동이익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변화는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바람과는 상반된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획득한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자본을 독점하고 전쟁 후에는 무자비하게 확장정책을 취해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을 통제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을 빼앗았으며 세계패권 쟁취를 꾀했다. 또한 대규모 군사를 조직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했으며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했다. 미 제국주의는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⁴⁷⁹⁾ 하지만 거짓말로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사회주의와 침략은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침략, 식민지, 해외시장에 의존해서 부를 축적한 계급을 소멸시켰으며 대외침략을 피하는 사회근원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에서 침략에 의존해 부를 축적한 이들은 결코 스스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동, 서양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스스로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미 제국주의는 여전히 군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 서양 관계발전을 반대하고 마치 세계종말인

479)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330.

것처럼 평화공존을 두려워한다. 미 제국주의 군대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국경에서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만을 점령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필리핀, 서유럽 국가들의 영토에서 제 나라인양 굴고 있다.

‘공산주의로부터 방어(防共)’, ‘공산주의 반대(反共)’란 구호는 마치 연막처럼 한 국가가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감춰버리며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혐오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강대하고 단결된 사회주의 국가들을 쓰러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의 최근 활동은 사실상 ‘공산주의 반대(反共)’를 명목으로 자국민을 억누르고 사회주의국가와 미국 사이의 중간지대를 최대한 통제하고 간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활동은 각 계의 반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 모순을 심화시켰다. 식민주의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국가와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가 당대 최고로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민족독립 국가들은 평화중립 정책을 취했으며 미국의 침략적 군사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고 미 제국주의의 식민 확장을 막았다. 서양 국가들도 미국의 확장정책이 자신들에게 해가 됨을 간파하여 미국의 탱크에 합승하는 대신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화공존 중립을 찬성하며 이런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군비확충, 전쟁준비 정책은 단지 미국이 침략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줄 뿐이며 엄청난 군비부담은 영불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독점과 통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특히 영미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또한 서양국가의 인민들은 광범위하게

평화민주운동을 벌이고 미국의 군비확충, 전쟁준비 정책을 반대했다. 미국인들도 위와 같은 정책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전쟁의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 통치 집단의 내부에서도 상황판단이 빠른 이들은 군비확충, 전쟁준비 정책이 미국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영국, 프랑스 통치자들의 외교정책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다. 영·프 양국은 현 국제정세의 영향 속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공존을 바라고 있지만 식민주의 특권 때문에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무력사용과 위협정책 포기를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은 이집트정부가 수에즈운하회사를 회수한 이후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프 정부는 무력간섭을 통해 이집트의 신성한 주권을 훼손시키고 수에즈운하를 다시 빼앗기를 원한다. 미국은 한편으론 두 나라의 침략행위를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론 이를 기회로 삼아 중동의 이익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중동지역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민족독립국가의 반침략 운동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집트를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수에즈운하 분쟁을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영·프 양국이 만약 평화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집트와 아랍 인민들의 용감한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진영, 아시아·아프리카, 남미, 서양 각 국의 인민들과 나아가 영국, 프랑스 양국 인민들의 반대에 반드시 부닥치게 될 것이다. 세계는 평화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수에즈운하와 민족독립운동 문제에 있어 무력간섭 정책을 취한다면 철저히 실패할 뿐이다.⁴⁸⁰⁾

480)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331.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긴장국면을 조성할 것이고 자신들이 억압할 수 있는 인민들을 억누를 것이기에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경계의식을 늦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류가 평화와 발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하지만 그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의 평화민주를 지향하는 이들이 단결하고 노력한다면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와 인류의 발전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으로 삼는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인민들은 혁명투쟁 속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평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소련과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이 증명하듯 위대한 중소동맹은 극동(遠東)과 세계 평화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소련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규모 지원을 해주었다. 유럽과 아시아 인민민주국가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국인민은 형제 국가의 이러한 동지적 원조(同志式援助)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원은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위대한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함께 공동목표와 상호원조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우정을 돈독히 할 것이며 이는 영원할 것이다. 이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의무이자 대외 정책의 기반이다.

중국은 몸소 식민주의를 경험한 나라이며 중국 영토인 대만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중국인민들은 억압과 침략을 받은 민족과 국가들이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독립을 수호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투쟁의 승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불문하고 모두 평화를 지키는 힘이다.

중국과 이제 막 식민주의 통치에서 해방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로 같은 것을 경험했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공동의 염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는 영토와 주권의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지켜야 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처음 주장한 평화공존 5원칙은 이런 요구조건을 구현했다. 중국은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였다.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먼저 이웃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은 오래 전부터 우정을 돈독히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분쟁도 없다. 중국과 일부 이웃국가 간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과거사문제가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중국과 이웃국가의 우호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저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이웃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평화공존 5원칙에 따라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이웃국가의 우호관계 구축은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부 유럽국가와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중국은 아직 수교를 맺은 않은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

중국은 모든 국가에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 정책을 적용한다. 중국은 미국도 다른 국가와 평화공존을 하길 바란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대만을 침략점령하며 스파이를 파견하여 중국정권을 뒤엎으려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제에서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UN의 합법적인 지위를 빼앗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여전히 평화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⁴⁸¹⁾ 중국은 미중 외교부장관회의 개최를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정을 되찾고 대만 지역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려 했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국제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지 침략행위를 결코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중국인민이 조국의 독립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 제국주의가 악의 수단을 써서 중국을 파괴하고 고립시키려 하지만 위대한 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꺾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의는 중국의 편이며 세계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고립 당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미 제국주의이다. 미 제국주의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은 이미 이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인민과 세계 각 국 인민들에게는 평화, 경제, 문화적 관계 구축, 우호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중국인민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국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각 국 인민들과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켰고 인민단체, 각 계 사회 인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친구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상은 중국의 국제문제 해결의 기본정책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다.⁴⁸²⁾

48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332.

제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69년 4월 1일~24일 린바오)

전 세계 무산계급과 피 억압 인민, 민족의 혁명투쟁은 상호 지원받는다. 알바니아 노동당, 마르크스 레닌주의 형제당과 형제조직, 전 세계 무산계급과 혁명인민, 우호국, 우호단체, 우호인사들은 모두 중국의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과 당의 제9차 전국대표대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무산계급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제국주의, 현대수정주의, 각 국의 반동파를 반대하는 위대한 투쟁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마오 주석이 말한 두 가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적들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발전 한다(敵人一天天爛下去, 我們一天天好起來)’. 전 세계 무산계급과 각 국 인민의 혁명운동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남쪽,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와 인민의 무력투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총구 속에서 정권이 나왔다(槍杆子裏面出政權)’란 마오쩌둥의 말은 점차 피 억압 인민과 민족의 진리가 되었다. 일본, 서유럽, 북미의 자본주의 ‘심장’에서 전에 없는 대규모의 혁명 군중운동이 발발했다. 더 많은 인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형제당과 형제조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자국의 혁명노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는 정치경제가 모두 위기에 빠져 있고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있으며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다시 결탁과 쟁탈로 세계를 분할하려는 망상에 빠져있다. 그들은 반화(反華), 반공(反共), 반

482)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333.

인민(反人民), 민족해방운동 진압, 침략전쟁 등에 있어 연합하여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⁴⁸³⁾ 원료, 시장, 속국, 전략적 요지 쟁탈과 세력 확장에 있어서 그들은 아귀다툼을 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생필품 사유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에서 제국주의 전쟁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레닌전집』 중문판 제22권 182쪽)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주의혁명의 전야(前夜)이다’라고도 말했다. (『레닌전집』 중문판 제25권 349쪽) 레닌의 이러한 과학적인 판단은 시대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마오 주석은 ‘세계대전으로 두 가지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關於世界大戰問題，无非是兩種可能：一种是戰爭引起革命，一种是革命制止戰爭)’. 즉 전쟁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혁명이 전쟁을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는 4가지의 갈등을 갖고 있다. 첫째 피 억압민족과 제국주의·사회제국주의 간의 갈등, 둘째 자본주의·수정주의 국가의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갈등, 셋째 제국주의 국가와 사회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 넷째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사회제국주의 간의 갈등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반드시 혁명을 일으킨다. 1차·2차 대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공세력(反)이 3차 대전을 일으킨다면 위에서 언급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 세계인민들은 혁명을 일으켜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공세력(反)을 척결할 것이다.

마오 주석은 ‘모든 반동파들은 종이호랑이다(一切反動派都是紙老虎)’, ‘적들을 전략적으로는 경시하고 전술적으로는 중시해야 한다(在戰略上我們要藐

483)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515.

視一切敵人，在戰術上我們要重視一切敵人)’고 말했다. 마오 주석이 제시한 위대한 진리는 전 세계 인민의 혁명투지를 고무시켰고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공세력(反)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이끌었다.

중이 호랑이인 미 제국주의의 본질은 이미 세계 인민들에게 폭로되었다. 전 세계가 가장 증오하는 적인 미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집권한 후 세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와 벗어날 수 없는 경제위기이다. 둘째, 전 세계인민과 자국민의 대규모 저항이다. 셋째, 제국주의 국가의 분열과 미 제국주의의 지휘력 약화로 인해 빠진 딜레마이다. 닉슨 대통령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반혁명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미 제국주의는 중국영토인 대만을 점령하고 있다. 그들은 침략군대를 수많은 나라로 파견하고 세계 각지에 수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왜 엄청난 수의 비행기, 대포, 핵폭탄, 미사일을 만들까? 바로 인민을 겁주고 진압하며 학살하고,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는 인민과 적대관계가 되고 전 세계 무산계급과 인민들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으며 반드시 대규모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도 종이호랑이이다. 소련 사회제국주의의 실체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은 현대 수정주의가 세계혁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공산당을 이끄는 마오 주석은 위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엔베르 파샤를 중심으로 한 알바니아 노동당과 전 세계의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 함께 사상적·이론적·정치적 측면에

서 소련 중심의 현대 수정주의와 투쟁을 전개했으며, 투쟁 속에서 세계인민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사회주의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마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류샤오치의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공에 대한 항복(投降蒂、修、反)을 비판하였고 각 국 혁명운동의 수정주의 노선을 타도하고 류샤오치의 반혁명 수정주의집단을 제거했으며 공산당 무산계급의 국제주의적 의무를 이행하였다.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이후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의 지휘력이 점차 약화되었고 대내외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더 광적으로 사회제국주의·사회파시즘을 실행하였다.⁴⁸⁴⁾ 대내적으로는 소련인민을 억압하고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부활을 가속화했다. 대외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와 결탁을 강화하고 각 국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억압하며, 동유럽 국가와 몽고 인민공화국을 통제·착취하고 미 제국주의와 함께 중동과 다른 지역을 쟁탈하며 중국에 대해선 침략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소련 수정주의의 두 가지 악행은 몇 십만 군대를 파견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중국의 전바오도(珍宝島)을 무장 도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침략과 강탈을 변호하기 위해 그들은 ‘유한주권론’, ‘국제전정론(國際專政論)’,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주창했다. 이는 무엇인가? 즉, 당신의 주권은 ‘유한’하지만 그들의 주권은 무한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럼 그들은 당신들에게 각 국 인민들을 독재 통치하는 ‘국제전정’을 실시하여 새로운 차르(新沙皇, 러시아에서 황제를 부를 때 쓰는 칭호) 통치하에서 히틀러의 ‘유럽 신 질서’·일본 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미국의 ‘자유세계 대 가정(自由世界大家庭)’와 비슷한 사회제국주의 식민지인 ‘사회주의 대 가정’을 이루려 할 것이다. 레닌은 제 2인터내셔널 반역자들을 ‘말로는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회

484)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516.

주의가 제국주의로 변모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레닌전집』 중문판 제 29권 458쪽) 이 말은 오늘날 자본주의 집권자들로 구성된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에게도 해당된다. 마오 주석은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이며 소련공산당은 레닌이 만든 당이다. 현재 수정주의자들이 소련의 당과 국가 지도자의 권력을 찬탈했다. 하지만 소련인민, 당원, 간부들은 혁명적인 이들로 수정주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동지들은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련정부가 무력으로 중국영토인 전바오섬을 침략한 사건으로 전 세계는 중소국경분쟁에 주목하였다. 중소국경분쟁은 중국과 기타 국가와의 국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내려온 과거사문제이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외교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경지역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해야 한다. 위의 주장에 따라 중국은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몽고, 아프리카니스탄 등 이웃국가와 잇따라 국경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하지만 소련, 인도와의 국경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중인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인도정부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도의 반동정부는 영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계승하여 구(舊) 중국의 역대 반동정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불법경계선인 '맥마흔라인'을 인정하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할의 악사이친 점령지역을 함부로 확대하려고 하여 중인국경협상이 결렬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중소국경분쟁은 제정러시아가 중국을 침략해서 발발한 것이다. 19세기 하반기, 중러 양국 인민들이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정러시아 정부는 제국주의 중국영토분할이란 침략행동을 취해 불평등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광활한 중국영토를 분할했으며 불평등조약에 따라 많은 지역에 국경선을 설정하

는 등 중국영토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였다. 이런 강도와 같은 행동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분노와 비난을 샀었다. 1920년 9월 27일, 위대한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정부는 ‘과거 러시아 역대정부와 중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며 중국에게 빼앗은 모든 영토와 중국 국경 내의 러시아 조계를 포기하고, 제정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자산계급이 중국으로부터 잔학하게 빼앗은 모든 것을 중국에게 무상으로 영구 반환한다.’라고 엄중히 선언하였다. (『러시아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중국정부에 대한 선언』 참고) 하지만 당시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레닌의 무산계급 정책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국경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60년 8월 22일과 9월 21일, 중국은 먼저 소련정부에 협상으로 중소국경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1964년 중소양국은 베이징에서 협상을 개최하였다. 현재의 모든 중소국경조약이 제정러시아 황제가 중국인민을 강압하여 체결한 불평등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소양국인민들의 혁명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평등조약을 기반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장했다.⁴⁸⁵⁾ 하지만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은 레닌의 무산계급 정책을 배반하고 새로운 차르(新沙皇)의 사회제국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이런 조약이 불평등함을 끝까지 인정치 않았으며 게다가 그들이 불법 침략했고, 또 하려 했었던 중국영토가 소련영토임을 중국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소련정부의 이러한 대국 쇼비니즘(沙文主義)과 사회제국주의는 협상을 결렬시켰다.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이후,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은 국경지역의 상황을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수차례 국경분쟁을 일으켜 비무장의 일반 어민, 농민을 총살하는 등 중국주권을 침범했다. 최근 들어 그들은 중

485)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517.

국영토인 전바오도를 거둬 무력 침범했다. 중국 국경수비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방어공격을 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고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지켰다. 3월 21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코시긴은 중국 지도자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했다. 3월 22일 중국정부는 비망록으로 즉시 그들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재의 중소 관계를 볼 때,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련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외교루트를 통해 정식으로 중국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 3월 29일, 소련정부는 성명을 통해 침략자의 입장은 견지하면서 ‘협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고려 중에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음과 같다.

-무산계급 국제주의 원칙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피 억압인민과 민족의 혁명 투쟁을 지지한다.

-영토와 주권의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와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제국주의 침략정책과 전쟁을 반대한다.

중국의 무산계급 대외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이다. 중국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그 동안 각 국의 내부문제는 자국 인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국과 소국, 큰 당과 작은 당을 불문하고 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의 추악한 대국 쇼비니즘과 오랫동안 투쟁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소련 수정주의 반역자집단은 ‘형제당’, ‘형제국가’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노

자당(老子党), 함부로 타국 영토를 점령해도 되는 새로운 차르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중국공산당, 알바니아 노동당 등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을 파괴하고 전복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당이나 ‘사회주의 대 가정’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흉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압하고 파괴하였으며 전복시켰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의 ‘형제국가’를 점령하고 ‘형제당’을 납치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다. 그들의 파시즘 강도행위는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 제국주의, 소련 수정주의는 중국을 항상 ‘고립’시키고 싶어하며 이는 오히려 중국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들의 방자한 반화(反華) 정책은 중국의 털 끝 하나도 건들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국인민들의 독립자주, 자력갱생, 고군분투 정신을 고취시켰다. 또한 중국과 미 제국주의·소련 수정주의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오늘날 세계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공세력(反)이 아닌 무산계급과 각 국의 혁명인사들이다. 각 국의 무산계급 선진분자로 구성된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과 조직은 새로운 힘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그들과 함께 단결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중국은 알바니아 인민의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투쟁, 베트남 인민의 항미구국(抗美救國) 전쟁,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기타 국가 및 지역 인민의 혁명투쟁, 미국 무산계급, 청년학생, 흑인들의 통치집단 반대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 소련 무산계급과 노동인민들의 수정주의 반역자 집단을 전복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 일본·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 세계 각 국 인민의 혁명투쟁, 미 제국주의·소련 수정주의 침략과 억압에 반대하는 모든 정의로운 투쟁을 지원한다.⁴⁸⁶⁾ 미 제국주의와 소

486)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518.

런 수정주의로부터 침략, 통제, 간섭, 능멸을 당한 국가와 인민들이 연합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공동의 적을 쳐부술 수 있다!

중국을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 제국주의, 소련 수정주의의 대규모 침략전쟁의 위험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여 하루빨리 그들을 쳐부셔야 한다. 그들의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마오 주석은 일찍이 ‘남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공격하지 않겠지만, 만일 남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반드시 그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중국혁명은 싸워서 승리한 것이다. 마오쩌둥 사상으로 무장되고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겪은 수 억만 명의 중국인민과 인민해방군은 이미 결심을 확고히 했으며 신성한 영토인 대만을 해방시키고, 영토를 침범한 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은 ‘소련 수정주의, 미 제국주의의 결탁은 수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전 세계 혁명인민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각 국 인민들은 지금 일어서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는 이미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혁명을 일으키던지, 혁명이 전쟁을 저지하던지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의 시대는 이제 곧 저물 것이다! 전 세계 무산계급이여 연합하라! 전 세계 무산계급과 피 억압인민, 민족이여 연합하라!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를 제거하자!⁴⁸⁷⁾

제10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487)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519.

(1973년 8월 24일~28일 저우언라이)

중국공산당 제10차 전국대표대회는 임포 반당집단을 쳐부수고, 당의 제9차 전국대표대회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국내외의 대단히(大好) 좋은 형세 하에서 개최되었다.⁴⁸⁸⁾

국제방면에서 우리 당과 우리나라 정부는 제9차 전국대표대회(九大)에서 제정한 대외정책을 단호하게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과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과 조직들과의 혁명 우의,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합법지위를 회복하였다. 중국의 고립정책이 실패로 판명되면서(宣告破産) 중미 관계가 개선되었다. 중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인민은 각국 인민들과 더욱 더 광범위하게 우호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 지원해주고, 세계 형세가 지속적으로 각국 인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다.⁴⁸⁹⁾

형세와 임무에 관하여

마오 주석은 항상 우리가 여전히 제국주의와 무산계급 혁명의 시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제국주의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그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생각했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독점적 자본주의이고, 기생적, 혹은 타락한 자본주의이며 죽어가는 자본주의이다.⁴⁹⁰⁾ 또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체의 모

488)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652.

48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654.

순을 극단적으로 첨예화시킨다. 따라서 레닌은 제국주의는 무산계급 사회혁명의 전 단계(前夜)이며 제국주의 시대의 무산계급 혁명의 이론과 책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스탈린은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산계급 혁명시대의 마르크스주의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맞는 말이다. 레닌이 세상을 떠난 이후 세계형세는 굉장히 크게 변화였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지 않았다. 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사상과 이론의 기초를 지도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형세의 특징은 ‘천하대란(天下大亂)’이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긴장 상태(山雨欲來風滿樓)”, 이것이 바로 레닌이 분석했던 세계의 각종 기본 모순이 오늘날 나타난 것이다. 온화한 것은 한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이다. 대란은 계속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대란은 인민에게 있어서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이 대란은 적들을 어지럽히고 적을 분화시키며,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인민들을 단련시키며 국제 형세가 한층 더 인민들에게 유리하고,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 그리고 각국 반동파들에게는 불리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각성과 강대함은 오늘날의 국제 관계 중의 중요한 부분이다(一件大事). 제3세계 국가들은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중 단결을 강화했고, 국제적 업무들에서 그들의 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 인민의 항미구국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전 세계 인민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혁명 투쟁에 힘 있는 격려가 되고 있다. 조선인민의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출현시켰다. 팔레스타인 인민과 아랍 각국 인민들의 이스라엘 유대복고주의(犹太复國主義)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490)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656.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각국 인민의 민족 독립을 쟁취, 수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더 심도 있고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제3세계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인민들과 정의롭게 투쟁하고, 서로 지원하며 서로 격려한다. 국가가 독립하고, 민족이 해방되며, 인민이 혁명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조류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몇몇 대국들이 모두 패권을 다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패권을 다툰다. 그들은 언제나 군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군비를 확충한다. 목적은 세계의 패권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투쟁하는 한편 결탁한다. 결탁은 더 큰 투쟁을 위한 것이다. 투쟁은 절대적이고 장기적이다. 결탁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이다. 대서양선언 발표와 유럽안보협력회의 개최는 그들의 쟁탈 전략지가 유럽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양 국가들은 소련 수정주의가 동쪽으로 확산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으며 이 재앙이 중국으로 확산된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먹음직스런 고기와 같아서 누구나 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고기는 매우 딱딱해서 수 년 동안 아무도 먹지 못했다. ‘슈퍼스파이’인 린바오가 제거된 후에는 더욱 손쓰기 어려워졌다. 현재 소련 수정주의는 동쪽을 치겠다고 공언해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정책을 취해 유럽쟁탈에 박차를 가하고 지중해, 인도양 등 가능한 모든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소 패권쟁탈은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근원이다. 이를 그들이 만든 거짓으로 감출 수 없다.⁴⁹¹⁾ 이런 사실은 더 많은 인민과 국가들에게 알려졌고 제 3세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샀다. 미소 양국은 대내외 어려움으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하나 둘씩 포기해야 하는(无可奈何花落去)’ 상황에 처해졌다. 이는 올해 6월의 미소회담과 그 이후의 정

491)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657.

세를 통해 더욱 분명히 증명되었다.

‘인민, 인민만이 세계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미소 양대 패권국가의 야심과 이것이 실현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들은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도 삼키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광활한 제 3세계를 집어 삼키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다. 미 제국주의는 6.25전쟁에서 실패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스스로도 쇠퇴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소련 수정주의 통치 집단은 흐루시초프에서 브레즈네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부활시켰으며 파시즘 독재정치를 실시했고 각 민족과 인민을 노예로 삼았으며 정치, 경제, 민족갈등을 심화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중국 국경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군대를 몽고로 출동시켰다. 또한, 룬 놀 쿠데타집단을 지지했으며 폴란드 노동자들의 반란을 진압했고 이집트 내정에 간섭했으며 지식인들을 내쫓고 파키스탄 영토를 분할하는 등 수많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서 전복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로운 체르(新沙皇)의 악행을 여실히 보여주며, ‘말로는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를 취하고 있는’반동의 실체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많을수록 소련인민과 세계인민들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브레즈네프 반역자집단은 중소관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계의 안정을 반대한다’거나 ‘중국은 중소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는 소련·각 국 인민들과 중국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새로운 체르의 본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독점 자본주의자들은 중국과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얻은 공적으로(反華反共有功) 더 많은 상

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히틀러가 자주 써먹던 방법으로 브레즈네프가 좀 더 졸렬하게 사용했을 뿐이다. 그토록 세계의 안정을 원한다면 왜 한 두 가지의 일조차 해결하지 않는 것인가? 왜 체코-슬로바키아 혹은 몽고에서의 군대 철수나 일본의 북방 4개 섬(쿠릴열도) 반환을 통해 소련의 진심을 보이지 않는가? 만리장성 이북을 소련에게 양보해야만 중국이 타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고 세계의 안정에 동조한다고 보는가? 이렇고도 중소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가? 중국인민은 이에 속지도 않으며 놀라지도 않는다. 중소 간의 원칙 논쟁은 평화공존 5원칙에 기반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방해할 수 없으며, 중소국경분쟁은 어떠한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남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공격하지 않겠지만, 만일 남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반드시 그를 공격할 것이다(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 이는 우리의 일관된 원칙이다. 중국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소련 수정주의·미 제국주의의 결탁·타협과 혁명국가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타협을 구분해야 한다. 레닌은 ‘타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타협이나 형태가 바뀐 타협의 환경과 조건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를 만났을 경우, 어떤 이는 일단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과 무기를 강도에게 넘겨준 후 나중에 강도를 체포하거나 총으로 쏘 죽인다. 반면 어떤 이는 강도와 한 패가 되기 위해 돈과 무기를 넘겨준다. (『공산주의 운동 중 ‘우파’ 유치 명』; 《共產主義運動中的“右派”幼稚病》) 레닌과 독일 제국주의가 체결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전자에, 반역자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침략이며 전쟁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었다. 마오 주석은 1970년 5월 20일 성명에서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각

국 인민은 반드시 이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당대 세계의 주요 흐름은 혁명이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각 국 인민들이 자각하고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며 경각심을 유지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전쟁을 저지할 수 있다. 만약 제국주의가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양호한 상황에서 중국 자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중국은 무산계급 국제주의와 당의 일관된 정책을 견지해야 하고 전 세계 무산계급 · 피 억압인민 · 민족, 그리고 모든 제국주의의 침략 · 전복 · 간여 · 통제 · 능멸을 당하는 국가와 단결하여 대규모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제국주의와 구 · 신 식민주의, 특히 초강대국인 미소 양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중국은 전 세계의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 조직과 단결하여 현대 수정주의 반대 투쟁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의 단계별 기본노선과 정책에 따라 무산계급 통치(專政) 하에서 혁명을 지속해야 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응집해서 중국을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여 인류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중국은 마오 주석의 '인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재난에 대비하자(備戰、備荒、爲人民)', '굴을 깊이 파고, 식량을 대규모 생산하며, 패권을 차지하지 않는다(深挖洞、廣積糧、不稱霸)'란 지도방침을 반드시 견지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발발 가능성, 특히 소련 사회제국주의의 기습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여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용맹한 인민해방군과 민병(民兵)은 적의 침입을 언제든지 섬멸시켜야 한다.

대만은 조국의 신성한 영토이며 대만 인민은 중국 동포이다. 중국은 대만 동포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했다.⁴⁹²⁾ 대만동포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대만동포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대만은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 중국의 위대한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만 한다. 이는 대만동포를 포함해서 중국 각 소수민족과 인민들의 공동 바람이자 신성한 의무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⁴⁹³⁾

제11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77년 8월 12일~18일 화궈핑)

2. 형세와 임무

제10차 전국대표대회(十大)로부터 우리 당은 대외 공작 중 마오 주석이 친히 제정한 노선과 방침,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 진행하였고, 국제형세를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더욱 더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엄과 명망은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우리의 친구들이 천하에 두루 있다(我們的朋友遍天下).

오늘날의 국제형세는 매우 좋다. 적당히 좋다거나 조금 좋은 것이 아니다(形勢大好, 不是中好, 也不是小好). 몇 년 동안 국제 무산계급의 혁명투쟁, 압박받는 인민과 민족의 해방투쟁, 많은 국가들의 혁명 군중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일련의 국가들이 식민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외국 침략자를 몰아냈으며, 독립과 해방을 획득하였다. 초강대국의 침략, 간섭, 전복, 통제, 능욕에 반대하는 국제통일전선이 현재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492)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658.

493)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659.

있다. 미소 양 패권국은 어려움이 첩첩이 쌓이고, 위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점점 더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日子越來越不好過). 특히 소련 사회제국주의가 그렇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련은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이스라엘 침략에 반대하는 전쟁에서 이들을 공격하였고, 용병군을 사용해서 앙골라를 간섭하였고 자이르를 침략하였으며, 수단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많은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였으며, 제3세계 국가들 간의 단결을 이간질시키고 파괴하였다. 이것은 소련의 침략확장의 면목을 한층 더 드러내는 것이었고, 심각한 저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실은 자명했다. 국가는 독립을 하고, 민족은 해방을 하고, 인민은 혁명을 하는 것이 국제 형세의 주류요, 어떠한 힘으로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혁명의 요인이 계속해서 증가함과 동시에 전쟁의 요소도 명백히 증가하였다. 마오 주석은 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었다. 작년 초, 마오 주석은 미국은 세계에서 보호해야 할 이익을 가지고 있고, 소련은 확장하려고 한다. 이것은 변할 방법이 없다.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에 전쟁은 두 개의 평화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고, 또한 평화의 계속이기도 하다. 평화는 바로 정치라고 이야기했다. 미소의 두 초강대국은 모두 세계의 패권을 획득하고자 도처에서 투쟁을 일삼고 세계는 불안정해 진다. 그들은 이렇게 투쟁을 해가고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는다(總有一天要打起來). 그들은 도처에서 ‘완화(緩和)’를 고취시키지만, 고취시킬수록 완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군축’을 외치지만, 축소할수록 군비는 늘어난다. 그들은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전쟁을 준비한다. 전 세계 인민은 평화를 바라며, 중국인민 역시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원한다. 세계 각국 인민이 싸우려고 하거나 중국인민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초강대국들이 싸우려고 한다는 것(要打)이다. 이것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바로 침략이고 전쟁이다. 마오 주석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제국주의와 사회 제국주의라는 사회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상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민이 일어나는 혁명이며 오래 지속되는 어떠한 평화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소련과 미국은 새로운 세계대전의 근거지이다. 특히 소련 사회 제국주의는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소련과 미국의 투쟁전략 태도를 보면 소련 사회 제국주의는 공세적이고, 미국 제국주의는 수세적이다. 소련 수정주의(蘇修)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사회주의”, “민족해방지지”, “평화협력”의 구호를 공격하며 전 지구에 “공격적 전략(進攻性戰略)”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과 미국의 투쟁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있지만 투쟁의 중점은 여전히 유럽이다. 소련은 동유럽에 막강한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자원을 빼앗고 전략기지를 점령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⁹⁴⁾ 또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남쪽으로는 희망봉을 빼앗고, 서쪽으로는 대서양 교통요도를 끊어 양측으로 군대를 주둔시켜서 유럽을 포위하였다. 서양의 타협주의는 타협과 양보로 평화를 유지할 것이란 환상을 준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차르란 재앙이 동쪽으로 옮겨져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은 온전하길 바라는 월트 체임벌린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소련 수정주의의 야심을 키워 전쟁을 앞당기고 결국엔 돌로 제 발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⁴⁹⁵⁾

마오 주석은 세계대전에 대해 두 가지 항목을 지도했다. 첫 번째는 “반대한다(反對)”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不怕)”는 것이다. 소련

494)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785.

495)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786.

수정주의와 미국 제국주의는 모두 종이 호랑이일 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련 사회 제국주의 야심은 매우 크나 그 본질은 허약하다. 소련 사회 제국주의는 도처에서 침략하고 확장함으로써 자신을 각국 인민의 적의 지위로 만들면서 매우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員의 역할을 하고 있다(正起着一个好的反面敎員的作用). 각국 인민의 제고된 경계, 긴밀한 단결, 단단한 준비, 꾸준한 투쟁의 진행, 전쟁의 폭발을 늦추는 것이 가능한 시간(有可能推遲戰爭爆發的時間), 그리고 일단 싸움이 붙으면(打起來),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 낙관주의자이며 세계의 앞날에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⁴⁹⁶⁾

마오 주석이 1974년 제출한 3개 세계의 구분(三个世界杯划分的理論)에 대한 이론은 매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마오 주석은 계급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대 세계 각종 기본 모순의 발전변화, 각종 정치 역량의 분화개조, 아울러 각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해있는 정치, 경제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당대 세계의 전략태세에 대해 과학적 개괄을 내놓았다. 소련과 미국, 양 패권국은 당대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요, 억압자이며 전 세계 인민 공동의 적이다. 광대한 제3세계국가는 가장 심하게 압박받고, 가장 열정적으로 반항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패권주의의 주력군이다. 제2세계국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제3세계국가를 압박하고 착취하고 간섭하는 일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양 패권국으로부터 다른 정도의 간섭과 위협, 능욕(欺負)을 당하는 일면도 가지고 있다. 마오 주석의 3세계 구분에 관한 이론은 오늘날의 국제투쟁의 대 방향을 명확하게 지적하였고, 누가 주요 혁명 역량인지, 누가 주요 적인지, 누가 중심 역량을 쟁취하고 연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무산계급의 세계적 범위의 계급투쟁 중 주요 적에 반대하여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결

496)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786.

시킬 수 있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규정은 국제무산계급의 당대 투쟁의 전략적 요구와 부합하고, 전 세계 압박받는 인민과 민족의 당대 투쟁의 전략적 요구와 부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쟁취하는 전략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이것은 국제 무산계급의 당대의 정확한 전략 규정과 책략 규정이며, 무산 계급의 국제투쟁 중의 계급 노선이다. 몇 년 간의 실천은 마오 주석의 3세계 이론이 완전히 정확했음을 증명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3세계 이론은 반드시 더욱 강대한 위력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⁴⁹⁷⁾

마오 주석은 언제나 이미 혁명의 승리를 획득한 인민은 응당 현재 해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민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공산당을 지지하지만 수정주의는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산당이므로 각국의 공산당 혁명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 각국의 공산당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각국의 혁명은 본국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본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서로 결합하고, 인민을 영도함으로써 완성된다. 혁명은 수출할 수 없다. 우리는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 적이 없다. 우리당과 많은 공산당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당 대 당 관계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별개의 일이다(兩回事).⁴⁹⁸⁾

중국은 발전 중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제3세계에 속한다. 우리는 확고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울러 기타 지역의 발전도상국들과 같은 편에서(站在一起) 그들이 쟁취하고 수호하는 민족 독립, 보위하는 국가주권,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단호히 지지한다.⁴⁹⁹⁾

497) 圓睞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786.

498) 圓睞世紀潮編, 上揭書, p.1786.

우리는 유럽과 일본, 제2세계국가들이 초강대국의 간섭과 착취, 그리고 능력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 중 연합하는 것을 지지한다.⁵⁰⁰⁾

중국과 미국은 사회제도와 의식형태가 다르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1972년 발표한 중미 상해 공보(公報)는 오늘날 양국 관계의 기초이다. 상해 공보는 쌍방은 패권을 모색하는 데 반대하였고, 또한 어떠한 국가, 혹은 국가집단이 이러한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만약 공보의 각항 원칙이 철저히 집행된다면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보의 정신에 따르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필히 장제스 정부(蔣幫)와의 소위 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하고, 타이완과 타이완 해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모든 무장 역량과 군사 설비를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장제스 정부와의 소위 “공동방어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타이완성은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다. 우리는 반드시 타이완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타이완을 해방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⁵⁰¹⁾

소련 지도 집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신했다.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부활(夏辟)시키고, 파시즘 일당 독재 정권을 실행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패권주의를 표방하며 도처에서 침략하고 확장하였다. 소련은 사회 제국주의 국가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소련의 원칙에 대한 논쟁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

499)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787.

500)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787.

501)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787.

해 왔다. 우리는 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해 침예하게 대립하는(針鋒相對) 투쟁을 진행하는 것을 견지하며,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 소련, 양국이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소련 지도 집단은 중소 국가 관계 개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의가 없다. 중소 국경선 협상을 아무런 결과 없이 8년 동안 시간만 끌고, 내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선을 이동시켜 동쪽을 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며(聲東擊西) 지속적으로 반중 조류를 불러일으킨다. 소련은 가지각색의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가 억지로 마오 주석이 제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개조했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허황된 망상에 빠진 것(痴心妄想)이다. 중소 국가 관계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走進死胡同)”은 바로 소련 지도 집단이다. 만약 소련 지도 집단이 진정으로 중소 국가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응당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⁵⁰²⁾

전당, 전군, 전국 인민은 반드시 마오 주석의 “동굴을 깊게 파고, 식량을 많이 비축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深挖洞, 廣積糧, 不稱霸)”는 가르침을 명심하여 제국주의, 사회 제국주의에 대해 일어난 새로운 세계대전에서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일체의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남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도 남을 침범하지 않는다(人不犯我, 我不犯人). 남이 만약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는 필히 남을 침범한다(人若犯我, 我必犯人). 우리는 언제나 감히 침입한 모든 적을 섬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초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외업무 중 단호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대국주의를 소멸시킬 것이다.⁵⁰³⁾

우리는 마오 주석의 위대한 기치를 받들어 무산계급 국제주의를 견지하고

502)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 1787.

503)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787.

마오 주석의 혁명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하고, 전 세계 무산계급, 압박받는 인민과 민족과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제3세계국가들과의 단결 또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와 사회 제국주의의 침략, 전복, 간섭과 통제를 받는 모든 국가와 연합해야 하고, 소련과 미국, 양 초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공존 5 원칙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조직과 단결을 강화하여 소련 수정주의 반혁명분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대 수정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⁵⁰⁴⁾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82년 9월 1일~11일 후야오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

1. 역사적인 전환과 위대한 임무

장기간 존재했던 교조주의와 개인숭배사상의 속박으로부터 탈피를 추구하고, 새롭게 마르크스주의의 실사구시 사상 노선을 확립하고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마오쩌둥 사상의 회복과 발전을 추구한다.⁵⁰⁵⁾

장기간의 사회혼란이 종결되고, 안정된 단결과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정치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는 점진적으로 완비되어 가고 애국통일전선도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정치국면에 처한

504)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787.

505)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56.

현재는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이다.⁵⁰⁶⁾

당과 국가의 업무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경제발전 과정 중 장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좌경 오류를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이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⁵⁰⁷⁾

당의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4항 기본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자산계급의 자유화 경향을 제지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는 각종 범죄활동을 금지한다.⁵⁰⁸⁾

새로운 역사시기 중국공산당의 주요임무는 모든 국민이 단결하고 자력갱생과 노력을 통해 산업과 농업의 발전, 국방 강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문명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문제를 포함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전 세계 인민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제국주의, 반 패권주의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투쟁한다.⁵⁰⁹⁾

2.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사회주의 현대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러 과제 중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 때문에 당은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의 전략목표, 전략중점, 전략단계와 일련의 방침을 정하였다. 20세기 말까지 실현

506)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56.

507)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56.

508)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58.

509)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59.

해야 하는 주요 목표는 경제적 효율이 계속 제고된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농공업 연간 생산을 4배 증가시키는 것이다. 1980년의 7100억 위안에서 2000년에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위의 목표를 실현한다면 중국 총 국민소득과 주요 농공업 상품의 생산량은 세계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이며, 국민경제의 현대화 목표가 크게 진척될 것이고, 국민들의 물질적 문화생활은 소강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전략적 핵심을 다음으로 삼는다. 첫째,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 절약에 힘쓴다. 셋째, 교통운수업과 우정, 전자통신을 발전시킨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발전시킨다.⁵¹⁰⁾

4개 현대화의 관건은 과학기술 현대화이다.⁵¹¹⁾

지금으로부터 20년 내에 반드시 농업과 에너지, 교통, 교육과 과학 등 몇 가지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이 분야들을 경제발전의 전략중심으로 삼아야 한다.⁵¹²⁾

경제성장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적 절차는 다음 두 단계이다. 10년 동안 기초를 단단히 하고 역량을 집중시키며 성장 여건을 만든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경제 발전 시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⁵¹³⁾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시

510)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59.

511)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0.

512)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0.

513)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0.

장조절(시장경제) 기능을 부수적으로 이용한다. 이것이 경제체제개혁의 기본 원칙이다.⁵¹⁴⁾

평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광범위하게 대외경제기술교류를 하는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의 확고한 전략방침이다.⁵¹⁵⁾

중국은 국내 상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강력하게 확장하고자 한다. 기업기술 개조에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 등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⁵¹⁶⁾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자력갱생한다. 대외경제기술교류 확대의 목적은 자력갱생 능력을 증강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외교류 중 자본주의 사상의 침식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어떠한 외세 숭배 사상과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⁵¹⁷⁾

3. 전력을 다하여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한다.

4. 전력을 다하여 고도의 사회주의 민주를 이룩한다.

고도의 사회주의 민주를 달성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의무 중 하나이다. 중국의 국가제도는 인민민주독재제도이다.⁵¹⁸⁾

514)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63.

515)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3.

516)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4.

517)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4.

518)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8.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는 회복되고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반드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혁명을 이루고 국가의 정치체제와 지도체제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⁵¹⁹⁾

사회주의 민주주의 발전은 사회주의 법률체제와 함께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제도화와 법치화를 실현해야 한다.⁵²⁰⁾

자본주의 세력 일부는 중국 사회주의 사업 세력을 적대시하고 여전히 중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려 한다.⁵²¹⁾

중국은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사상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첫째는 대외 개방과 대내 경제 활성화 정책 견지, 두 번째는 경제영역과 정치문화영역 중 사회주의에 유해한 심각한 범죄활동의 저지이다.⁵²²⁾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은 여전히 불안하고 중국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정세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는 기초 위에서 국방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⁵²³⁾

5. 독립자주의 대외정책 견지

중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가 기본 출발점이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대외정책을 견지한다. 중국의 세계평화 수호는 인류 발전의 숭고한 국제적 의무와 일치한다. 건국 이후 33년간 중국은 전 세계에 표명

519)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68.

520)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8.

521)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69.

522)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70.

523)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70.

하였다. 중국은 절대로 어떠한 대국이나 집단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과학이론을 기초로 하여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기본 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제정한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신중국은 세계에서 위신을 획득하고 많은 동맹을 얻었으며 국제관계에서 존엄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⁵²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이것은 평화공존 5원칙(和平共處的五項原則)으로 영토보전의 법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 불가침의 원칙, 호혜의 원칙, 평화공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하여 평화공존 5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중국은 과거 서양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최후에는 전 세계에 걸쳐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지만 ‘혁명’은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은 단지 각국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⁵²⁵⁾

33년 동안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전 세계의 125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과 많은 서방국가들은 비록 사회체제는 상이하나 모두 세계평화 수호라는 공동의 염원을 가지고 경제문화협력 방면의 공통된 이익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⁵²⁶⁾

중국과 일본의 과거 갈등관계는 양국 인민의 장기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10년 전 국교정상화에 성공하였다. 평화우호관계의 발전, 평등호혜, 장기간

524)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0.

525)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71.

526)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71.

의 안정적 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일본에는 일부 군국주의 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은 중일 양국 인민과 그 밖의 국가의 인민들의 심각한 경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국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장기간 걸쳐 발전하는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지향한다.⁵²⁷⁾

중국과 미국은 1979년 이래 우호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세계평화와 양국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 양국 간의 문제는 대만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의 유일정부로 승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양국 국교 합의(公報)에 위배되는 ‘대만 관계법(与台湾關係法)’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대만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대우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⁵²⁸⁾

소련이 패권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중소 간의 우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련이 계속해서 중국의 변경에서 도발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소련 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중소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소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민과 소련인민 간의 우의는 역사가 길다. 중소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러한 우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⁵²⁹⁾

52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1.

528)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71.

세계 각국의 평화공존을 위협하는 것은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이다. 많은 국가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면서 식민주의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초강대국은 세계 인민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초강대국은 어떠한 국가보다도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추구하고 세계 범위에서 전쟁을 전개하며 전 세계의 불안과 분쟁을 조장하는 주요 근원이다.⁵³⁰⁾

패권주의에 반대 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현재 세계 시민의 의무이다. 초강대국으로 인해 세계 대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패권주의와 확장주의에 맞서 투쟁한다면 세계평화 수호가 가능하다. 중국은 초강대국의 군비경쟁과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⁵³¹⁾

사회주의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이다. 중국은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이것을 자국의 신성한 국제적 의무라 여긴다.⁵³²⁾

제3세계 국가가 직면한 공동의 의무는 먼저 민족의 독립과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제적 독립을 기초로 이미 획득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면에서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상호 지원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세계 각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그리고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중 어떤 국가는 상당한 정도의 자금을 축적하고 있고,⁵³³⁾ 많은 국가들은 각

529)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1972.

530)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531)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532)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533)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1972.

자 특색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 방면에서 역시 다른 국가가 거울로 삼을 만한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간의 경제 협력(통상 이야기하는 ‘남남협력’)은 기술과 설비의 활용이 용도에 맞아서(就一部分技術和設備的適用對路而言) 그 성과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협력은 현재의 불평등한 국제 경제 관계를 타개하고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위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⁵³⁴⁾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發展中國家)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관되게 전력을 다하여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운명을 지원한다. 중국인민은 본래부터 가난함을 혐오하고 부유함을 사랑하고(嫌貧愛富),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欺軟怕硬) 생각과 행동을 경멸한다. 우리가 제3세계를 대하는 우의는 진실된 것이다. 호혜 협력을 체결하든 지원을 제공하든 우리는 엄격하게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건을 덧붙이거나 어떠한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로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⁵³⁵⁾

우리는 일부 제3세계 국가들 간에 발생한 불화, 심지어는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싸움의 발단은 종종 양국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때때로 패권주의가 어부지리(坐享其利)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제3세계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관되게 분쟁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함으로써 아군(親者)은 아프고(痛) 적군(仇者)은 유쾌한(快)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

534)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3.

535)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1973.

한다.⁵³⁶⁾

우리 당은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위에서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상호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각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⁵³⁷⁾

중국은 인구 10억의 대국이므로 세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행한 것들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사이에 아직까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건설을 강화하여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⁵³⁸⁾

제13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87년 10월 25일~11월 1일)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

1. 역사적 성과와 이 대회의 임무

국제정세와 중국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따라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외교방식과 당의 대외관계를 조정하여 독립자주, 반패권주의, 세계평화 유지의 대외정책을 발전시켰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친구들이 더욱 많아졌다.⁵³⁹⁾

2.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현대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

536)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1973.

537)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73.

538)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1973.

539)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1.

며 국제정치의 조류가 급변하는 세계이다.⁵⁴⁰⁾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의의 있는 지도 방침을 확립해야 하는가? 셋째, 대외개방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현재 국제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져 어떠한 국가도 폐쇄된 상태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낙후된 기초 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특히 대외 경제기술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문명의 성과를 흡수하는 데 노력하여 선진국가와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야 한다. 왜국정책으로는 더욱 낙후되어갈 뿐이다.⁵⁴¹⁾

3. 경제발전 전략에 관하여

①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을 가장 중요한 지위에 두어, 경제건설을 과학기술의 진보와 근로자의 자질향상에 의거하는 궤도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외국의 선진기술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국내의 과학기술 연구와 밀접히 결합시켜 도입기술의 소화, 흡수 및 개량에 노력해야 한다.⁵⁴²⁾

중국의 과학기술자의 힘을 충분히 발휘시켜 나가고 국제적인 인재교류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⁵⁴³⁾

② 사회의 총수요와 총공급 간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조해야 한다.

540) 圓眸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22.

541)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4.

542)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6.

543) 圓眸世紀潮編, 上揭書, p.2126.

중국은 국내시장이 광활하며, 재래 산업에는 커다란 발전의 여지가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의 부단한 확대에 의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충분히 이용할 광범위한 가능성도 마련하고 있다. 이 두 방면의 유리한 조건을 훌륭히 결합하고, 선진기술에 의한 재래산업의 개조와 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동시에 신흥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⁵⁴⁴⁾

③ 대외개방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확대시키고, 대외적인 경제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열린 세계이다. 중국은 이미 대외개방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실행해 오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기술협력과 무역교류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경제효율의 향상을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⁵⁴⁵⁾

7.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세계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인류문명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과 노동인민의 사업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지에 진입할 것을 요구한다.⁵⁴⁶⁾

제11차 3중 전회 이래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재인식 과정 중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등의 분야에서 일련의 과학적인 이론관점을

544)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27.

545)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128.

546)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142.

전개,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중략) 대외개방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필요조건이라는 관점, 4개 기본원칙의 견지와 개혁, 개방의 견지라는 총 방침은 두 가지 기본점이 상호결합된 것으로 어느 하나를 결여할 수 없다는 관점,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정문제에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외국 공산당과 기타 정당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관점, 평화와 발전은 현대세계의 주요 문제라는 관점 등이다.⁵⁴⁷⁾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하다. 세계 각국 인민은 평화의 유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비경쟁과 침략의 확산을 제지하고 있으며, 진정한 군축과 분쟁지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과 소련은 최근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전력 中導)문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동, 서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될 분위기가 나타났다. 중국은 이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는 군축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군비경쟁의 종식은 아직도 요원하다. “분쟁지역”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지역분쟁은 여전히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국제정세의 긴장상태를 진정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힘든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국 인민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계속해서 확고부동한 독립자주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 인민과 함께 국제정세를 세계인민과 세계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⁵⁴⁸⁾

547)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142.

548) 圓睥世紀潮編, 上揭書, p.2144.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공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새로운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매력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⁵⁴⁹⁾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92년 10월 12일~18일 장쩌민)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사업의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

제13중전회는 당면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내적 조건이 마련되었고 국제적 환경이 유리하다고 보아, 이 시기는 도전도 많지만 기회도 많기 때문에 발전을 가속화시킬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다.⁵⁵⁰⁾

1. 14년간의 위대한 실천에 대한 기본결산

사회주의 건설의 외부조건 문제에서 평화와 발전은 현재 세계의 2대 주제이고,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중국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대외개방을 실시하는 것은 개혁과 건설에서 불가결한 것이므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창조한 모든 선진적인 문명성과를 흡수하고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과, 폐쇄되어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⁵⁵¹⁾

2. 90년대 개혁과 건설의 주요 과업

549)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144.

550)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2346.

551) 回眸世纪潮编, 上揭书, pp.2350~2351.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지금의 세계 현실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면 매우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남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면한 국제 경쟁의 모습은 경제력과 과학기술역량을 토대로 하는 종합적 국력의 경쟁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주변의 일부 국가들과 지역은 모두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지체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문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⁵⁵²⁾

3.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외정책

복잡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는 대외활동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금 우리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는 건국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고 중국과 많은 발전도상국과의 단결협력도 더욱 더 공고화되고 강화되었으며, 선진 서방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는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 지위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세계사적 대변동의 역사적 시기에 놓여있다. 양극구조는 이미 종식되고 각종 세력들이 새롭게 분화, 조합되고 있으며 세계는 바야흐로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구조는 장기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쟁취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와 동시에 지금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각종 모순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민족모순, 영토분쟁, 종교분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유혈충돌과 국지전까지 벌어지

552)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353.

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세계의 양대 주제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며 발전을 떠나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패권주의, 강권정치의 존재는 평화와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종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오랜 가난과 낙후된 상황에서는 세계의 발전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인민들은 더욱 각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역사적 운명을 지닌 개발도상 국가들이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 단결하고 협력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평화, 국가의 발전, 사회의 진보, 경제의 번영, 생활의 향상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보편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대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국의 역량을 쏟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민족의 이익,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튼튼한 역량이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군사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침략적 팽창행위를 반대한다. 중국은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공정, 합리, 전면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

할 것을 주장한다. 지금 세계의 일부 나라들도 군비 축소를 말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들의 첨단무기를 진정으로 줄이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을 엄격히 준수 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의신장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어떠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가 하는 것은 당면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중국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주권과 영토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과 평화공존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안정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 국제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 신질서에는 호혜평등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계는 다양하며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나라 인민들은 모두 자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자국에 맞는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라가 크거나 작거나, 강대하거나 약소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없이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국제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며 불인치한 점은 유보하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상호평등하게 대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

국가 간의 의견차이와 분쟁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준칙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국제문제를 독점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신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업이다. 중국 인민은 여러 나라 인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구성국이자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중시

하여 유엔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및 그 안보이사회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군비 축소를 추진하고 전 세계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중국은 발전도상국이다.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발전도상국과 각기 자국의 독립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지하며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블록 불가담운동의 감시국가가 되었으며, 77 그룹과도 밀접한 연대를 맺었다. 앞으로 그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토대 위에서 모든 나라와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제교류에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자기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중국에 강요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우리의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해 나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호혜평등의 토대 위에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확대하며, 문화, 교육, 보건, 위생, 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당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지금 중국공산당은 이미 100여개 국가의 많은 당 및 정치조직들과 서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부문제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여러 나라의 당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발전

시켜 나가며 불일치한 점은 유보하고 공통점을 찾는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여러 민족, 인민들이 장기간 침략을 받고 억압당하고 능욕을 당하던 비참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자기의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국 헌법은 근본적인 면에서 인민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중국은 인권과 관련되는 일련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평등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찬성한다. 인권문제는 결국은 한 나라의 주권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역사적 경험은 그 어떤 깃발을 내걸든지 관계없이 남의 나라의 독립, 주권을 침범하고 남의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업신여기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모욕하고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억압한다면,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손을 너무 길게 뻗쳐 남을 억누르면 세계 인민의 견제와 반대를 받게 되기 마련이다. 옳으면 지지를 받고 옳지 못하면 지지를 받지 못한다.⁵⁵³⁾

제15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1997년 9월 12일~18일 장쩌민)

현재 국제 형세의 전반적 흐름은 완화의 추세이다. 평화와 발전은 당대의 주제이다. 다극화 추세는 전 세계 혹은 지역 범위나 혹은 정치, 경제 등 영

553) 回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p.2361~2362.

역에 관계없이 모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세계의 각종 역량은 새로운 분화와 조합을 이루고 있다. 강대국 간의 관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조정을 경과하였으며 각 지역간, 대륙간 협력 조직도 전대미문의 활약을 하고 있다.⁵⁵⁴⁾ 많은 발전도상국들의 전반적인 실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다극화 추세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유익하다. 각 나라 인민들은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이우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평화를 원하고 협력을 추구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세계 평화를 보호하는 힘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세계 대전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양호한 국제 평화 환경과 주변 환경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사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여전히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근원이다. 군사 집단을 확대하고 군사동맹의 강화하는 것은 평화의 보호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 경제의 구질서는 아직 발전도상국 국가의 이익에 손상을 주고 있다. 빈부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인권’ 등의 문제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현상도 아직 심하다. 민족, 종교, 영토 등의 원인으로 일부 지역의 충돌은 되풀이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덩샤오핑의 외교사상을 견지하고 독립자주 평화외교정책을 변함없이 신봉할 것이다. 모든 국제 업무에 대해 우리는 중국 인민과 세계 인민의 근본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실의 시비에 따라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외래로부터 오는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어떤 대국 혹은 국가 집단과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집단을 추구하지 않고 군비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군사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554) 圓睥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553.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은 응당 상호 협상을 통해 상호 간의 분쟁의 발단을 평화적 형식으로 해결하며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구실이든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업신여기며 전복해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는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추진하고 경험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는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되며 평화와 발전의 시대흐름을 반영한다.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다중 다양하다. 각국에서는 본국 국정에 부합하는 사회제도와 발전전략 및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국의 국정은 각국 인민들이 주관해야 하며 국제 사정은 모두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화목한 이웃관계를 보유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주장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간의 논란은 평화와 안정의 대세에 초점을 두어 우호적인 협상과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일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잠시 보류해 두고 일치한 점을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보류할 것이다.

제3세계국가 간의 단결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발전도상

국은 국가의 독립 수호, 경제 발전의 근본 목표 실현에서 일치한다. 중국은 예전과 같이 발전 중의 각국과 모든 방면에서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발달한 국가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은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공동 이익의 합치점을 추구하여 상호 협력을 확대하며 인류 생존과 발전 중에 직면하는 도전에 대응할 것이다.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화를 견지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쌍방의 장기적인 이익과 세계 평화의 발전의 대세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며 걸핏하면 제재하거나 혹은 제재로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평등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과 지역 간에 폭 넓은 무역과 경제 기술 협력 및 과학 문화 교류를 전개하여 공동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다자적 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유엔 및 기타 국제 조직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정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며⁵⁵⁵⁾ 우리 당과 왕래를 원하는 각국 정당과 새로운 형태의 당 차원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가 간의 관계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역량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장기간의 평화적 국제환경, 특히 양호한 주변 환경을

555) 圓睥世紀潮編, 『中國共產黨「一大」到「十五大」珍典紀實』(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p.2554.

필요로 한다. 중국의 발전은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중국이 강대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은 오랫동안 열강의 침략과 압박, 능욕을 받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미래는 밝지만 그 길은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중국 인민은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⁵⁵⁶⁾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2002년 11월 8일~14일 장쩌민)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전지구화의 추세는 우여곡절 끝에 발전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는 변화와 발전이 빠르게(日新月异), 종합 국력의 경쟁은 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형세가 압박을 줄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뒤로 밀리게 된다(形勢逼人, 不進則退). 우리 당은 반드시 시대적 조류의 선두에 위치해야 한다.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 인도해서 현대화 건설의 추진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완성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3대 역사적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위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킬 것이다. 이것은 역사와 시대가 우리 당에 부여하는 장엄한 사명이다.⁵⁵⁷⁾

556) 圓眸世纪潮编, 『中国共产党「一大」到「十五大」珍典纪实』(国家行政学院出版社, 1998), p.2555.

557)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9.23).

조국 통일의 대업이 새로운 진전을 얻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다. “일국양제” 방침을 견지하며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사회 경제가 안정되었다. 해협 양안 인원(人員)의 왕래와 경제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대만 독립(台獨)”등 각종 분열을 도모하는 세력에 대한 투쟁을 심도 있게 전개할 것이다.⁵⁵⁸⁾

대외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국제 형세와 발전 변화에 따라 올바른 대외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양자간, 다자간 외교를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한층 더 제고되었다.⁵⁵⁹⁾

5년 동안의 성과는 개혁개방, 특히 1989년 13차 4중 전회 이래(以來) 노선의 기초 위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13년 동안 국제 정세가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어려워(風云變幻) 우리나라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발전과정이 규모가 크고 기세가 드높았다(波瀾壯闊). 20세기 80년대 말~90년대 초에 국내에는 심각한 정치 풍파가 발생하였고, 동유럽은 격변하였으며, 소련은 해체되었고, 세계 사회주의는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은 전대미문의 거대한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과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당 중앙은 단단히 전당 동지들과 전국 각 민족 인민들에게 의지하여 11차 3중전회 이래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의 대세를 성공적으로 공고화 시키고 중

558)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9.23).

559)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9.23).

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수호하였다.⁵⁶⁰⁾

1. 과거 5년의 업무와 13년의 기본 경험⁵⁶¹⁾

13년 동안 우리는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 어떤 당을 건설해야 하는지, 당의 인식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⁵⁶²⁾大和小亂

⑨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한다. 시종일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최우선 순위이다.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 건립을 촉진한다. 냉정한 관찰, 침착한 대응의 방침과 상호존중,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정신으로 국제 업무 처리라는 (기준에) 따라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제 관계 민주화를 촉진하고, 평화로운 국제 환경과 양호한 주변 환경을 쟁취한다.⁵⁶³⁾

적극적 방어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고도의 기술 조건 하의 방위 작전 능력을 제고한다. 세계 군사 변혁의 추세에 적응하고 과학기술 강군 전략을 실시하고, 군의 질을 높인다(加強質量建設).⁵⁶⁴⁾

560)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1.9.23).

561)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39.htm (검색일:2011.9.23).

562)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1.9.23).

563)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50.htm (검색일:2011.9.23).

564)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0.htm (검색일:2011.9.23).

9. 국제형세와 대외업무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지금 시대(當今時代)의 주제이다. 평화수호, 발전촉진, 각국인민의 복지와 관련된 일(事關)은 각국 인민의 공동 염원이고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이다.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전지구화의 추세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회와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세계대전은 예측가능한 시기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장기간의 평화로운 국제 환경과 양호한 주변 환경의 쟁취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 정치 경제의 구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주는 불확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요소가 서로 뒤섞이고 공포주의 위협이 상승한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有新的表現). 민족, 종교 모순과 경계(邊界), 영토 투쟁으로 인한 국지전이 때로 고조되고 때로 가라앉는다(時起時伏). 남북 차이의 정도가 한층 더 심화된다. 세계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인류는 많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시종일관 자주독립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중국 외교정책의 목적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 인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다양한 조화롭고 병존하는(和諧并存) 역량을 촉진하여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 번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제 전 지구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유리한 것만 좇고, 해로운 것은 피하며(趨利避害), 그 과정에서 각국, 특히 발전도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 경제 신질서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은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공동으로 협상해야 하며, 자기의 의지를 타국에 억지로 주입해서는(强加于人) 안 된다. 각국은 경제적으로 상호촉진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되 빈부격차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문화적으로 서로를 본보기로 삼고, 공동으로 번영하되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안전에 관하여 상호 신임하고, 공동으로 수호하며 서로 신뢰하고, 이익이 되며, 평등하고 협조적인 신 안보관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을 이용하여 서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한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을 수호할 것을 주장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화와 발전 모델의 다양화를 제창한다. 세계는 풍부하고 다채롭다. 세계의 각종 문명과 상이한 사회제도와 발전방식은 피차 존중하여, 경쟁 중에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取長補短), 구동존이(求同存异) 중에는 공동으로 발전한다. 각국의 사정은 각국 인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세계의 사정은 각국의 평등한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체의 공포주의 형식에 반대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협치를 표본으로(標本兼治) 공포활동을 경계하고 타파하려면 공포주의를 생산하는 근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각국인민의 근본 이익을 중요시하여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공동 이익의 합치점을 넓히고,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린우호를 강화하고, 이웃 국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 국가를 동반자로 삼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와의 교류와 협

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3세계국가들과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키며, 상호 원조와 지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협력 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자적인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합국과 기타 국제적, 지역적 조직 중에서 영향을 발휘할 것이며, 발전도상국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주독립, 완전평등, 상호존중, 상호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며 각 국가 각 지구의 정당, 정치조직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간교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고, 대외문화 교류를 확대할 것이며, 인민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⁵⁶⁵⁾

제1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나타난 대외인식

(2007년 10월 15일~21일 후진타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받들고,
소강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 분투하자

11. 시종일관 평화 발전 노선을 걷는다.

오늘날 세계는 대변혁, 대조정 중에 있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다. 평화를 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세계의 다극화는 거스를 수 없고, 경제의 전지구화는 심도 있게 발전하며, 과학 기술 혁명은 빠르게 발전하며, 전지구와

565) “江泽民在党的十六大上所作的报告”, 『新华网』(2002년 11월 17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11/17/content_632296.htm (검색일:2011.9.23).

지역의 협력은 마야호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고, 국가 대 국가의 상호 의존은 나날이 밀접해지고, 국제 역량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국제 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된(穩定) 상태이다.

동시에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不安寧)하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국지전과 핫이슈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 지구의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남북 차이가 심화되며, 전통 안보 위협과 비 전통 안보 위협이 서로 교차되고, 세계평화와 발전이 많은 난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동으로 발전의 기회를 나누고, 각종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인류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事關各國人民的根本利益), 각국 인민의 공동 염원이다. 우리는 각국 인민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여 장기적으로 평화적이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협조적인 세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연합국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고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 관계 준칙을 준수하고, 국제 관계 중 민주, 화목, 협조, win-win정신을 드높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동으로 국제 관계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우수한 점으로 서로 보완하며, 공동으로 경제의 전 지구화가 평등, 상호이익, win-win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상호 본보기가 되고, 구동존이의 기초 위에서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문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서로 신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분쟁을 전쟁의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환경 보전과 관련해서는 상호 돕고, 협력을 추진하며, 인류가 생존하는 지구를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역사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미래 운명은 나날이 세계 미래의 운명과 밀접해지고 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중국정부와 인민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드높일 것이고, 독립 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을 진행할 것이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목적을 준수할 것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발전의 노선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와 인민이 시대의 발전 조류와 자신의 근본 이익에 근거하여 내놓은 전략적 선택이다.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중국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확고부동한 역량이다. 우리는 중국인민의 이익과 각국 인민의 공동 이익을 합하여 정의를 주도하고, 신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발전 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타국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분쟁과 핫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지역적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일체의 공포주의 형식에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취하고, 군비경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에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을 피하지 않는다.

중국은 시종일관 win-win하는 개방 전략을 취할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국의 발전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이고, 각 방면의 이익의 합치점을 넓혀 나가고, 본국의 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상대방, 특히 발전도상국을 고려하여 정당한 배려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통에 관한 국제 경제무역 규정에 따라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법에 따라 협력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발전도상국이 자주적인 발전 능력을 강화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남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국제 무역과 금융 체제를 지지하고, 경제 무역 마찰을 상세히 논의하고 협상하여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대부분의 국가와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도상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할 것이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며,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상호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주변 외교방침을 관철할 것이고,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우호와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평화안정, 평등상호신뢰, win-win협력의 지역 환경을 조성해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광대한 발전도상국과의 단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전통 우의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장시키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발전도상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자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상응하는 국가 의무를 다할 것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제 질서가 더욱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의 교류 협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군사, 지방, 민간단체의 대외왕래를 강화하고, 중국인민과 각국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세계의 번영과 안정 역시

중국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중국인민은 지속적으로 각국 인민과 인류의 아름다운 이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⁵⁶⁶⁾

566) “胡锦涛在党的十七大上的报告”, 『新华网』(2007년 10월 24일자).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_10.htm (검색일:2011.8.20).